

2023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민족의 원형문화와 고조선문명

2023. 12. 15(금)

장소: 사단법인 대한사랑 서울사무실

Youtube 생중계: “2023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주관 | 세계환단학회(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

후원 | 사단법인 대한사랑, STB 상생방송

환영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세계환단학회가 출범한지 어언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 2회 학술대회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세계환단학회지도 10권 2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세계환단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은 우리 대한의 참된 역사를 학술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많지 않은 강단과 재야의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물로서 다른 어떤 역사관련 논문보다 가치있는 우리의 바른 모습을 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소위 강단사학계에서는 이런 연구논문의 내용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으나 이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포장하여 강요하는 강자의 횡포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바른 진리는 외롭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환히 드러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학계의 제일의 이슈는 ‘전라도천년사’ 발간문제일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뿌리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 대한의 남부지방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우리 대한의 정사로 발간하려고 했다는 데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혼입니다. 혼을 잃고 생존할 수가 없듯이 왜곡된 역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공분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발간이 좌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대단히 학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시민들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류문화의 맹렬한 기세를 타고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우리 앞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계학술대회는 한민족의 원형문화와 고조선 문명을 주제로 우리 조상들이 추구해온 삶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4356(2023)년 12월 15일

세계환단학회장 이기동

학술대회 진행순서

◎ 개회사 및 축사 13:00-13:20

개회사: 이기동(세계환단학회장)

축 사: 허철부(세계환단학회 고문, 명예회장)

◎ 학술발표

Session 1

1.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 13:20-14:00
발표: 이강식(전 경주대학교)

2.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 14:00-14:40
발표: 유철(상생문화연구소)

◎ 휴식 14:40-15:00

Session 2

1. 고조선의 첨단과학기술 15:00-15:40
발표: 이명우(운릉도서관장)

2. 평양부 고지도 분석과 관련된 역사적 지역 위치 탐구 15:40-16:20
발표: 정택선(전 군산대학교)

3. 종합토론(진행: 안병우) 16:20-17:00
토론: 안병우(충북대학교), 윤창열(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이완영(대한사랑 사무총장),
박규홍(서원대학교)

◎ 폐회 및 기념 촬영

목 차

환영사	ii
•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 / 이강식	5
•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 / 유 철	51
• 고조선의 첨단 과학기술 / 이명우	72
• 평양부 고지도 분석과 관련된 역사적 지역 위치 탐구 / 정택선	91
논평	
•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에 대한 논평 / 안병우	135
•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에 대한 논평 / 윤창열	138
• 고조선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논평 / 이완영	140
• 평양부 고지도 분석과 역사적 관련 지역 위치 탐구 위치 탐구에 대한 논평 / 박규홍 ..	141
세계환단학회 논문 공모	139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

이강식(경영학자·경영학명예교수(전)·경영학박사)

- I. 첫말
- II. 풍류도는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 현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
- III. 신시의 풍백조직과 신라의 풍백우사신앙, 단전호흡의 기원
- IV. 신시의 신의 령과 응녀황후
- V. 『화랑세기』의 『선사』의 우주청원지기와 『환단고기』의 1기3신사상
- VI.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
- VII. 힌두교의 브라흐만, 브라흐마, 요가의 프라나
- VIII. 불교의 완벽한 깨달음, 프라즈나, 판야, 반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무상정 등정각, 혜
- IX. 서구기독교의 루아흐, 프네우마, 숨, 령, 성령, 신과 심, 흙먼지
- X. 맺는말

【주제분류】 한국경영사, 한국경영사상사, 신라경영사, 신라경영사상사, 난랑비서, 풍류, 풍류도,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

【주요용어】 난랑비서, 풍류, 풍류도, 풍월, 풍월주, 풍백, 바람, 바람, 불다_풍, 령, 비렘, 단전호흡, 운기, 대주천, 소주천, 완벽한 깨달음Perfect Enlightenment의 종교, 현강대왕, 지증대사, 월지궁, 온실, 신시, 응녀황후, 태우의 천황, 대한민국 현존 _{최고} 사서 김대문 선생의 『화랑세기』, 우주청원지기, 우주지진기, 현강대왕, 지증대사, 월지궁, 파사소도부인, 선도신모, 파사왕, 파사석탑, 최치원 선생, 『환단고기』, 『천부경』, 『31신고』, 『신사기』, 『참전계경』, 허조동체, 유무동시, 개전일여, 성통광명, 양자역학, 파동과 입자, 유교, 도교, 불교, 힌두교, 우파니샤드, 브라흐만_梵, 아트만_我, 梵我一如, 브라흐마_{梵天}, 힌두교 요가 프라나_{氣呼吸氣息調息}, 至氣, 불교의 프라즈나, 반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慧, 空, 연기, 중도, 루아_息흐Rûah/Rûach/Ruakh, 프네우마Pneuma/프뉴마/뉴마, 숨, 성령Holy Spirit, 생기, 신과 심, 흙먼지, 프시케Psyche, 혼, 백.

【요약문】 신라는 국유현묘지도인 풍류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누구도 그 근본적법대의를 밝히지 못하였다. 나는 1997~2000년 현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을 연구하여, 이 풍류가 고대 환국, 신시 풍백, 조선에서 신라로 전수된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인 천선교로서 선불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변증하였다. 그리고 이 풍류가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요가의 프라나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화연구하여 풍류가 인도 힌두교의 브라흐만, 프라나, 브라흐마, 불교의 프라즈나, 반야, 무상정등정각, 아녹다라삼막삼보리, 혜, 공, 그리고 서구기독교의 루아흐, 프네우마/프뉴마/뉴마, 숨, 령, 성령, 신과 심, 흙먼지, 기식법, 조식법의 기원이 된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로서 천선교, 천신교와 천전교임을 더 깊이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환국신시조선경』(『3국유사』「고조선(왕검조선)」), 『3국사』, 『제왕운기』,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단서대강』 등 고대사서와 『난랑비서경』(『풍류도경』, 『풍류도81자경』), 『천부경』(『81자경』), 『31신고』(『366자경』), 『신사기』, 『참전계경』 등 고대 경전을 연구하고, 『리그 베다』, 『우파니샤드』, 『반야바라밀다심경』, 『금경반야바라밀다경』, 『대방광불화엄경』, 『황제내경소문』, 『도덕경』, 『장자』, 『서경』, 『논어』, 『맹자』, 『성경』 등 유현한 종교경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 『낭혜화상비』, 『고선사 서당화상비』 등 금석문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나는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변증하여 만고의 의문을 풀었다.

I. 첫말

국가에 현묘한 풍류도가 있다. 신라에는 국유현묘도인 풍류도가 있고, 이를 문창후 최치원(857~923? 향년 67세로 추정) 선생이 『난랑비서』에서 고구정녕히 기록하였고, 또 이를 김부식(1075~1151) 선생 등이 『3국사』(1145)에서 진실하게 채록하였다.¹⁾

1) 나는 문창후 최치원 선생의 생몰년대를 857~923? 향년 67세로 추정하여 왔는데, 근거는 최치원 선생을 고려 현종(r.1009~38대)이 14년 계해 1023년에 문창후로 추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따라서 이 추봉이 고운 선생 사후 100년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라 출신 최씨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100전인 923년을 몰년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이는 나의 추론이다. 현재 경주 최씨는 『문창후최선생신도비문』에서 생몰년대를 857~951년으로 기록하고 향년을 95세로 본다. 나는 이 終焉年度도 존중한다. 현재 경주 최씨는 고운 선생이 公爵1급이 아니고, 侯爵2급에 추봉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 원래 황족이 아니면, 公爵1급에 추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족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작위가 후작2급이기 때문에 고운 선생은 6두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작위에 올라간 것으로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다. 일반인이 공작1급에 올라갈 수는 있으나, 매우 엄청난 공적을 쌓아야한다. 왜정 때에 이등박문, 박영효, 이완용 3인이 사후 공작에 추증되었는데, 그러므로 그 공적이 그들로는 엄청 대단했을 것이다. 이완용은 살아서는 3급인 伯爵이 되었다가 죽어서 公爵1급을 추증받았는데, 현재 이완용은 호적에서 파냈기 때문에 성이 없다. 이완용이 살아서 받은 백작은 붙어로는 Comte콩트라고 하며, 속어인 끈대의 어원이 되었다.

우리 고대 조선의 箕子의 자는 존칭형어미가 아니고, 작명인데, 子爵4급이다. 그러나 후조선을 개창하고, 후조선왕이 되었다.

최치원 선생의 爵名인 문창후의 文昌星은 文曲星인데, 북두7성의 제4성으로서 문장가와 종교인을 배출하며 특히 과거장원급제를 이루게 해준다. 따라서 고운 선생이 이 별에 꼭 맞는 업적을 낳았기 때문에 이 대단한 작명에 추봉되었다. 즉 이는 고운 선생이 문창성의 화신으로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문을 이루거나 과거급제, 각종 시험에 합격을 하고자 하면, 북두7성의 제4성의 화신으로 이 땅에 강세한 최치원 선생에게 기원을 드리면 된다. 이는 곧 북두7성의

그러나 이 풍류도를 그동안은 누구도 해석을 못하여 왔는데, 나는 1997~2000년 처음으로 이 풍류도가 선불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이며, 풍류의 수련방법은 인도 힌두교 요가의 프라나와 같은 수도법이며, 이는 단전호흡법, 불교의 명상법, 도교의 조식법에 해당한다고 논증하였다.²⁾ 즉 풍류가 프라나와 같은 발음이며, 같은 뜻이라고 변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 풍류도가 환국 이래, 신시의 풍백조직에서 기원했음을 변증하여, 이로써 내가 萬古의 의문을 해결하였다. 벌써 햇수로 2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이에는 엄청 더 많은 세계 종교철학사상의 유현한 내용이 있으며, 그후 계속한 연구한 바를 이 연구에서 기쁘게 발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라 풍류도가 신시의 풍백조직에서 기원하였으며, 뜻은 바람의 흐름이며,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로서, 그 본질은 천선교, 천신교와 천전교이며, 수련법으로서는 단전호흡법 氣息調息에 해당하며, 그후 힌두교의 브라흐만, 브라흐마, 힌두교 요가의 프라나, 선불교의 프라즈나, 반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혜, 서구기독교의 루아흐 Rûah, 프네우마 Pneuma/프뉴마/뉴마, 숨 성령 생기의 기원이고, 서구의 프시케Psyche영혼의 기원임을 변증하고, 동시에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의 31사상을 연구하여, 최치원 선생이 『천부경』의 저자 번역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변증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고대 환국인 이래, 환국, 신시, 조선 이래로 풍류도가 풍백에서 출발하여 전세계로 펼쳐나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생은 숨이다.³⁾ 그 어떤 누구라도 권력자, 금력자, 지식인, 종교인, 장사,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숨 한번 딸까 못 쉬면, 간다, 가면, 그 어떤 태백산 같이 쌓은 황금도, 그 어떤 한강의 모래알 만큼 많이 모은 다이아몬드 보석도 다 소용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득한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있는 이래로, 숨을 신령하게 보았으며, 여기서 풍류도가

제4성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홍유후 설총(655~? 자 聰智, 호 氷月堂) 박사는 현종 13년 1022년에 홍유후로 추봉되었고, 지금은 최치원 선생과 함께 향교 문묘 대성전에서 전향에서 배향되고 있다. 신라2현으로 설총, 최치원 선생이 전국 향교에 배향된 것은 우리나라 유교에서 매우 주요하며, 고려 현종의 추봉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김부식(1075~1151) 선생 등이 『3국사』(1145)에서 고려 현종(r.1009~31 8대)을 신라 외손이라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이런 유교적 연유도 있기 때문으로 본다.

2) 이강식, “화랑도조직의 이론과 실천,” 『발표논문집』, 1997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서울: 한국경영학회, 1997. 2. 22.), pp.491~525.

이강식, “화랑도조직의 이론과 실천,” 『경영학연구』, 제27호 제1호(서울: 한국경영학회, 1998, 2).

이강식, “선도신모가 화랑도조직의 기원이라는 변증,” 『신라학연구소논문집』, 제2집(경주: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1998, 12).

이강식, “사다함 풍월주의 화랑도조직경력,” 『경주문화』, 제5호(경주: 경주문화원, 1999).

이강식, “한강대왕의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풍류도: 화랑도조직의 종교의 본질,” 『경주문화론총』, 제3집(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3)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전) 천신교의 핵심교리,” 『세계환단학회지』, 9권2호(대전: 세계환단학회, 2022. 12), p.64.

출발하였다.

풍류도란 무엇인가? 風流는 <바람의 흐름>이며, 이는 공기의 흐름이고, 이는 氣의 흐름이고, 이 숨의 호흡수련을 통해 우주정기를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 완벽한 깨달음을 깨치는 길이며, 단 전호흡/기식/조식의 길이며, 神仙人一體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지난 50년간 풍류도의 본질을 엄중히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서 그 종교적 성격을 구명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나는 이 기록으로 지난 50년간 유일하게 단 1개의 기록을 찾았는데, 이를 이미 1997~2000년 사이에 발표를 계속하였고, 그후로도 계속 논급을 하였다. 햇수로도 올 해 2023년까지 27년을 더 노력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노력할 바이고, 이제 그 본질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종교철학사상의 7천년 대여정이며, 그 여정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II. 풍류도는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 헌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

신라의 풍류도는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가 너무나 유명하다. 여기서서는 특히 풍류도가 유도불 3교를 포함한 유도불 4교 회통종교임을 밝혀, 나 역시 비상한 관심속에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난랑비서』의 81자의 기록 속에서 유도불 3교의 근본종지는 잘 알 수 있었으나, 풍류도의 종교적 본질을 알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같은 최치원 선생이 쓴 『지증대사적조탑비명명서』(893)에서는 풍류도가 선불교와 같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나는 이를 풍류선문답으로 해석하여 萬古의 의문을 풀었다.

헌강대왕(r.875~86 49대)은 7년 881년 봄 3월 월지궁에 지증대사(824~82)를 초빙하여 다음과 같은 풍류선문답을 나눴다.

(II-1) 太傅大王(憲康大王)以花風掃弊, 慧海濡枯, ……

(智證大師) ……引, 問心于月池宮,

時屬織羅不風溫樹方夜, 適觀金波之影, 端臨玉沼之心,

(智證)大師俯而覲, 仰而告曰,

“是卽是, 餘無言.”

(憲康大王)上洗然, 忻契曰,

“金仙花目所傳風流, 固協於此!”

遂拜爲忘語師, 及出, ……(하략).⁴⁾

태부대왕(헌강대왕)께서는 화랑도의 풍류도로서 폐풍을 일소하고, 바다 같은 큰 지혜로서 매마른 세상을 진리로 적시게 하시고, ……

(지증대사를) 월지궁에 인도하여, 마음에 대해 하문하셨다[問心].

이때 엽혀있는 조라(蔦蘿 새삼풀)에도 바람 한 점 없고, 온실의 나무에도 바야흐로 밤이 드는 무렵이었는데, 때마침 금파[달월]의 달그림자가 옥소[月池]의 마음에 바로 비추어진 것을 보고, 지증대사는 고개를 숙여 유심히 살피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아뢰어 말씀 드렸다.

“이것이 이것이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헌강대왕)상께서는 씻은 듯이 혼연히 계합하고 말씀하셨다.

“금선[부처]의 연꽃이 풍류가 전해 온 바와 진실로 여기에서 일치하는구나!”

마침내 (지증대사에게) 배례를 하고 망언사(언어문자를 떠난 스승)으로 삼았는데, (지증대사가 궁궐을) 나갈 즈음에 ……(하략).

이 기록이 풍류도와 불교의 선불교가 만난 기록상 최초의 풍류전문답으로 내가 처음 논증하였다. 헌강대왕과 지증대사는 혼쾌히 계합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의 법을 전하였고, 풍류도와 선불교사에서 매우 소중한 풍류전문답기록을 남겼는데, 매우 놀라운 기록이다. 동시에 최치원 선생이 또 하나의 풍류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을 남겼고, 또 이를 통해 최치원 선생의 도의 계제가 매우 심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

최치원 선생이 『난랑비서』에서 풍류도의 유도불 3교포함회통사상을 남긴 것이 우연이 아니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깨달음을 갖고, 『난랑비서』를 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치원 선생은 겸양하여 자신과 같이 학문으로 깨닫는 이는 <口學者>로, 불교스님처럼直指人心으로 마음을 수도하여 도를 바로 깨닫는 이는 <心學者>로 표현하셨다. 이를 잊어서

4) 최치원,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893); 『4산비명』.

<智證>대사의 <智>는 깨달음, <證>은 증거함이라는 뜻이므로 지증대사는 <깨달음을 증거함>이라는 매우 도력이 높은 법명이다.

智 슬기 지; 日-총12획; [zhi]슬기, 지혜, 슬기롭다, 지혜롭다, 피, 모략(謀略)

【명사】사물의 도리·시비·선악을 잘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 지혜. 슬기.

證 증거 증; 言-총19획; [zhèng]증거, 증명하다, 알리다, 고하다

【명사】① ‘증거’의 준말. ② ‘증명서’의 준말. —••• ~을 내보이다 —••• ~을 하나 따다.(아래아 한글).

나는 여기서 溫樹를 온실의 나무로 해석하여 월지궁에 <온실 Green house>이 설치되었다는 신설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월지궁의 성격상 당연하다. 다만 溫樹를 <따뜻한 방 앞의 나무 온실수>로 보아서 <궁중 깊숙이>라는 관용구로 볼 수도 있다고 나는 제시하였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최치원 선생이 굳이 <溫樹>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온실 Green house>를 틀림없이 상정한 것이다. 세계문명사적으로도 이때 신라에 온실 Green house가 있었음은 불문가지이다.

5) <深遠>은 원래 중국 중서령 사마 천(-145~-86년경) 선생이 노자의 경지를 두고 한 말이다.

는 안된다. 심학자는 심학자의 길을 가고, 구학자는 구학자의 길을 가고, 구경각의 길을 다 가면, 깨달음의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다. 물론 구학자도 마음을 수도해야하고, 심학자도 학문을 수학해야한다.

따라서 이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893)(II-1)의 기록이 풍류도가 선불교와 같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는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이며, 이는 내가 처음으로 논증하였다.

특히 현강대왕이 지증대사를 망어사로 제수하여 지증대사를 인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강대왕이 깨달은 왕, 聖王^{성왕}이라는 것과 신라황제가 풍류교의 교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는 선대의 부황인 경문대왕(r.861~75 48대)이 국선용화화랑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이는 종교와 정치가 일체인 宗政一體^{종정 일체}의 오랜 인류의 종교정치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신라사에서 계속 탐구하도록 하겠다.

問 心 于 月 池 宮,
문 심 우 월 지 궁

“마음이란 무엇인가?”

“是 卽 是, 餘 無 言.”
사 즉 사 여 무언

“이것[물에 비친 달 그림자, 水月^{수월}]이 이것[마음, 心^심]이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이 달 그림자가 월지의 이 마음에 바로 비춰져 있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金仙花目所傳風流, 固協於此!”
금 선 화 목 소 전 풍류 고 협 어 차

“금선화목 부처의 연꽃핵심진리가 바람흐름풍류가 전해 온 바와 진실로 여기에서 일치하는구나!”

이 풍류선문답은 선교로서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인 풍류도와 선불교를 명징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는 양자역학과도 방불하고, 풍류도와 선불교와 양자역학은 진리로서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같은 것은 아니니, 이를 결코 착각하면 안된다. 풍류도와 선불교는 마음^심을 완벽하게 깨닫는 종교고, 양자역학은 우주진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진리는 같은 부분도 있으나, 본질의 도달점은 어디까지나 다르다.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異同!^{이동}

풍류선문답은, 물론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학문상 知解^{지해} 하면 우선 저 하늘의 진리의 본체인 마음달은 하나이며, 천강에 비추는데, 이 달그림자는 물위에 흔들리는 그림자로서 허상처럼 보이지만,⁶⁾ 허상만이 아니고 실상은 달이니, 이 달을 보고 실재의 마음을 깨달

6) 水月^{수월}의 기존의 해석은 <모든 법의 실체가 없는데 비유함>이다.

아야 한다. 水月!

물 위에 흔들리는 달을 보고 마음을 깨달아라! 心月!

이는 내가 불교의 緣起法과 中道法으로 해석한 것이다. 7) 모든 實在은 있는 것[有]도 아니고, 없는 것[無]도 아니고, 緣起法과 中道法에 따라 텅빔 속에 있는 것[空]으로, 虛粗同體요, 有無同時임을 제창한 것이다! 나의 지해는 양자역학을 참조한 것이다.

유교는 天命이면서, 從心이다.

도교는 自然이다.

불교는 空인데,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覺]. 그것도 완벽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풍류도는 물론 바람흐름으로 현상이 고정된 실재가 아니고, 항상 대류하고, 유동하고, 회전, 순환하는데, 그 속에서 蓄氣하고 冲氣하여 실재를 깨달아 완벽한 진리를 갖는다.

『환단고기』는 다양하게 복수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록이 합본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양자역학은 관찰하고, 측정하면 나타나고, 안하면 안 나타나고, 어디 있는지 확정하지 못하고, 다만 확률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풍류도와 선불교는 그 마음달의 실재를 깨달아라는 것이다. 風月!

마음달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재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

깨닫는 것인가? 깨닫는 것도 없는 것인가?

“無!”

없다는 것은 있는가?

“空!”

만법은 1귀하는데, 心月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전관응 감수, 『불교학대사전』, 7판(서울: 흥법원, 1994), p.888.

나는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水月은 실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한 뜻으로, 空을 좀더 적극적으로 부처의 空의 원뜻에 맞게 번역해석하였다.

7) 이강식, “환국의 흥익인간경영사상과 천부경의 새로운 이해,” 『세계환단학회지』, 9권1호(대전: 세계환단학회, 2022. 6), pp.168~79.

“바람흐름風流”
풍류

헌강대왕은 월지궁에 지증대사를 초빙하여, 신라의 국유현묘 풍류와 외래의 선불교가 다 완 벽한 깨달음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지증대사를 언어문자를 떠난 스승인 忘語師로 제수하셨 다. 그러나 언어문자를 떠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스승 망어사가 더 이상 서울 서라벌에 머무를 수는 없고, 수도를 위해 곧바로 주석처 문경 봉암사로 돌아가셨다.⁸⁾

“金仙花目所傳風流, 固協於此!”
금 선 화 목 소 전 풍류 고 협 어 차

헌강대왕의 이 말씀이 風流禪, 韓國禪으로서 현재 풍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천금같은 말씀이다. 금선화목은 불교의 世界1花의 근본종지인 拈花示衆의 연꽃이다.
세계 화 연화시중

헌강대왕과 지증대사의 이 만남과 풍류선문답은 仙敎史에 길이 남을 만큼 완벽하다.
선 교 사

바람은 연꽃을 만났고, 연꽃은 바람을 만나 활짝 피었네!

저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풍월이 이 호수의 반짝이는 수월이네!

참으로 아름다운 만고의 풍류선문답이다!

나는 이를 헌강대왕의 풍류도-선불교합일론으로, 그리고 이 선을 풍류선으로 이름붙였다. 바람흐 름의 선문답! 더 자세한 것은 나의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가? 김부식 선생 등의 『3국사』 「헌강왕 7년 봄 3월」(881)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II-2) 七年春三月燕羣臣於臨海殿酒酣, 上鼓琴, 左右各進歌詞, 極歡而罷.⁹⁾
칠 년 춘 삼월 연 군 신 어 임해 전 주 감 상 고 금 좌우 각 진 가 사 극 환 이 파

7년 봄 3월 군신이 임해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헌강대왕은 북과 거문고를 타고, 좌우 신하들은 각각 가사를 지어 올리면서, 극력 즐기다가 파하였다.

헌강대왕이 7년 881 봄3월, 지증대사를 월지궁 임해전에 초빙하여, 접견을 하고, 풍류선문 답도 하여 깊이 계합하고, 즉시 망어사로 제수하시었다. 이 연회의 앞부분에서는 물론 다른 업무 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 후 연회를 하였을 것이다. 이는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인

8) 문경 봉암사에는 1,200백년을 훌쩍 넘어 아직도 비(국보 제315호)가 현존하고 있다. 지금은 1년 중 4월초8일, 단 1일만 산문을 개방하여 일반인이 비를 친견할 수 있으며, 나는 이미 친견하고, 풍류라는 2글자를 찾아보면서 한없는 감동을 느꼈다. 비의 탁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나는 이 진탁도 친견하고, 비와 다름없는 끝없는 감동을 느꼈다.

9) 김부식 등, 『3국사』 「헌강왕 7년 봄 3월 (881)」(1145).

酣 즐길 감; 西-총12획; [hān,hán,hàn] 즐기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다, 한창 성하다

데, 뛰어난 유가사가인 김부식 선생 등은 지증대사와의 도의 만남은 쓰지 않고, 신라하대의 군신 간의 극력 즐겁고 화목한 연회를 매우 부각하였다. 물론 그것도 의의는 크다.

그러면 이때 두 분의 나이는 어떠했을까? 이 해는 881년으로서 헌강대왕의 보령을 최대한 추정하면 우리나라로 21세, 만20세이고, 지증대사는 만58세이다. 약관의 헌강대왕과 지천명의 지증대사의 풍류선은 참으로 선학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풍류선문답을 남겼다. 지증대사는 봉암사로 돌아간 후, 다음 해에 우리나라로 세수 59세, 만58세로 열반하셨다.

그러면 헌강대왕은 저 멀리 문경 희양산봉암사에 있는 노 선승을 초치해서 왜 만났을까? 문경 희양산봉암사는 지금도 첩첩산중이다.

이는 개혁군주 약관의 젊은 헌강대왕의 개혁실천과 관련이 있다. 헌강대왕은 이를 위해 進言(진언)을 내리고, 널리 인재를 구해서 朗慧和尚(800~88)도 접견하였는데, 낭혜화상은 <能官人>의 인재등용 정책을 진언하여, 헌강대왕을 기쁘게 한 것이 역시 최치원 선생의 『낭혜화상비』(890?)에 잘 기록되어있다.¹⁰⁾

<能官人>정책은 『書經』「皐陶(요)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잘 알 수 있다.

(II-3) 皐陶(요) 曰, “都! 在 知人, 在 安民.”

禹 曰, “吁! 咸若時, 惟帝其難之,

知人 則 哲, 能 官人.

安民 則 惠, 黎民 懷之,

能 哲 而 惠,

何 憂 乎 驩兜? 何 遷 乎 有苗? 何 畏 乎 巧言 令色 孔壬?”¹¹⁾

고요는 말씀 드렸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고[知人],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합니다 [安民].”

우 임금은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오직 순 임금도 어렵다.

사람을 아는 것은 도덕성이 있으면서 밝음이니[哲], 능력으로 관인을 삼고[能官人],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움이니, 기층민을 품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으면서 밝고, 은혜로우면,

어찌 환두를 걱정하겠는가? 어찌 유묘를 내쫓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찌 교언령색만

하는 공임을 두려워 하겠는가?”

10) 최치원, 『낭혜화상비』, 890? ; 『4산비명』.

11) 『書經』「皐陶(요)謨」. 陶는 사람이름일 때는 요로 발음한다. 다만 이 해석은 차후 더 상론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皙 밝을 철; 口-총10획; [zhé] 밝다, 총명하다, 도리나 사리에 밝은 사람, 알다, 분명히 하다.

통치자가 도덕성 있는 밝음 없이 크게 유능/무능하면 매우 큰 문제가 생긴다. 공자가 가장 경계한 바이다.

유사 이래 임금의 덕목을 단 4글자로 요약하면 <知人安民>이다! 나는 이를 인사관리의 만고불변의 2대철칙인 도덕성 있는 밝음과 능력주의를 가미하여 번역하였다. 나는 여기서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번역을 하였는데, 즉 ^{지인} ^{안민} ^철 ^인은 명철이면서, 도덕성 있는 밝음으로, ^능은 능력주의로 해석하였다. 인사관리의 2대요소이다. 여기서 밝은이[哲人]는 도덕성이 있으면서 지혜로운 밝음이 있는 이이고, 능관인은 능력이 있는 이를 밝게 잘 알아서 관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러한 이이다. 순 임금도 성왕이지만, 이는 언제나 모든 ^{치자} ^자의 숙원이요, 난제다!

이 현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은 더 상론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지만, 차후의 기회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나는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Perfect Enlightenment)의 종교라는 것을 변증하였는데, 현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을 기록한 최치원 선생의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893)가 현재까지 내려온 결정적인 단 하나의 천금같은 기록이고, 이로써 나는 잘 변증하였으며, 이 모두는 전적으로 나의 학설이다.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Perfect Enlightenment)의 종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보자.

그러면 이제 풍류도의 기원을 보자.

Ⅲ. 신시의 풍백조직과 신라의 풍백우사신앙, 단전호흡의 기원

최치원 선생은 『난랑비서』에서 <국유현묘지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원으로 그 <국유>가 언제부터의 <국>이란 말인가?

나는 이 국이 ^신 ^시 ^국이라고 본다. 물론 환국부터 시작했을 것이나, 현재까지의 명시적인 기록으로는 신시의 ^{환웅} ^{천황}의 ^{풍백} ^조 ^직에 기원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신라는 신시의 풍백을 계승하였다. 이는 신라의 ^{풍백} ^우 ^사신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Ⅲ-1) 立春 後 丑日 犬首谷門 祭 風伯,
^{입춘} ^후 ^{축일} ^{견수곡문} ^제 ^{풍백},
立夏 後 申日 卓渚 祭 雨師.¹²⁾
^{입하} ^후 ^{신일} ^{탁저} ^제 ^{우사}

이렇게 신라가 풍백과 우사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신시의 풍백과 우사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고, 고려(전)도 마찬가지다. 풍백은 천신교에서 바람을 관장하는 ^신 ^명이기도 한데, 이는

12) 김부식 등, 『3국사』 「잡지 제1」 <제사>.
이강식, 『환국, 신시, 고조선조직사』(대전: 상생출판, 2014), pp.80~6.

箕星^{기성}이며 또 箕子^{기자}라고 한다. 이 箕子^{기자}는 후조선의 기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기자는 동북방의 箕^기 땅에 봉을 받아서 箕子^{기자}라고 하는데, 이는 동북방에 있는 箕星^{기성}의 정기를 이어 받았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것은 나의 기존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처럼 신라는 신시를 계승하여, 풍백에게 星祭^{성제}를 지냈으며 따라서 바람승배신앙인 풍류는 신시에 기원을 두고, 신라가 계승하였다. 물론 환국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환국기원은 기록상으로는 가능성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해야하고, 현재까지의 적시된 기록으로는 환웅천황의 풍백조직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시기원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물론 조선(고)으로 계승하여 신라로 계승되었다.

바람, 비렴, 풍신승배신앙은 바람이 단순히 자연의 대기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 우주창조의 원천으로서 바람^풍이고 동시에 바람신^{풍신}이다.

이 바람은 天風^{천풍}으로서 바람이 한번 불면 우주만물 3천대천세계가 일어나고, 바람이 한번 사라지면 우주만물 3천대천세계가 사라진다는 바람승배신앙으로서 바람신이 우주최고창조신이라는 종교철학사상이다.

이 바람이 다른 원소를 더 포함하여 고대의 地水火風^{지수 화풍 대}의 4大, 4원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대에서는 적취설이고, 현대로는 원소설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이 우주최고창조신인 바람승배신앙의 근원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숨과 호흡에 있으며,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에너지, 생기, 기, 령, 성령, 혼을 만물생명의 원천으로 보고, 이 숨과 호흡을 흡입하여 축기충기수련하고 승배하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자연신에서 출발하여 氣論^{기론}이며, 汎神論^{범신론}이며, 理神論^{리신론}이며 우주창조최고인격신이 되었다.

이는 태양 에너지, 기와도 관련이 있다. 미트레이즘으로서 일광승배사상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시조 박혁거세 거세간이 <시조일광지신>이다. 따라서 이는 현묘한 玄風^{현풍}사상이다.

따라서 이 숨, 호흡은 우주만물 3천대천세계를 구성하는 1원론으로서 천, 허공, 기, 브라흐만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전변설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이 숨이 呼吸^{호흡}, 氣^기, 生氣^{생기}, 靈^령, 生靈^{생명}, 聖靈^{성령}, 魂^혼을 뜻하는 것으로서 생명이다. 이 생명의 숨이 바람승배에서 최고로 주요하고, 핵심 기본을 구성한다.

이 바람은 고요히 머무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대류, 회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흐름^{풍류}風流이다. 동시에 공기를 통과하는 빛인 밝은 바람달^{풍월}風月이다.

양자역학에 비추어 보면 풍류는 파동Wave를 강조하고 풍월은 입자Particle을 강조한 것이다. 즉 파동-입자 이중설Wave-Particle duality이다.

풍류도는 바람의 흐름으로 동적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천부경』과 (V-9)에서는 <용변부동본>으로 동과 부동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불교에서는 공을 적멸적정으로 정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풍류도는 실재와 비실재[반영]의 동적/정적 개념이다.

풍류도는 회전, 순환, 環, 丸, 대원1을 강조하여 동적이지만, <부동본>이다. 물론 불교도 윤회, 연기, 원융, 무상을 강조하지만, 적멸적정을 강조하여 정적인 것이 다르다,

풍류의 수련은 바람수련으로서 바로 환웅천황으로부터 5대째인 태우의 환웅(-3512~-3419)으로 부터 숨, 호흡, 단전호흡, 명상 등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Ⅲ-2) 自 桓雄天皇 五傳 而 有 太虞儀桓雄,

教人 必使 默念清心, 調息保精, 是乃 長生久視之 術也.¹³⁾

이처럼 신시의 5대 태우의 천황(-3512~-3419)에 의해서 <묵념청심, 조식보정>의 단전호흡으로 <장생구시>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신시의 태우의 천황이 단전호흡, 호흡수련, 기식법, 조식법, 명상, 프라나야마의 창시자이고, 태우의 천황이 풍류의 기원이고, 창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태우의 천황은 12아들이 있는데, 막내[季]가 태호 북희씨이고,¹⁴⁾ 천하에서 패도를 얻었는데, 『역경』의 창시자이며, 신시에서 雨師의 직관에 있었는데, 그 후손이 風山에 살며 성이 風氏였다.¹⁵⁾ 따라서 바람風 수련을 계승해서 이어왔을 것이다,

<묵념청심>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맑게 하는 법>이고, <조식보정>은 <숨을 고르고 정기를 보존하는 법>인데, 이는 『31신고』에도 나오는 전통수련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단전호흡으로 추정은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인지 알기는 어렵다. 물론 계속 노력할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없이, 준비없이 쉽게 단전호흡이나 명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단전호흡으로 생기, 생명을 기르며, 소주천, 대주천의 운기, 기순환을 통하여 해원거병하고 우주진리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시에 기원을 둔 오래된 수행법이고 도법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인도 요가의 프라마야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풍류도의 본질이며, 신시로부터 기원하여 신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나의 학설이다.

13) 이맥, 『태백일사』 「신시본기」(1520) ; 『환단고기』(1911), 63면 뒤.

調 고를 조; 言-총15획; [diào, tiáo]고르다, 조절하다, 어울리다, 균형이 잡히다, 화합하다, 익히다, 길들이다, 꼭 맞다, 적합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 『명사』 ① 품격을 높고 깨끗하게 가지려는 행동. 〰 〰 ~를 지키다. ② ‘꼭조’의 준말. ③ (역사·고제) 공부(貢賦)의 하나(각지의 특산물을 바치던 일). ㉠ 『의존명사』 ① ‘그런 말투나 행동’의 뜻. 〰 〰 시비하는 ~로 대들다 〰 〰 명령하는 ~로 말하다. ② 시가나 노래의 음수(音數)에 따라 리듬을 나타내는 단위. 〰 〰 삼사 〰 〰 〰 〰 칠오 〰 〰.

息 숨 쉴 식; 心-총10획; [xi]숨 쉬다, 숨, 호흡, 숨 한 번 쉬는 동안, 쉬다

14)季 끝 계; 子-총8획; [ji]끝, 막내, 말년

15) 이맥, 『태백일사』 「신시본기」(1520) ; 『환단고기』(1911), 63면 뒤~64면 앞.

따라서 깨달은 靈, 覺靈, 生靈, 聖靈, 氣, 氣息, 調息, 生氣, 至氣, 魂이 풍류의 본체이다. 그러면 이제 靈에 대해서 알아보자.

IV. 신시의 신의 령과 응녀황후

신시의 환웅천황 때에 神이 곰과 호랑이에게 <靈·艾·蒜의 3神物>을 주어서, 곰을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응녀황후가 되게 하셨다. 이 3가지 神物 중에서 생명의 본체인 靈이 물론 가장 주요하다.

(IV-1) 時 神 遺 靈·艾一炷·蒜二十枚 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¹⁶⁾

그때 신이 령과 뜰쑥 1심지와 마늘 20줄기를 보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모습을 얻으리다.” 라고 하셨다.

곰과 범은 받아서 먹고, 3·7(21)일을 삼가서[忌], 곰은 여자몸을 얻었으나, 범은 능히 삼가지 못하여[不能 忌], 사람몸을 얻지 못했다.

신이 <靈艾蒜의 3神物>을 주었는데, 이중 가장 주요한 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를 나는 <신령, 성령, 인령>과 <유물론, 무신론, 무령>의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나의 기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¹⁷⁾ 그런데 이 내용은 『환단고기』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IV-2) 時有一熊一虎同隣而居, 嘗祈于神壇樹, 願化為神戒之氓.

雄聞之曰“可教也.”乃以呪術換骨移神, 先以神遺 靜解靈 其艾一炷, 蒜二十枚, 戒之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得人形.”

熊虎二族皆得而食之. 忌三七日熊能耐飢寒, 遵戒而得儀容, 虎則放慢不能忌而不得善業.¹⁸⁾

16) 일연, 『3국유사』 「고조선(왕검조선)」, 1281~3. 나는 이 「고조선(왕검조선)」의 기록전체를 『한국신시조선경(환신조경)』으로 이름 붙였다.

枚는 個가 아니고 줄기를 말한다. 따라서 個로 해석한 것은 이제 정정해야한다.

枚 줄기 매; 木-총8획; [méi] 줄기, 나무줄기, 서까래, 채찍, 말채찍

【의존명사】종이나 널빤지 따위를 세는 단위. 장.——• 원고지 10~.매

17) 이강식, “한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천부경의 새로운 이해,” 『세계환단학회지』, 9권1호(대전: 세계환단학회, 2022. 6), pp.141~6.

유물론, 무신론은 무심론이며, 無靈(만든말)이다.

18) 원동중, 『3성기전 하편』; 『환단고기』(1911), 7면 앞뒤.

원동중 선생의 『3성기전 하편』에서는 <환웅천황이 주술로써 골상을 바꾸고 정신을 윽기고,> <이에 앞서 신이 고요하고 맑고 깨달은 령¹⁹⁾인, 靜解靈을 만들기 위해 그 뜰 1심지와 마늘 20 줄기를 보내주어서> 꿈을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웅녀황후가 되게하셨다 고 기록하고 있다. 즉 쑥과 마늘로 인간에게 靜解靈을 만들어 주어서 인간으로 더 격상한 깨달음의 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정해령과 쑥마늘 3가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쑥마늘은 <영혼을 맑고 고요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신물>이라고 해석하였다. 내가 이를 처음 해석하여 이로써 만고의 의문을 풀었다. 지금까지는 정해령과 쑥마늘을 전혀 해석하지 못해서 의문만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굴집에서 햇빛을 1백일동안 못보게 수련하게 한 것>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을 일절 끊고,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여 깨닫게 하는 단전호흡과 좌선, 참선, 명상수련 등의 천신교, 천신교와 천전교 수행>을 하게 한 것이다. 지금도 수도는 이렇게 외부와의 자극을 끊고, 토굴에서, 혹은 무문관에서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이처럼 더 천신교, 천신교, 천전교의 본질에 맞게 더 자세하고, 주요한 인간창조의 기록을 하였다. 계속해서 다음의 기록을 보자.

(IV-3) 『密記』云 桓國之末有難治之強族, 患之.

桓雄乃以三神設教, 以儉戒爲業而聚衆作誓,
有勸懲善惡之法. 自是密有剪除之志.
時族號不一, 俗尙漸歧, 原住者爲虎, 新移者爲熊.
虎性嗜貪殘忍, 專事掠奪, 熊性愚悞自恃, 不肯和調,
雖居同穴, 久益踈遠, 未嘗假貸, 不通婚嫁, 事每多不服,
咸未有一其途也. 至是熊女君聞桓雄有神德,
乃率衆往見曰, “願賜一穴塵, 一爲神戒之盟.”
雄乃許之. 使之奠接, 生子有產, 虎終不能悞, 放之四海. 桓族之興始此焉.²⁰⁾

19) 靜 고요할 정; 靑-총16획; [jing] 고요하다, 맑다, 단청(丹青)이 정밀하다
解 풀 해; 角-총13획; [jiě, jiè, xiè] 풀다, 가르다, 해부하다, 벗기다, 흩뜨리다, 열다, 용서하다, 놓아주다, 타이르다, 풀리다, 이해되다, 납득이 가다, 해이해지다, 떨어지다, 해지다, 화목해지다, 깨닫다, 또 깨달음
【명사】① (수학)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 또는 미분 방정식 등을 만족시키는 함수(函數). ② 주어진 문제의 답. ③ 한문 문체의 하나. 의혹이나 비난에 답함을 목적으로 한 것.
따라서 이 解는 불교의 解脫의 깨달음으로 봐도 된다.
靈 신령 령(영); 雨-총24획; [ling] 신령, 팔방하늘구름의 신, 신령하다, 영혼, 죽은 사람의 혼백, 죽은 이를 높이어 이르는 말, 목숨, 명수(命數)
20) 원동중 『3성기전 하편』(1520); 『환단고기』(1911), 7면 뒤~8면 앞.

이는 뒤의 (IV-4)와 같은 기록인데, 웅녀군이 신이자로서 <신계지맹>이 되고자 하여 환웅천황이 허락하였고, <령애산>과 이에 관련한 기록은 줄이고 있다. 『3성밀기』(IV-3~4)를 두 곳에서 같이 인용하여서 같아지게 되었다.

(IV-4) 『三聖密記』曰 桓國之末, 有 難治之 強族 患之.
桓雄 爲 邦 乃 以 三神說教 而 聚衆作誓, 密 有 剪除之 志.
時 族號不一 俗尙漸歧, 原住民 爲 虎, 新移者 爲 熊.
然 虎性 嗜貪殘忍, 專事掠奪, 熊性 愚悞自恃, 不肯和調,
雖 居 同穴, 久益踈遠, 未嘗 假貸, 不通婚嫁, 事每 多 不服,
咸 未 有 一其途也. 至是 熊女君 聞 桓雄 有 神德,
乃 率衆 往見 曰 “願 賜 一穴 廩, 一 爲 神戒之 氓.”
雄 乃 許之, 使之 奠接, 生子 有產, 虎 終 不能 悛, 放之 四海, 桓族之 興 始 此.²¹⁾

이처럼 여기서도 웅녀군이 <신계지맹>이 되고자 하여 환웅천황이 허락하였고, <령애산>과 이에 관련한 기록은 줄이고 있다. 같은 기록을 같이 인용(IV-3~4)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음 기록을 보자.

(IV-5) 後 桓雄氏 繼興 奉 天神之 詔, 降 于 白山 · 黑水 之 間,
鑿 子井女井 於 天坪, 劃 井地 於 青邱,
持 天符 · 印, 主 五事, 在世理化, 弘益人間, 立都 神市, 國稱 倍達.
擇 三七日 祭天神, 忌慎外物, 閉門自修, 呪願有功, 服藥成仙, 劃卦知來, 執象運神.
命 羣靈諸哲 爲 輔,
納 熊氏女 爲 后, 定 婚嫁之 禮.
以 獸皮 爲 幣, 耕種有畜, 置 市 交易, 九域 貢賦,
鳥獸 率 舞. 後人 奉之 爲 地上 最高之 神, 世祀 不絕.²²⁾

여기서도 주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擇 三七日 祭天神, 忌慎外物, 閉門自修, 呪願有功, 服藥成仙,

21) 이맥, 『태백일사』 「신시본기」(1520) ; 『환단고기』(1911), 60면 뒤~61면 앞.
이와 같이 『三聖密記』를 두 저자가 두 곳에서 각기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 사서가 실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新移者인 熊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新來者가 <갖은 고난을 겪고> 새 이주지에서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으로서 적자생존법칙에 따라 현실에서는 자주 있는 사실적인 일이고, 다르게는 영웅담이라고 한다.

22) 안함로, 『3성기전 상편』 ; 『환단고기』(1911), 4면앞뒤.
여기서 熊女氏의 후손이 有熊氏 黃帝軒轅으로 본다. 황제현원이 신사에서 雲師의 직관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나의 앞선 연구를 보기 바란다.

劃卦知來, 執象運神.)과 <納熊氏女爲后, 定婚嫁之禮.>이다. 이는 곰과 범의 인간수련을 역시 천선교, 천신교와 천전교의 측면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제 『조대기』를 인용한 다음 기록을 보자.

(IV-6) 『朝代記』曰…… 時有一熊·一虎同隣而居, 常祈于神壇樹而又請於桓雄, 願化爲天戒之氓, 雄乃以神呪換骨移神又以神遺得驗靈活, 乃其艾一炷·薪二十枚也. 仍戒之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自由成真, 平等濟物, 便得化人, 踐形之大人者也.

熊與虎兩家皆得而食之, 忌三七日, 務自修鍊而熊耐飢寒痛苦, 遵天戒, 守雄約而得健者之女容, 虎則誣慢不能忌, 違天戒而終不得與之贊天業, 是二姓之不相若也.

熊氏諸女自執愚強而無與之爲歸. 故每於壇樹下, 群聚以呪願, 有孕有帳, 雄假化爲桓, 得管境而使與之婚, 孕生子女, 自是群女群男漸得就倫.²³⁾

여기서는 좀더 자세하고 천선교, 천신교와 천전교적으로 옹호가 <天戒之氓>이 되기를 원하여, <환웅천황이 이에 神呪로써 換骨移神>하시고, 그리고 신이 <깨달음의 영험을 얻게 하여 得驗, 그 령을 살아있고 생기있게, 생명있게 활성화하는 靈活의 그 애1주와 산20매>를 주셔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神께서 <靜解靈>과 <得驗靈活>을 만들기 위해 <쑥과 마늘>을 주셨고, <곰과 범이 그것을 먹으면서 1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수련법>으로 인간으로 창조Creation된 것이다. 따라서 <靜解靈>과 <得驗靈活>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어려운 <쑥마늘을 먹으며 령을 맑고 밝게 하는 고난의 수련>을 통해 구극적으로 <인간이 된 깨달은 령>이라고 본다. 이는 나의 학설로서 이 연구에서 내가 만고의 의문을 풀었다. 이제 동물령에서 인간령, 인령이 된 것이다. 다만 호랑이는 안 되었다.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와 인내가 작용하는 것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No Pain, No Gain.

이처럼 지금까지의 <목념청심, 조식보정.>(III-2)수련방법들은 단전호흡, 기식법, 조식법, 좌선, 참선, 명상, 프라나야마와 실제 같은 방법이다.

23) 이맥 『태백일사』 「신시본기」(1520) ; 『환단고기』(1911), 61면 뒤~62면 앞.

得 얻을 득; 彳-총11획; [dé,dè,déi] 얻다, 이익, 이득, 덕(德)

【명사】소득이나 이득. ——• ~을 보다 ——• ~보다 실이 많다. ↔실(失).

氓 백성 맹; 氏-총8획; [máng,méng] 백성, 다른 나라나 지방에서 이주해 온 백성

驗 증험할 험; 馬-총23획; [yàn] 증험하다, 증험, 표징(標徵), 증거, 효능, 응보(應報), 점괘

活 살 활; 水-총9획; [huó] 살다, 소생하다, 생존하다, 생기가 있다, 태어나다, 생계, 생활할

그런데 불교의 명상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不見日光百日, 忌三七日, 忌慎外物, 閉門自修> 등은 거의 같고, <呪願有功>은 선불교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祭天神, 服藥成仙, 劃卦知來, 執象運神>은 거의 쓰지 않는다. 보통 요즘은 불교의 수행법을 거의 좌선, 참선, 간화선으로 단일로 보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좌선, 참선, 간화선은 선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수행법이고, 원래 부처의 원 수행법은 6바라밀이다. 참선은 이 6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부분이 현대 불교 선종의 아쉬운 측면이다.

그러면 이택 선생의 『태백일사』 「환국본기」(1520)에서 설명하는 쑥과 마늘의 효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주요한 길고이다.

(IV-7) 『密記』 「注」 曰, 「蓋馬國 一云, 『熊心國,』 在北蓋馬大嶺之北,

距 句茶國 二百里, 句茶國 舊稱, 『瀆盧國,』

在北蓋馬大嶺之西, 月瀆國 在其北五百里,

稷白多國 或稱, 『賣句餘國』 舊在 五難 河,

後爲 瀆盧國 所破, 遂 移 于 金山 居之.

句茶國 本 艾蒜 所 產也, 艾 煎服 以 治冷, 蒜 燒食 以 治魔也.」²⁴⁾

여기서 보면 구다국이 산지인데, 쑥은 다려서 마시면 냉증을 치료하고, 마늘은 구워서 먹으면 마귀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쑥은 거병의 육체건강에 좋고, 마늘은 해원의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으로서, 줄이면 해원거병인데, 쑥마늘이 <靜解靈>과 <得驗靈活>의 해원거병의 효능이 있다고 본다. 다르게는 도교의 性命雙修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는 5신채라고 해서,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²⁵⁾>는 완전 금물이다. 자극이 세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볼 때는 특히 성적 자극이 강한 식품이다.²⁶⁾ 그러나 선도, 풍류도, 천신교와 천전교에서는 우선 쑥, 마늘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아무래도 동물은 인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줘야 하는 것 같다. 물론 인간도 기가 약하면 자극을 더 크게 줘야 할 것이다. 우리 선도, 풍류도, 천신교와 천전교에

24) 이택, 『태백일사』 「환국본기」(1520) ; 『환단고기』(1911), 57면 앞.

25) 흥거興渠는 인도에서만 주로 식용하는 아주 맵고 독한 냄새나는 채소로 범어로는 hingu이고, 영어로는 아사파티다 Asafoetida이고, 원래 한자로는 아위阿魏라고 하는데, 興渠는 거담, 진경, 구충, 강장제로 사용되고, 강렬한 냄새로서 나쁜 냄새를 없애준다고 식용하나, 그 의식적, 무의식적 이유는 역시 강장제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26) 이것은 채식이고, 불가는 워낙 말할 것도 없고, 무교에서도 특히 육식중에서 개고기를 완전 금하는데, 여러 교리상 이유를 대지만, 혹자는 개고기가 성적 자극이 즉시 매우 강하다고 하는 직접 경험을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 같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요즘은 비아그라가 나와서 개고기도 잘 안먹는 것 같다. 나는 불가에서 금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영양 보충할 음식도 많은데, 굳이 금하는 것을 힘들여 찾아다니며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서는 굳이 금하는 특정 음식은 없는 것 같으나, 포괄적으로 말하면, 화랑도의 세속5계 중에 살생 유탕이 있다.

이처럼 6기록 중 『3성밀기』 등의 3기록을 제외하고는 3기록이 모두 靈을 주어서 응을 응녀향 후의 인간으로 창조하였으므로 신이 준 靈이 인간이 되는 핵심관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반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연사상이나, 무령/무신/무심론이다.

나는 新仙人합일론으로서 자연사상은 수용하고, 無靈/無神/無心論은 학문적으로 연구는 하 나 채택은 당연히 전혀 아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밝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 靈은 神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靈을 매개로 神人1體, 新仙人合一을 하는 것이며, 신 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神兼人, 神兼仙, 神兼聖이다. 新仙人同時! 인간은 한없는 神兼聖의 神聖한 존재이면서 同時에 인간으로서 중국적으로 끝없는 흙먼지塵埃 가 된다! 有無同時! 이면서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業緣福과 自由意志에 따라 神도 되고, 인간도 되고, 흙먼지도 되는 二重性, 三重性을 갖고 있다. 물론 多重性이고, n重性이다. 이것이 또한 부 처의 중중무진 화염 연기법이고 중도법이고, 空이다. 또 양자역학에서도 결국은 이중성이다. 神人二重! 그리고 神仙人三重! 이다.

그래서 二而一, 一而二이면서, 三而一, 一而三이면서, 一中多, 多中一이다!
 이 靈은 神의 靈으로서 神靈이며, 聖靈이며, 人靈이다. 혹 無靈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 령은 동시에 숨이며, 호흡이며, 공기이며, 氣이며 生氣이고 至氣이고, 靈이고, 生靈이고, 聖靈이고, 生命이다. 물론 이 전체 중 특정 종교철학사상에서 선택해서 인정하게 되는데, 나는 학문적 측면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이다. 이제 氣를 살펴보자.

V. 『화랑세기』의 『선사』의 우주청원지기와

『환단고기』의 1기3신사상

氣는 화랑과 풍류도의 『仙史』인 『화랑세기』에 있는 기록을 우선적으로 보기로 하자. 『화랑세기』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역사서이기 때문이고, 風月主花郎徒史이면서 동시에 『선사』이 기 때문이다..

(V-1) 花郎者 仙徒也. 我國奉神宮, 行大祭于天, 如燕之桐山, 魯之泰山也.
 昔燕夫人好仙徒, 多畜美人, 名曰, 國花, 其風東漸, 我國以女子爲源花.
 只召太后廢之, 置花郎, 使國人奉之.

先是法興大王愛魏花郎, 名曰花郎. (花郎)之名始此. 徒只以奉神爲主.
선 시 법 흥 대왕 애 위 화 랑, 명 왈 화 랑. 화 랑 지 명 시 차 도 지 이 봉 신 위 주.
 國公列行之後, 仙徒以道義相勉. 於是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花郎
국공 열 행 지 후 선 도 이 도 의 상 면 어 시 현와 충신 종차 이 수 양장 용졸 유 시 이 생 화 랑
 之史 不可不知也.²⁷⁾
지 사 불가 부지 아

화랑은 선도이며 신궁에서 천제를 행하였는데, 연의 동산과 노의 태산(고대 조선지역)에서 지내던 것과 같으며,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미인을 많이 양성하여 이름을 국화라고 하였다. 그 풍속이 동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를 원화로 삼았는데, 지소태후가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뒤의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원화화랑의 기원을 연부인에게 두는 것이 특이하지만, 이는 나는 연부인이 북부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할 바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환단고기』, 『3국사』, 『3국유사』, 『신단실기』(1914) 등등에서는 우리 신라 신교의 기원을 신라 선도신모에게 두고 있는데, 나는 연 燕부인이 선 도 신모 仙桃神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우선 무엇보다 같은 천신교의 수장 首長인 여성이고, 부인이며, 연 燕과 연 鷲이 소도의 솟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⁸⁾

그러면 선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다음 기록을 보자,

(V-2) (夏宗)公乃詣二花公 請善裁之教.
하 종 공 내 예 이 화 공 청 선 재 지 교
 二花公 曰, “仙道 本出 于 宇宙清元之氣, 非是非相爭之謂也. (하략)”²⁹⁾
이 화 공 왈 선 도 본 출 우 우주 청 원 지 기 비 시 비 상 쟁 지 위 야

이화공이 말하기를, “선도는 본래 우주청원의 기에서 나왔다.”(2세 이화공)

27) 김대문, 『화랑세기』 「서문」, 704년 전후. 『화랑세기』에 나오는 마복7성, 7성우는 모두 북두7성사상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모두 풍류주로 나오고, 풍류는 二花風流, 風流蝶으로 2회만 나온다. 二花風流는 風流가 화랑 대신에 쓰인말이고, <風流蝶>은 <풍류의 나비>라는 뜻으로서 풍류수련으로 어린 나이에 뛰어난 경지에 올랐다는 뜻으로 본다. <바람흐름과 나비>, 아주 시적인 풍류도의 단계를 뜻하는 이름이다.

이강식, “『화랑세기』에 기록된 화랑도조직의 3신5제조직구조,” 『신라학연구』, 제4집(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0. 12), 참조.

『화랑세기』의 깊은 구조를 보면 3신5제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나의 학설이다.

『환단고기』에도 풍류는 <풍류강>으로 딱 1번 나온다. 「5세 단군 구물(-2084)」.

28) 燕 제비 연; 火-총16획; [yàn,yān] 제비, 잔치, 주연(酒宴), 편안하다

【명사】 (역사·고제) ①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칠웅(七雄)의 하나<진시황에게 망함>. ② 중국 오호 십육국 시대에 선비족의 모용씨(慕容氏)가 건설한 전연·후연·서연·남연·북연의 다섯 나라<4세기 초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있었음>.

鷲 솔개 연; 鳥-총14획; [yuān] 솔개, 연, 공중에 날리는 장난감

【명사】 가는 뗏가지를 뼈대로 하여 종이를 바르고, 실에 달아 공중에 날리는 장난감. 지연(紙鷲).

——• ~을 날리다.

29) 김대문, 『화랑세기』 「하종공 11세」, 704년 전후.

詣 이를 예; 言-총13획; [yì] 이르다, 절후가 이르다, 도착하다, 학예가 깊은 경지에 이르다, 가다, 나아가다, 관청에 출두하다, 참배하다, 불사(佛寺)에 가다

(V-3) (寶宗公) 雖然 深察 宇宙之眞氣 魚鳥花木生生之理, 莫不精通.³⁰⁾
보종공 수연 심찰 우주 지진기 어조 화목 생생 지리 막불정통

보종공이 그러나 우주의 진기를 깊이 관찰하여 고기, 새, 꽃, 나무가 생기고 생기는 이치에 정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처럼 선도, 풍류도, 화랑은 <宇宙清元의 氣>와 <宇宙의 眞氣, 生生之理>를 수련하는 것이며, 이를 수련했을 때, <고기, 새, 꽃, 나무가 생기고 생기는 이치에 정통하게 되어 우주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치는 것이며, 이로 보면 선도, 국선수련, 화랑도수련, 풍류수련, 풍월주수련, 기수련, 기식, 조식의 구극적 본질은 완벽한 깨달음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환단고기』의 <1氣3神사상>을 보기로 하자. 『환단고기』에는 많은 氣사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1氣3神사상>을 중점으로 보기로 한다.

(V-4) 吾桓 建國 最古.

有一神 在 斯白力之 天 爲 獨化之神,
光明 照 宇宙, 權化 生 萬物,
長生久視, 恒得快樂, 乘遊至氣, 妙契自然,
無形而見, 無爲而作, 無言而行.³¹⁾

여기서는 1신이 지극한 기[至氣]³²⁾를 타고 즐겁게 나아간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1신의 신성을 매우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다.

(V-5) 夫 性者 神之根也. 神 本 於 性 而 性 未 是神也.

氣之 炯炯 不昧者 乃 眞性也.
是以 神 不離 氣, 氣 不離 神.
吾身之 神 與 氣 合而後,
吾身之 性 與 命 可見矣.³³⁾

여기서는 <神 不離 氣, 氣 不離 神.>라고 하여 神氣一如임을 밝히고 있다.

30) 김대문, 『화랑세기』 「보종공 16세」, 704년 전후.

31) 안함로, 『3성기전 상편』; 『환단고기』(1911), 4면 앞.

遊 놀 유; 遊-총13획; [yóu] 놀다, 즐겁게 지내다, 여행하다, 취학하다, 자적하다, 벼슬에 나아가다, 사귀다, 틈, 무사(無事), 놀이

32) 至氣는 천도교의 핵심진리개념이기도 하다.

33) 이암, 『단군세기』 「서문」(1363); 『환단고기』(1911), 4면 앞.

그런데 다음 기록은 더 주요한 기록을 하고 있다.

(V-6) 所驗 有時, 所境 有空, 人 在 其間.
庶物之 有, 虛粗同體者 惟一氣 而已. 惟 三神 而已.
有不可窮之 數, 有不可避之 理, 有不可抗之 力,³⁴⁾

여기서 1氣3神으로 道가 分岐함을 볼 수 있다. 31분기사상이고, 도의 분화다.

(V-7) 自 一氣 而 析三, 氣 卽 極也. 極 卽 無也.
夫 天 之 源 乃 貫 三極, 爲 虛 而 空, 并 內 外 而 然 也.
天 之 宮 卽 爲 光 明 之 會, 萬 化 所 出,
天 之 一 神 能 體 其 虛 而 乃 其 主 宰 也.
故 曰 一氣 卽 天 也, 卽 空 也.
然 自 有 中 一 之 神 而 能 爲 三 也,
三 神 乃 天 一, 地 一, 太 一 之 神 也.
一 氣 之 自 能 動 作 而 爲 造 教 治 三 化 之 神.
神 卽 氣 也, 氣 卽 虛 也, 虛 卽 一 也.³⁵⁾

여기서 도의 본체에 관한 너무나 많은 주요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다.

1氣는 3極으로 분기하는데, 1氣는 極이요, 無요, 天이요, 空이고, 體요, 主宰요, 神이다. 3神은 造教治 3化神이다. 인용된 다른 기록도 다 주요하나 여기서는 논급은 줄이겠다.

(V-8) 所以 執一含三者 乃 一 其氣 而 三 其神也.
所以 會三歸一者 是亦 神 爲 三 而 氣 爲 一 也.
夫 爲 生 也 者 之 體 是 一 氣 也, 一 氣 者 內 有 三 神 也,
智 之 源 亦 在 三 神 也, 三 神 者 外 包 一 氣 也,
其 外 在 也 一, 其 內 容 也 一, 其 統 制 也 一,
亦 皆 含 會 而 不 歧 焉, 其 爲 字 之 源 含 會 執 歸 之 義 存 焉 也.³⁶⁾

34) 이맥, 『태백일사』 「3신5제본기」(1520); 『환단고기』(1911), 50면 뒤.
35) 이맥,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1520); 『환단고기』(1911), 92면 뒤~93면 앞.
36) 이맥,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1520); 『환단고기』(1911), 93면 앞뒤.

여기서 1氣3神, 3神1氣의 분기가 너무 설명이 잘 나타나 있다. 1기가 3신을 내유하고, 3신의 외포가 1기이다. 그래서 집1합3이요, 회3귀1의 함회집귀이다. 이제 기와 신의 관계, 그리고 31사상을 잘 알 것으로 본다.

(V-9) 乙支文德曰“道以事天神, 德以庇民邦,

吾知其有辭天下也.

受三神一體氣, 分得性命精, 自在光明昂然不動,

有時以感, 發而道乃通.

是乃所以体行三物德慧力, 化成三家心氣身, 悅滿三途感息觸,

要在日求念標, 在世理化, 靜修境途, 弘益人間也.”³⁷⁾

여기서 이제 <3神1體氣>가 나와서 <3神1氣>사상을 잘 보여주어서, <1=神=氣>임을 더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自在光明昂然不動>사상과 『천부경』의 <부동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기, 공기, 바람이 우주최고창조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람, 풍류가 우주최고창조신이다. 이 『환단고기』의 바람, 풍류, 氣사상, 동/부동사상은 앞으로 다른 사상과 함께 더 연구하여야 한다. 이는 또 뒤에서 계속 보기로 하자.

이처럼 『환단고기』에는 우리와 인류의 종교철학사상의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현묘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자꾸 『환단고기』의 最古역사, 最大영토, 最多인구, 不死不老 등등 현실세속사에만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진정한 幸福平和安全을 위해서는 『환단고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最甚最深靈性を 깨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풍류도의 핵심경전인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경』(『81자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를 살펴보기로 하자.

VI.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

1.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를 이렇게 『난랑비서경』, 『난랑비서81자경』과 『풍류도경』, 『풍류도81자경』으로 내가 최초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먼저 이를 보자.

37) 이맥, 『태백일사』「고구려국본기」(1520) ; 『환단고기』(1911), 102면 뒤.

(VI-1) 崔致遠

『鸞郎碑序』曰「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 包含 三教, 接化 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³⁸⁾

이처럼 문창후 최치원 선생은 『난랑비서경』(『풍류도경』)에서 유도불 3교가 풍류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를 정식으로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 유도불 4교회통사상>으로 이름 붙였다. 신라 국유현묘지도인 풍류도가 유도불 3교를 포함하여 4교를 진실로 회통한 것이다. 물론 이 풍류도는 신사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유도불 3교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환국, 신시, 조선(고)에서 신라로 전수된 풍류도가 건너가서 유도불 3교를 형성하였다는 것이 나의 학설이다. 따라서 신라의 풍류도가 유도불 3교의 기원이다. 물론 다른 종교철학사상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보겠다.

풍류도가 선교로서 같은 선교인 유도불 3교의 기원인데, 이는 『난랑비서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난랑비서』 曰, >에서 마지막 <太子之化也.>까지가 꼭 <81자>로서 이는 『천부경』 81자와 꼭 같다. 이런 전차로 나는 『천부경』의 譯著者가 최치원 선생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를 더욱 자세히 보자.

풍류도 8자, 包含 3教, 接化 群生; 전체27자

유교 16자(10+6자)

도교 16자(10+6자)

불교 15자(8+7자)

계 55자(36자), 전체74자(+2+5=81자), 실제 교리는 36자로 4교를 회통!

38) 김부식 등, 『3국사』「신라본기」〈진흥왕 37년 576〉(1145); 『鸞郎碑序』.

이 『난랑비서』는 북애자의 『규원사화』(1675)에도 인용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단 55자로 풍류도와 유도불 4교의 핵심사상을 압축했는데, 실제 교리는 딱 36자로 압축해서 4교를 회통한 것이다. 감히 범용인으로서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놀라운 도의 경지이다.

崔致遠
『鸞郎碑序』曰「國有玄妙
之道曰風流,設教之源,
備祥『仙史』實乃包含三
教,接化群生.且如入則
孝於家,出則忠於國,魯
司寇之旨也.處無爲之
事,行不言之教,周柱史
之宗也.諸惡莫作,諸善
奉行,竺乾太子之化也.」

〈그림1〉『난랑비서경』(『풍류도81자경』)의 천부도, 천부9궁도; 9×9=81자
*4교의 도36자, 본문76자+제목5자= 81자

이렇게 『난랑비서경』(『풍류도경』)의 사상은 <1풍류도 而 3유도불>로서 31사상이며, 9원론의 구조로 만들어 해석하고 있다. 이는 최치원 선생이 天地人 3神사상에 정통하여, 풍류도를 <3而1, 1而3의 31사상의 천신교>로 해석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 분이 『천부경』을 譯著하면서, 천지인 3신사상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천부경』의 譯著者가 최치원 선생이 정확하다고 보며, 이 역시 나의 학설이며 이미 오래 전에 발표하였다.³⁹⁾

2. 그러면 이제 『천부경』을 먼저 9궁도로 보자.

(VI-2) 『天符經』(81字)

一始無 始一析 三極無
盡本天 一一地 一二人
一三一 積十鉅 无匱化

39) 이강식, 「1. 『천부경』 해석」 외, 『한국고대조직사상사 - 천지인 3신사상의 조직론적 해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pp.187~208.

이강식, 『신시조직사 - 5사조직변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그런데 이 역시 나의 학설인데, 표절하면, 안될 것이다.

三天二 三地二 三人二
三大三 合六生 七八九
運三四 成環五 七一妙

衍萬往 萬來用 變不動
本本心 本太陽 昂明人
中天地 一一終 無終—40)

〈그림2〉 『천부경』의 천부9궁도

『천부경』은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론은 줄이고, 이 연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논급하면, 『천부경』 81자 중에서 이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本心 本太陽 昂明, 人中天地—〉으로 1글자로 줄이면, 〈心_심〉자이다.

〈본은 마음이며, 본은 태양이며, 높고도 밝으며, 인 가운데 천지가 있는 것이 1이며,〉라고, 해석했는데, 이때 〈본심=본태양〉이 바로 완벽한 깨달음 Perfect Enlightenment를 나타낸 경귀이다. 〈본마음이 본태양과 같이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통광명〉을 나타내는 것이며, 풍류도, 천선교, 천신교와 천전교의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3핵심개념으로 나누면 〈본〉과 〈심〉과 〈태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천부경』은 『천부심경』⁴¹⁾으로서 『천부경』 81자를 1글자로 줄이면, 마음_심 1글자이며, 바로 『心經』이다. 81자로 가장 완전성이 높고, 가장 설명력이 강한 경전이다. 불가에서는 『8만4천대장경』을 1글자로 줄이면, 마음_심 1글자라고 하는데, 『천부경』은 단 81자로 줄이고, 단 1글자로 나타내어, 마음_심 1글자를 제창하였다!

『천부경』은 신과 마음_심을 태양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양종교의 경전이며, 동시에 완벽한 깨달음 Perfect Enlightenment의 경전이다.

동시에 〈一終無終—一始無始—〉로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을 1로써 道의 始_도終_{시종}을 합하여, 1로 맞추었는데, 이는 고리_환으로서 순환, 회전, 율형을 나타내는 대원1사상이다. 대원1의 춤이 바로 環舞이다. 시작과 끝이 맞지 않으면 회전할 수 없고, 우주가 균형을 못잡고, 回轉, 循環, 環_환운동을 할 수가 없다. 『천부경』의 〈1始_시終_종11終_시始_종1〉, 〈始_시終_종1〉은 이를 나타낸 것이며, 이로써 〈無始_부無終_부終_종〉

40) 이맥, 『태백일사』 「소도경전기훈」(1520) ; 『환단고기』(1911), 88면 뒤.
나는 『환단고기』의 「이맥본」을 전적으로 채택했는데, 다른 연구자도 어떤 본을 채택했는지, text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41) 계연수(1864~1920) 선생은 『天符神經』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분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정훈모 발행, 『단탁』, 창간호(경성부: 단탁사, 1921), p.17~8.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151.

1)의 <不生不滅>이 되는 것이다. <始終1>이 되면, <無始終1>이다. 그러나 우주법칙상 <無始終1>은 어렵다. 열역학제1법칙도 있지만, 열역학제2법칙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無始終1>하는데, 1로 균형을 맞추어 <始終1>을 성통공완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이 균형을 잡아서 수축확대를 하면서 영구히 <萬往萬來>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천부경』 변증으로 돌아가자.

전병훈(1857~1927) 선생의 『정신철학통편』 「동한신성단군 『천부경』 주해서언」(1920)년에 보면, 다음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어서, 1918년에 윤효정(1858~1939) 선생으로부터 『천부경』 탁본을 전수하였음이 분명하다.

(VI-3) 「精神哲學通編卷之一」

曙宇韓人全秉薰編纂

「東韓神聖檀君『天符經』註解緒言」

東賢仙眞崔致遠曰,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志篆,見於古碑,解

其字,敬刻白山,秉薰謹按,崔公爲唐進士,而還韓成仙者,此『經』至

昨年丁巳,始出韓西寧邊郡白山,有一道人桂延壽,採藥白山,窮

入山根,石壁見得此字,照寫云耳.⁴²⁾

(VI-3-1)

崔致遠曰,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志篆,見於古碑,解其字,敬刻白山,(1920)

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志篆見於古碑文解其字敬刻白山崔致遠⁴³⁾(1921)

이렇게 북경에서 1920년 발간한 『정신철학통편』과 서울에서 1921년 발간한 『단탁』에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 같은 글이 실렸다는 것은 계연수(1864~1920) 선생의 1916~7년의 『천부경』 탁본을 양자가 각기 보고 책을 저술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전병훈 선생이 진탁 자체를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

42)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동한신성단군 『천부경』 주해서언」, 권지1(북경: 정신철학사, 1920. 2. 7. 출판허가), pp.1~2.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p.71~95.

43) 정훈모 발행, 『단탁』, 창간호(경성부: 단탁사, 1921), p.16.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p.71~95. 이 27자의 『천부경』 「발문」은 『단탁』(창간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발문」이 1년전 북경에서 출간된 전병훈(1857~1927) 선생의 『정신철학통편』(1920)년에 그대로 실려 있어서, 1918년에 윤효정(1858~1939) 선생으로부터 북경에서 『천부경』의 탁본을 전수하여 받아본 것은 분명하며, 불필요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는 뒤(VI-3)에서 다시 보기로 하자.

그런데 1921년 발간한 『단탁』에는 『천부경도』가 실려있지만, 1920년의 『정신철학통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그러나 더 연구해야한다.⁴⁴⁾

그런데 전병훈 선생의 <『天符經』謹註>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글씨의 「설명문」이 있는데 매우 주요한 내용이다. 이제 이를 보자.

(VI-4) 『天符經』謹註 韓人小臣子全秉薰敬解

天符字. 見於『黃帝素問』. 蓋五運行同天化

者. 曰天符. 此則人之兼聖合天故云歟.⁴⁵⁾

여기서 전병훈 선생이 『黃帝素問』에 <天符字>가 보인다고, 그 뒤 「설명문」에 내용을 인용하여 두었다. 나는 이 내용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였는데, 결국에는 매우 극적으로 찾았다. 그때까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黃帝素問』이 책이름인지조차도 몰랐다. 나는 매우 어렵게 이 내용을 『黃帝素問』에서 원문을 찾아 2016년의 내 저서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5) 帝曰. 五運行同天化者. 命曰天符. 余知之矣. 願聞同地化者. 何謂也.⁴⁶⁾

황제(黃帝)가 말한다. “5운(五運)의 운행이 하늘의 변화(天化)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천부(天符)’라 함을 내가 알고 있다. 바라건대 땅의 변화(地化)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⁴⁷⁾

이 문장이 주요한 이유는 전병훈 선생이 1918년에 『천부경』 탁본을 윤희정 선생에게 전래 받았을 때, 이미 經題가 『천부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天符>의 유래를 찾고자, 탐구한 바, 『黃帝素問』에서 그 유래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천부경』 진탁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전병훈 선생의 학문적 성취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한한 중국고전 속에서 이 필요한 <천부>의 한 문장을 딱 찾아낸다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내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내가 직접 엄청 두텁고, 작은 한자활자가 뻑뻑한 한문책인 『黃帝內經素問』을 한 장 한

44)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p.82~95.

45)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권지1(북경: 정신철학사, 1920. 2. 7. 출판허가), pp.3~7.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p.121~6.

46) 『黃帝內經素問』 「6원정기대론제73편」, p.258, 속수4고전서, 자부, 의가류, 982.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경주: 한국, 2016), pp.125~6.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뒷책, p.271.

47) 최창록 역해, 『다시읽는黃帝素問經』(하), 『黃帝素問』(권8), 「천원기대론편」, (서울: 푸른사상사, 2001), p.262.

장 확인하여 <天符, 太乙天符, 天符歲會, 太一天符>⁴⁸⁾를 찾아내었는데, 『천부경』 연구사에서 이 의의는 매우 크다. 즉 중국기록과 비교연구할 수 있는 교류점을 비로소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제내경소문』이 또 9권, 8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병훈 선생이 이 의가류서를 본 것은 도사로서 수도와 인술을 풀기 위한 것이며, 계연수 선생의 채약과 연성도 같은 목적에서 수도와 인술을 베풀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중국 기록에서 天符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차후의 과제로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우리 『천부경』이 중국 기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천부경』, 『31신고』, 『환단고기』가 진경, 진사, 진서임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주요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병훈(1857~1927) 선생의

『정신철학통편』 「동한신성단군『천부경』주해서언」(1917, 1920)

2) 전병훈(1857~1927) 선생의 「『천부경』근주」

(『황제소문』 天符)(1917, 1920)

3) 『단탁』(창간호)(1921)

「계연수기서」(1906년 부촉, 1916~1917년, 1921년 발표)

4) 『단탁』(창간호)(1921) 「계연수기서 소암소인」(1917, 1921)

5) 이고선(1906~82) 선생의 『심당전서』(1924, 1952, 1981년 발간)

6) 『단군교부흥경략』(1937)

7) 『환단고기』의 계연수 선생의 「서문」(1911, 1979)

8) 『환단고기』의 오형기 선생의 「발문」(1949, 1979)

3. 『31신고』도 인류의 종교철학사상상 매우 현묘하고 경이로운 경전인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할 과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쉽지만,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만, 논술하겠다.

1) 먼저 『31신고』는 하늘天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하늘天은 氣, 브라만교의 브라흐만 Brahman梵^법힘과 거의 형용이 같으며, Atman我^아숨호흡과 梵我一如^{범아일여}를 이룬다. 따라서 이는 대표적인 전변설을 제창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환단고기』에서는 個全一如^{개전일여}로 나온다.

48) 윗책, 「6원정기대론편」, 天符, 太乙天符, p.21 ; 「6미지대론편」, 天符, 太乙天符, pp.69~70 ; 「6원정기대론편」, 天符歲會, p.189, 天符, 太乙天符, p.212, 天符, 天符歲會, p.264, 太一天符, p.265. 개정판(서울: 푸른사상사, 2001).

2) 신은 우주최고창조주의 인격신인데, 降在爾腦로 나타나며,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흐마 Brahma梵天的 형용과 거의 유사하며, 유지 비슈누, 파괴 시바와 3위1체트리무르티를 이루는데, 이는 『환단고기』의 3神1體와 비교할 수 있으며, 물론 꼭 같은 것은 아니다.

3) 하늘_천은 기이며, 기로 짝 찬 허공이며, 神國이며 大光明處이다. 따라서 光明 자체가 신은 아니고, 신의 가장 주요한 발현이다. 따라서 性通光明은 신성을 깨쳤다는 뜻이며, 神仙人一如가 됐다는 뜻이고, 성통공완은 본성을 공업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4) 세계 즉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700개의 우주가 있고, 그중 <一丸世界>라고 하여 거대하면 서도 작으며, 우주가 <하나의 둥근 알>이라는 회전, 지동설을 이미 알고 있다.

5) 人物을 핵심적으로 3 × 3 = 9원론으로 설명하면서, <返眞一神>의 구극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天神仙人一體>의 진리를 고구정녕히 밝혔는데, 이를 1=天=氣=神으로 보고, 1단계 줄이면 <神仙人一體>의 길이다. 이를 위해서 止感調息禁觸이 풍류도의 수행법인데, 이중 調息이 호흡과 명상, 좌선, 참선수련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단전호흡법이 있다.

이상 『31신고』를 이 연구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부분만을 논술하였는데, 『천부경』과 『31신고』도 비슷하나, 도의 본체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여기서 특히 『31신고』의 調息이 인도 힌두교 요가의 4단계 프라나Prana숨숨결기식조식 호흡생명력의 수련법인 단전호흡수련법과 거의 같다고 본다. 나는 풍류가 인도로 건너가서 프라나를 형성하였다고 본다.⁴⁹⁾ 이 프라나가 7차크라Chakra圓바퀴를 각성하고 깨운다. 또한 이 調息은 도교의 수련법이기도 하다.

또7차크라圓은 우리의 9竅와 비슷하다.

(VI-6) “…… 義者 羣力之 所起也, 正氣之 所發也,
捲之 以 藏于 九竅, 擴之 以 盈于 天地者也,
是 正義公理之, 敢 不修行乎!”⁵⁰⁾

이 9竅는 기수련에서 강조하는데, 최초 <玄牝一竅>를 만드는데서 수련이 출발하는데, 玄牝一竅는 단전에 해당하는 곳에 기를 축적하는 것이다.

49) 이강식, “한강대왕의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풍류도: 화랑도조직의 종교의 본질,” 『경주문화론총』, 제3집(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50) 이택,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1520); 『환단고기』(1911), 98면 뒤.

竅 옛볼 규; 穴-총16획; [kwi]옛보다, 보다, 반결음규

일반적으로는 이 9규를 사람몸에 있는 9개의 구멍을 의미하며, 남자는 9규, 여자는 10규라고 하나, 그건 그것이고, 기수행에서 말하는 9규는 전혀 다르다. 9窺_규는 7차크라의 개념에 가깝고, 기수행의 9窺_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한다.

여기서 <捲之以藏于九窺>는 玄牝一窺에서 시작한 氣의 小周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擴之以盈于天地者也>는 氣의 大周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환단고기』는 넓은 의미의 氣의 大周天을 채택하고 있다. 『환단고기』의 大周天도 지금까지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더욱이 단전호흡의 용어인지도 몰랐다. 그만큼 『환단고기』가 어렵다.

『환단고기』에도 <大周天>이 나오는데 단전호흡법에서도 상당히 고급용어인데, 뜻은 전체적으로는 같다고 보나, 다만 기수행의 직접 설명이 아니어서, 기수행의 이 고급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차용한 것으로 본다.

(VI-7) 三神山 爲 天下之 根山,
以 三神名者 盖 自 上世 以來 咸信三神 降遊 於 此,
化宣 三界 三百六十萬之 大周天,
其体 不生不滅, 其用 無窮無限, 其檢理 有時有境,
神之 至微至顯, 神之 如意自在, 終 不可得 以 知也.⁵¹⁾

이처럼 대주천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단전호흡법보다 넓은 의미로 나온다. 물론 대주천의 개념이 나오므로, 『환단고기』의 저자가 대주천의 단전호흡법을 안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 선생의 『지증대사비』,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를 연구한 결과 풍류는 바람흐름, 숨, 호흡, 靈, 神靈, 聖靈, 生靈, 人靈, 氣, 至氣, 生氣, 氣흐름이며, 이는 氣수행의 氣息, 調息, 運氣를 나타내며, 소주천과 대주천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생기의 원천인 바람의 숨, 호흡, 靈, 聖靈, 神靈, 魂이며 우주최고창조신이며, 생명력을 내 몸에서 저장하여 우주진리를 깨닫는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로서 모든 天神教, 天仙教와 天侏教의 핵심기원과 원형을 이루는 종교라는 결론을 나는 내렸고, 동시에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는 환국, 신시의 천신교 종교로부터 전수된 신라 풍류도의 경전이라는 결론을 나는 내렸다.

그리고 이 풍류도가 중국, 인도, 그리스, 유태교, 서구기독교 등으로 전파되었음은 뒤에서 계속 논증하겠다.

51) 이택, 『태백일사』 「3신5제본기」(1520) ; 『환단고기』(1911), 52면 앞.

이처럼 이 고대 종교인 신라의 풍류도가 고대에서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갔는데, 이제 이를 보자. 이 역시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 연구에서 역시 살펴볼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VII. 힌두교의 브라흐만, 브라흐마, 요가의 프라나

고대 인도에서 기원하는 브라흐만Brahmam^{브라만}婆羅門/梵^{파 라 문 범}은 우주의 근본 실재이고 원리로서 우주적 중성적 원리를 말하며, 브라흐만梵^범과 아트만Atman^아我^{범아일여}숨호흡의梵我一如^{범아일여}사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 풍류도의 個全一如^{개 전 일여}사상이 건너간 것이다.

그리고 베다,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브라흐만梵^범, 아트만我^아,梵我一如^{범아일여}, 브라흐마梵天^{범천}, 힌두교 요가의 프라나氣呼吸氣息^{기 호흡 기식}調息^{조 식}, 그리고 브라만은 카스트제도의 계급으로 정리하였다.⁵²⁾

불교가 발전하자, 이에 대응하여 남성적 인격신이며 창조신 브라흐마Brahma^{범천}梵天신으로 발전하여, 유지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와 함께 3主神^{주신}으로 3位1體^{위 체}Trimūrti의 브라만婆(바)羅門教^{파 라 문 교}가 되고, 사제계급인 브라만은 지배계급이 되어, 현재의 힌두교로 발전하였다. 경전은 『베다』와 『베다』의 결론부분인 『우파니샤드』를 소의경전으로 믿는다.

이 브라흐만의 어원은 <바람이 불다.>의 뜻에서 나왔으며, 브라만은 바로 바람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風神^{풍신}으로서 신시의 풍백, 신라의 풍류가 전수되어 인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바람이 풍류로서 우주만물의 창조의 실재요, 원인이요, 현현이다.

인도 고대종교에는 6파가 있는데 바라문교도 6파의 하나이며, 이에는 또 요가파가 있다. 요가파는 호흡법을 통하여 프라나Prāṇa^{범아일여}숨결호흡氣^기를 수련하여, 인체내부에 있는 아트만Atman^아我^{범아일여}숨호흡의 생명력을 깨쳐 브라흐만Brahmam^{범아일여}힘과 하나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브라흐마나 프라나는 같은 말이며, 브라흐마와 프라나는 모두 우리말의 바람/불다/風^풍에서 나왔다고 본다.

나는 풍류가 인도로 전파되어 프라나를 형성한 것으로 보는데, 프라나는 역시 브라만처럼 바람이며, 기이고, 호흡법으로서 프라나야마기식조식법을 형성하여, 깨달음의 종교의 기수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야마>가 방법이라는 뜻이다.

물론 인도의 브라만婆(바)羅門教^{파 라 문 교}도 우리나라에 다시 전파된 것으로 보는데, 나는 가야 허황옥(32~189) 황후가 전파한 종교가 브라만婆羅門教^{파 라 문 교}로 본다.⁵³⁾ 남방 불교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52) 용어의 표기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범어의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나는 최대한 원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53)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전) 천신교의 핵심교리,” 윗글, p.27, 주53) 참조.

것은 후대에 불교와 합성된 까닭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부산 동래의 梵魚寺가 원래 출발은 브라만婆羅門敎의 사원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후대에 오면서 불교사원으로 변환되었을 것이다.

최치원 선생은 <바라제波羅提>를 기록했는데, 나는 이 바라제가 브라문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⁵⁴⁾

요가에서 프라나야마는 4번째 단계이며 본격적으로 요가수련을 하는 첫단계이다. 이에는 모두 7단계가 있는데, 이를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1> 『31신고』의 3단계, 7차크라, 인도요가의 8단계 수련법

경전	『31신고』	7차크라 프라나	『마이뜨리 우파니샤드』 ⁵⁵⁾	파탄잘리의 8支요가 ⁵⁶⁾ Patañjali	비고
1단계	지감	물라다라	호흡조절 pranayama	야마禁戒5戒 yama	불교 12연기
2	調息 조식	스와디스탄	감각환원 pratyahara	니아마극기훈련勸戒 niyama	
3	금촉	마니 푸라보석도시 배꼽단전	명상수련 dhyama	아사나신체자세좌법 āsana	
4	성통광명	아나 하타	의식집중 dharana	프라나야마氣수련 prānāyāma외적	풍류 調息 조식 氣天 기천 道敎 도교
5		비슈닥	자기응시 tarka	프라티야하라制感 pratyāhāra	止感 지감
6		아나	침잠, 몰두 samadhi	다라나執持집중 dhāraṇa	禁觸 금촉
7		사하스라라 사마디 머리 1천천연색꽃잎 연꽃		디아나靜慮명상참선 dhyāna	
8				사마디三昧 samādhi해탈내적	풍류 성통광명 풍일주
비고	運氣 소주천 대주천	신체 색깔 모양			

54)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진) 천신교의 핵심교리,” 윗글, p.27,

최치원 선생이 오랜 기간 동안 대당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때 브라만婆羅門敎, 이슬람回敎, 카톨릭 네스토리우스 Nestorius景敎를 다 알았을 것이다. 최치원 선생과 같은 구학자가 도의 순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55) 석지현 역주, 『우파니샤드』(서울: 일지사, 1997), p.280.

<표1>에서 『31신고』의 3단계, 7차크라, 인도요가의 4단계와 8단계 수련법을 비교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상론은 추후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이로 보면 신라 풍류도가 인도 힌두교의 브라흐마, 프라나의 기원임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브라흐마와 프라나는 같은말이고, 신라의 바람흐름, 風流_{풍류}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호흡을 중시하는 『리그 베다』의 『나사디아 수크다(Nāsadiya Sūkta 無有雅歌_{부유아가})』의 다음 가르침을 보자.

(VI-8) 그때에 有_유도 없었고, 無_무도 없었으며,
 창공도 없었고, 그 위의 천계도 없었다,
 무엇으로 덮여 있었는가?
 어디에서? 누구의 보호 아래?
 물은 있었는가, 깊이 모를 물은?
 그때에 죽음도 없었고, 불멸도 없었으며,
 밤의 표정도, 낮의 표정도 없었다.
 스스로의 충동으로, 저 유일자가
 호흡없이 호흡하였나니,
 그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⁵⁷⁾

<저 유일자가 호흡없이 호흡하였나니,> 라고 하였으므로, 최초의 호흡자는 외부의 호흡없이, 스스로 호흡하였으니, 이는 내적 우주최고창조신이다. 이에 비해 서구 기독교의 외부 우주최고 창조신이며, 이처럼 같은 최고창조신이라도 실제로는 매우 다르며, 이 자체는 汎神論_{범신론}, 理神論_{리신론}도 아니고, 불교의 마음心_심과도 다르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할 바이다. 우주에 내재하는 우주최고 창조신인데, 중국의 盤古氏_{반고씨}와 混沌王_{혼돈왕}과 오히려 사유면에서는 비교할 부분이 있다.⁵⁸⁾

VIII. 불교의 완벽한 깨달음, 프라즈나, 판야, 반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혜

불교는 현재 선불교가 마지막 도달한 종교경지인데, 주로 『반야바라밀다심경』, 『금강반야바라밀다경』, 『대방광불화엄경』의 3대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참선, 명상의 수행법을 중심으

56)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정홍교 옮김, 『요가 - 불멸성과 자유 -』(서울: 고려원, 1989), pp.56~7.
 57) 라다크리슈난 지음, 이겨룡 옮김, 『인도철학사I』(서울: 한길사, 1996), pp148~9.
 58) 서정, 『35력기』, 반고씨, 鬪. 장자, 『장자』 「내편 응제왕」, 혼돈왕.

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무상정등정각}을 깨닫는데, 이 깨달음의 지혜를 범어로는 프라즈나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판야라고 하며, 한문으로는 般若^{반야}라고 차자한다.

아녹다라Anuttarā^{아 누 다라}阿耨多羅^{무상}: 無上, 더 이상 위가 없는,
삼막Samyak^{삼 막 정 등}: 正等, 모두 바르고 고르고 똑 같게, 바른 평등,
삼보리Sambidi^{삼 보 제 정각}: 正覺, 바른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이 무상정등정각 전체는 완벽한 깨달음Perfect Enlightenment로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현강대왕과 지증대사의 풍류선문답에서 찾은 풍류의 종교의 본질에 따라 풍류를 선불교와 같은 완벽한 깨달음Perfect Enlightenment의 종교라고 한 것이다. 이는 내가 풍류를 선불교와 같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로 본 것으로서 나의 학설이다.

그러므로 般若^{반야}는 범어의 프라즈나Prajnā와, 팔리어의 판야Pañña의 음사이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프라즈나Prajnā, 판야Pañña, 般若^{반야}와 브라흐만Brahmam/프라나Prāṇa^{숨숨결호흡氣氣息調息}는 뜻과 음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즈^지와 흐^호는 음이 교차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Argentina와 아르젠티나의 발음으로 보면, 브라흐만Brahmam과 프라즈나Prajnā는 같은 뜻이고 발음이다. 이는 호세José와 조세, 요셉Joseph과 조셉, 존John의 발음관계와 같다.

따라서 바람/風^풍이 인도로 전수되어 브라흐만Brahmam/프라나Prāṇa와 프라즈나Prajnā/판야Pañña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프라즈나Prajnā를 불교 계정혜 3학에서 慧^혜로 번역하였는데, 이 慧^혜 역시 프라즈나Prajnā의 음사로서 같은 뜻이고, 깨달음의 지혜이다. 특히 프라즈나Prajnā를 慧^혜로 번역한 것은 p가 h음이 나기 때문으로 본다.⁵⁹⁾

이처럼 풍류가 인도로 건너가서 프라즈나Prajnā/般若^{반야}가 되었고 그 좌식좌선참선명상의 단전호흡수행법도 건너간 것이다.

그러면 『반야바라밀다심경』의 마지막 呪文^{주문}을 보자.

(VIII-1) 아제

(건너간다.)

아제

(건너간다.)

바라아제

59) 나는 이를 이강식 음운변화의 제7법칙으로 이름짓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전) 천신교의 핵심교리,” 윗글, p.16, 주33) 참조.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바라승아제

(저 언덕에 닿으니.)

모지사바하

(깨달음이 있네!)⁶⁰⁾

이제 서구기독교를 보자.

IX. 서구기독교의 루아흐, 프네우마, 숨, 령, 성령, 신과 심, 흠먼지

서구 기독교의 『성경구약』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히브리어로 <루아흐Rûah>를 흠먼지에 불러 넣어서 만들었다. 루아흐Rûah는 숨, 호흡, 바람 공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생명의 원천은 숨이라는 것이다. 이 숨은 그래서 열, 성령, 생령, 생기, 생명, 바람, 입김, 혼으로 번역된다. 먼저 대표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보자.

(IX-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ㄱ) 그 물위를 감돌고 있었다.⁶¹⁾

* ㄱ) 또는 ‘입김, 열, (강한) 바람’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⁶²⁾

“.....너는 흠에서 나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⁶³⁾

60) 『반야바라밀다심경』. 이 주문의 번역은 각자 경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이 번역도 마음에 든다.

6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창세기 1:1·2」, 제3판 3쇄(서울: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020), p.1.

6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창세기 2:7」, 윗책, p.3.

6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창세기 3:19」, 윗책, p.6.

(Ⅸ-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⁶⁴⁾

여호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시니라⁶⁵⁾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⁶⁶⁾

(Ⅸ-3)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⁶⁷⁾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⁶⁸⁾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⁶⁹⁾

이처럼 여호아의 숨을 흙먼지에 불어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생명의 숨, 생기, 생령, 성령을 받았지만, 숨이 떨어져 죽으면, 다시 흙먼지로 돌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인간은 <흙먼지>를 잊고 산다. 이는 魂魄^{혼백}과 같은 사상이다.

그런데 『성경신약』에서는 숨, 호흡, 바람, 령, 성령을 그리스어로 프네우마Pneuma/프뉴마/

64)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 「창세기 1:1·2」, 개정개역 4판(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p.1. 시 33:6.

65)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 「창세기 2:7」, 윗책, p.3.

66)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 「창세기 3:19」, 윗책, p.5.

67) 킹제임스 흙정역, 『성경전서(큰글자 성경)』 「창세기 1:1·2」, 마제스티 에디션 초판(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21), p.1.

68) 킹제임스 흙정역, 『성경전서(큰글자 성경)』 「창세기 2:7」, 윗책, p.3.

69) 킹제임스 흙정역, 『성경전서(큰글자 성경)』 「창세기 3:19」, 윗책, p.5.

뉴마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IX-4)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70)

(IX-5)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71)

(IX-6) 그 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72)

이처럼 프네우마Pneuma/프뉴마/뉴마를 숨, 호흡, 바람, 령, 성령, 생명, 생기의 뜻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프네우마Pneuma/프뉴마/뉴마가 풍류와 발음과 뜻이 거의 같다. 따라서 풍류가 그리스로 건너가서 프네우마Pneuma/프뉴마/뉴마를 형성한 것으로 나는 본다.

그러므로 『성경구약』은 헤브라이즘 유태교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성경신약』은 헬레니즘 그리스 천신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숨, 호흡, 생기, 성령Holy Sprit의 해석에 따라 교리가 전혀 달라진다.73)

인간은 神과 心, 흠먼지 사이에 있는 魂魄이다. 無有而混, 虛粗同體, 個全一如이고, 有無同時, 有無同是이며, 이 역시 동시성이요, 2중성이다. 이를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자.

(IX-7)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7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요한 복음서 20:22」, 윗책, p.262.
71)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요한복음 20:22」, 윗책, p.183.
72)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전서(큰글자 성경)』「요한복음 20:22」, 윗책, p.176.
73) 이강식, “환국의 흥익인간경영사상과 천부경의 새로운 이해,” 윗글, pp.141~6.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⁷⁴⁾

그런데 뉴마는 프뉴마에서 p음이 목음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⁷⁵⁾ 그러면 유태어 루아흐와 그리스어 뉴마는 음운변화일뿐이며, 역시 같은 뜻과 같은 발음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므로 풍류가 고대에서부터 매우 호한한 종교철학사상의 경지를 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프시케Psyche는 영혼, 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신라에서 나타난다. 혜공왕(r.765~86) 대에 건립된 『고선사 서당화상비』(765~86년경)에서는 원효(617~85) 성사가 그의 『화엄종요』를 범어로 번역하였다는 금석문의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찬탄파사>라는 기록이 나온다.

(IX-7) 『華嚴宗要』者 理 雖 元一, 隨(緣)(如)口, 讚歎 婆娑, 翻 爲 梵語, 便附口人, 此口言,
其 三藏 重之 由也.⁷⁶⁾

여기서 보면 원효 성사께서 『華嚴宗要』를 짓고, <婆娑>를 讚歎하여, 『華嚴宗要』를 梵語로 번역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婆娑>는 범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범어의 <바사>로 그 뜻을 찾아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자 한다.

신라 仙桃神母(-69전후)의 이름이 <婆蘇夫人 또는 娑蘇夫人>이므로 두 이름을 합성하면, <婆娑蘇塗夫人>이 되므로, 이는 <婆娑>가 선도산에서의 선도수련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풍류, 풍월, 국선화랑의 단전호흡수행법과 그 도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시 강조하면 원래 婆娑蘇塗夫人인데, 강조점에 따라 <婆蘇부인>, <娑蘇부인>으로 각기 표기되었다고 본다.

그뜻은 모두 仙桃山 蘇塗에서의 선도신모가 신선술수도를 하며, 신라 국선화랑을 양성한 것을 나타내며, 가장 주요한 수도법으로 숨, 호흡, 단전호흡, 명상, 참선, 풍류, 풍월수행을 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좌식단전호흡법은 다음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IX-8) 『玉龍集』及 『慈藏傳』與 諸家傳紀 皆 云, 新羅 月城 東, 龍宮 南, 有 迦葉佛 宴坐

74)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창세기 2:7」, 윗쪽, 속표지.

75) 나는 이를 이강식 음운변화의 제8법칙으로 이름짓는다.

76) 『고선사 서당화상비』(765~86년경).

娑 할미 파; 女-총11획; [pó]할미, 사물의 형용, 범어 Bha의 우리나라 한자

娑 춤출 사; 女-총10획; [suō,sā,shā]춤추다, 옷이 너울거리는 모양, 범어(梵語) Sa의 우리나라 한자

石, 其地 卽 前佛時 伽藍之 墟也, 皇龍寺之地, 卽 七伽藍之 一也.⁷⁷⁾
석 기 지 즉 전불 시 가람 지 허야 황룡사지 지 즉 칠가람 지 일야

황룡사가 전불7처의 1사인데, 일연 스님이 여기에 전불 시의 가섭불 연좌석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내가 실제 답사해 보니 매우 큰 지석묘가 있고 연좌할 수 있었다.⁷⁸⁾ 그래서 여기가 전불 시부터의 소도, 국선화랑이 좌식호흡법을 신선술로 수행하던 수행처이고, 신라에서는 선도신모 파사부인의 수행처라는 결론을 내렸다.⁷⁹⁾ 이처럼 환국, 신시, 조선 이후로 신라로 풍류도가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 세계에 펼쳐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파사 婆娑가 서구로 건너가 영혼, 영의 뜻을 가지는 프시케Psyche가 되어다고 본다.

더욱이 Psychology심리학을 사이칼러지라고 발음하여, p가 목음이 되는데, 파사 婆娑부인이 파소부인과 사소부인으로 나누어진 것은 파 婆가 생략되는 영향도 있고, 또 파사소도부인을 글자수를 줄여서 언어의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

p가 목음이 되는 것은 우리말에도 찹쌀에서 쌀이 되어서 ㅂ음이 목음이 되는 것과 같다.⁸⁰⁾

X. 맺는말

풍류도란 무엇인가?

최치원 선생의 『지증대사비』,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를 연구한 결과 풍류는 바람, 바람흐름, 숨, 호흡, 영 靈, 영 神靈, 성령 聖靈, 생령 生靈, 인령 人靈, 기 氣, 생기 生氣, 지기 至氣, 기 氣흐름, 기식 氣息, 조식 調息, 바람 달의 깨달음, 풍신, 우주최고창조신이며, 이는 단전호흡, 참선, 좌선, 기 氣수행의 운기 運氣로서 소주천과 대주천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생기의 원천인 바람의 숨, 호흡, 기, 생기 生氣, 령 靈, 성령 聖靈, 신령 神靈, 생명력을 내 몸에 저장하여 우주진리를 깨닫는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이자, 바람은 우주최고창조신으로서 모든 天仙敎, 天神敎와 天侏敎의 핵심기원과 원형을 이루는 종교라는 결론을 나는 내렸고, 동시에 『난랑비서경』(『풍류도경』), 『천부경』과 『31신고』는 환국, 신시의 천신교종교로부터 전수된 신라 풍류도의 경전이라는 결론을 나는 내렸다.

77) 일연, 『3국유사』「가섭불 연좌석」, 1281~3.

이강식, “헌강대왕의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풍류도: 화랑도조직의 종교의 본질,” 『경주문화론총』, 제3집(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이강식, “진흥대왕의 풍월도 우선정책에 따른 황룡사 창건과 가섭불연좌석의 새로운 이해,” 『경주문화론총』, 제7집(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4), 참조

78) 이강식, “진흥대왕의 풍월도 우선정책에 따른 황룡사 창건과 가섭불연좌석의 새로운 이해,” 『경주문화론총』, 제7집(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4), 참조

79) 그리고 주요한 것은 신라 파사 婆娑(r.80~112 5대) 니사금이가 있고, 또 가락 허황옥 황후의 파사 婆娑石塔이 있다. 이렇게 주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종교철학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나는 그것을 선도신모 파사소도부인의 신선술의 좌식단전호흡법으로 보는 것이다.

80) 나는 이를 이강식 음운변화의 제9법칙으로 이름짓는다.

그리고 이 풍류가 중국, 인도, 유태교, 그리스, 서구기독교로 전파되었음을 논증하였다.

風流는 <바람의 흐름>이며, 이는 공기의 흐름이고, 이는 氣의 흐름이고, 이 숨의 호흡수련을 통해 우주정기를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 완벽한 깨달음을 깨치는 길이며, <神仙人一體>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의 원형이며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환단고기』에는 우리와 인류의 종교철학사상의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현묘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最古역사, 最大영토, 最多인구, 最大權力金力, 不死不老 등등 현실세속사에만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것도 매우 주요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진정한 幸福平和安全을 위해서는 『환단고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最甚最深靈性을 깨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最古역사, 最大영토, 最多인구, 最大權力金力, 不死不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없는 권력금력인력학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물질문명의 부귀만큼 정신문명이 따라가서 우리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최다 고통만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우리와 인류의 역사는 항상 증거하고 있다.

=====

표절경고

표절경고

이 논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새로운 학설의 어떠한 부분도 표절, 우라까이, 베끼기, 무단전재, 무출처인용, 비양심행위 등등을 하면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언제든지 모든 학술학문책임, 연구윤리진실성책임, 신의성실도의책임, 민형사책임 등등을 무관용으로 지게 함을 엄중 경고하며, 특히 표절, 우라까이, 베끼기, 무단전재, 무출처인용, 비양심행위 등등을 하는 자를 감싸고, 사주, 비호, 옹호, 침묵, 조치회피, 묵살, 은폐, 2차 가해하는 자 등등은 역시 같이 책임지게 함을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표절을 인용하는 2차, 3차 등의 표절도 마찬가지로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내 학설에 명백히 영향을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도 표절이며 엄중 경고한다. 표절꾼은 지식 도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문질서를 교란하는 사문난적이다. 표절꾼과 표절꾼을 비호하거나 방관하는 자와 사문난적들은 모두 천벌을 받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반드시 지옥의 무간지옥의 영벌의 불길 속에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

표절경고

표절경고

고지

고지

이 논문을 저술함에 있어 일반적인 논문신청과 의뢰, 통상적인 학술학문연구활동 독서토론 대화 등등 외에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목적의 의도적·무의도적 권유, 유인, 획책, 강요 등등을 받지 않았음과 더불어 합당하게 지급되는 원고료, 발표료, 연구비, 협찬금, 후원금, 기부금 등등 외에 대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직접적·간접적 별도의 금품을 특히 비공식적으로 수수하지 않았음을 일러두며 다만 차후 변동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으로 명백히 고지한다.

고지

고지

=====

참고문헌

- 『고선사 서당화상비』, 765~86년경.
-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414.
- 『금강반야바라밀다경』.
- 김덕중, 『광개토태왕석비 정해본』, 서울: 덕산서원, 2014. 사문 선생
- 김대문, 『화랑세기』, ?~704~?.
- 김인배, 김문배 지음, 『임나신론 - 역설의 한일고대사 -』, 서울: 고려원, 1995.
- 김부식 등, 『3국사』, 1145.
- 김은수 역주, 『주해 환단고기 - 단군은 아시아를 통일했다 -』, 서울: 가나출판사, 1985 초판.
(「오형기·조병윤본」 영인).
- 『논어』.
- 『단군세기』.
- 『대방광불화엄경』.
- 대야발, 『단기고사』, 714년대.
- 라다크리슈난 지음, 이거룡 옮김, 『인도철학사 I』, 서울: 한길사, 1996.
- 『맹자』.
-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정홍교 옮김, 『요가 - 불멸성과 자유 -』, 서울: 고려원, 1989.
- 박성수, “춘성 신복의 바리되는 맥국 도읍지,” 『단군기행』, 경향신문, 1987. 3. 12.
- 박시인, 『알타이 인문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반야바라밀다심경』.
- 북애자, 『규원사화』, 1675.
- 북애자 지음, 민영순 옮김, 『규원사화』, 서울: 다운샘, 2008.
- 『31신고』.
- 생명의말씀사, 『큰글자 성경전서』 「창세기 1:1·2」, 개정개역 4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書經』 「皐陶(요)謨」.
서경 고도묘
- 서정, 『35력기』, 오.
- 석지현 역주, 『우파니샤드』, 서울: 일지사, 1997.
- 『성경』.
- 성은구 역주, 『일본서기』, 1987년 1월 30일 초판1쇄, 1993년 12월 1일 2판1쇄, 서울: 고려원.
- 『시경』.
- 『신사기』.

- 신채호, 『조선사』 ; 『조선일보』, 1931.
-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안경전본), 개정판1쇄, 대전: 상생출판, 2012.
- 『역주본·장구본 환단고기』(1), 단학회연구부 엮음, 서울: 도서출판 코리언북스, 1998년 5월 30일(광개절).
- 임종국 번역·주해, 『한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1986. (「오형기·조병윤본」 배인본).
- 이강식, “「고기」에 기록된 신시조직의 구조와 기능,” 『경상대학론집』, 제15호, 대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1987.
- 이강식, 『한국고대조직사 - 환국, 신시, 고조선조직연구 -』, 서울: 교문사, 1988.
- 이강식, “고조선 역년 2,096년과 3한조직의 새로운 이해,” 『국학연구』, 제3집, 서울:국학연구소, 1990.
- 이강식,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이 명사로서 관명 내지 조직명이며 5사조직이라는 변증,” 『한국관광대학(경주대학교)논문집』, 제3집, 1991.
- 이강식, 『신시조직사 - 5사조직변증 -』,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 이강식, “『신지비사』에 기록된 고조선 3한조직의 구조와 기능(I),” 『경주대학교논문집』, 제5집, 1993.
- 이강식, “『신지비사』에 기록된 고조선 3한조직의 구조와 기능(II),” 『경주대학교논문집』, 제6집, 1994.
- 이강식, “화랑도조직의 이론과 실천,” 『발표논문집』, 1997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 서울: 한국경영학회, 1997. 2. 22.
- 이강식, “통일전의 문화마케팅전략구축,” 『신라학연구소논문집』, 창간호, 경주: 위덕대 부설 신라학연구소, 1997.
- 이강식, “첨성대의 본질에 따른 문화마케팅전략구축,” 『경주대논문집』, 제10집, 경주: 경주대학교, 1998.
- 이강식, “고조선 3한조직의 3국으로의 계승,” 『국학연구』, 제4호, 서울: 국학연구소, 1998.
- 이강식, “선도신모가 화랑도조직의 기원이라는 변증,” 『신라학연구소논문집』, 제2집, 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1998.
- 이강식, “화랑도조직의 이론과 실천,” 『경영학연구』, 제27권제1호, 한국경영학회, 1998. 2.
- 이강식, “신시조직의 구조와 기능,” 『단군학연구』, 창간호, 단군학회, 1999.
- 이강식, “현강대왕의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풍류도: 화랑도조직의 종교의 본질,” 『경주문화론총』, 제3집, 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 이강식, “『화랑세기』에 기록된 화랑도조직의 3신5제조직구조,” 『신라학연구』, 제4집, 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0. 12.
- 이강식, “『화랑세기』를 중심으로 본 신라 천신교와 신선합일조직사상에서 형성한 화랑도조직

- 의 창설과정,” 『경주문화론총』, 제4집, 경주: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1.
- 이강식, “박혁거세거서간의 신과 성: 신라조직사상의 원형,” 『신라학연구』, 제5집, 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1.
 - 이강식, “천지인 3신사상의 조직론적 구조, 기능과 과정,” 『국학연구』, 제7집, 서울: 국학연구소, 2002.
 - 이강식, “고조선의 국가가 정통성을 계승한 신라,” 『신라학연구』, 제6집, 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2.
 - 이강식, 『도덕경의 경영학』, 경주: 한국, 2002.
 - 이강식, “고조선 고구려 직접 계승론,” 『신라학연구』, 제7집, 경주: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3.
 - 이강식, 『3신사상의 조직론적 해석』, 대전: 증산도사상연구소, 제10회 증산도사상연구소 콜로키움, 개벽문화총서 134-01, 증산도사상연구소, 증산도교수신도회 주관, 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4F), 2004. 2. 11. 수. 15:00-17:30.
 - 이강식, “3신5제사상에서 형성한 고조선과 고구려의 3한5가조직의 구조와 기능,” 『고조선과 고구려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사)국학원, 대한상고사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논문집, 2005. 6. 14. 화.
 - 이강식, 『논어의 경영학』, 경주: 한국, 2005.
 - 이강식, “3신5제사상에서 형성한 고조선과 고구려의 3한5가조직의 구조와 기능,”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005. 12.
 - 이강식, “『3국유사』 「고조선」의 『고기』와 『제왕운기』 「전조선기」의 『본기』가 구 『3국사』 「단군본기」라는 변증,” 『단군학연구』, 제15호, 단군학회, 2006. 12.
 - 이강식, 『고조선의 천신교와 3신사상』, 대전: 증산도사상연구소, 1370330 제25차 콜로키움, 2007. 3. 30. 금.
 - 이강식, “고조선사와 단군사에 대한 천신교, 불교, 고려유가와 조선유가의 사관의 변화과정,” 『단군학연구』, 제17호, 단군학회, 2007. 12.
 - 이강식, “신라 선도신모 부여 눈수 출자론,”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증산도상생문화연구소, 2012. 3. 23.
 - 이강식, 『『환단고기』 속 신라 건국이야기 -선도신모, 박혁거세거서간, 알영황후, 그리고 최부자집의 상생경영-』, 대한사랑 발표문, 2013. 7. 13.
 - 이강식,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 名詞이며 組織名으로서 5事組織이라는 연구: 『桓檀古記』를 중심으로,” 대한사랑 교수세미나 발표문, 2013. 11. 30.
 - 이강식, “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이 名詞이며 組織名으로서 5事組織임을 통해 본 『桓檀古記』의 진실성,” 국학원 국민강좌 발표문, 2014. 2. 11.

- 이강식, “神市의 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이 名詞이며 組織名으로서 5事組織임을 통해 본 『檀檀古記』의 진실성,” 『세계환단학회지』, 2권1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15. 6.
- 이강식, 『한국, 신시, 고조선조직사』, 대전: 상생방송, 2014.
- 이강식, “한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고조선, 맥국으로 본 세계문명론,” 『춘천 중도 고조선유적지 학술대회 발표문』,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관: 소서노어라하기념사업회 외, 2015, 3, 6(금). pp.26~48.
- 이강식, “최치원 선생의 『천부경』(원본)을 발견한 계연수 선생의 편지분석과 신채호 선생의 『천부경』에 대한 견해의 검증: 『천부경』의 진실성,” 『세계환단학회지』, 2권2호, 세계환단학회, 2015. 12.
-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경주: 한국, 2016.
- 이강식, “『3국유사』의 『고기』, 『제왕운기』의 『본기』, 『단종실록』의 『고기』와 『동사보유』의 『고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고대사관의 변화과정,” 『고조선단군학회 65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서울: 동국대, 2016. 5. 28(토).
- 이강식, “한국(桓國)의 국(國)이 거란소자에도 나오는 국(國)이며 그 뜻은 국(國)으로서 한국(桓國)은 한국(桓國)이라는 변증,” 『세계환단학회지』, 4권1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17. 6.
- 이강식, “한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고조선, 맥국으로 본 세계문명과 환한문명,” 『행촌학술문화진흥원, 세계환단학회 2018 공동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2018. 5. 31(목), pp.91~144.
- 이강식, “한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고조선, 맥국으로 본 세계문명과 환한문명,” 『세계환단학회지』, 7권2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20. 12.
- 이강식, 『조직개발』, 경주: 한국, 2021.
- 이강식, 『경영학자와 함께 열매 맺고 꽃이 피네』, 경주: 한국, 2022.
-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전) 천신교의 핵심교리,”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2022 대한韓국제학술제 특강논문, 2022. 06. 22.(수) 13:00~14:00.
- 이강식, “한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천부경의 새로운 이해,” 『세계환단학회지』, 9권1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22. 6.
- 이강식, “천제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전) 천신교의 핵심교리,” 『세계환단학회지』, 9권2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22. 12.
- 이강식,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의 신묘년 기록 변증과 천신교경영사상,” 『세계환단학회지』, 10권1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23. 6.
- 이강식, 『1일법문 - 원효 스님이 아미타여래의 화신이라는 변증 -』, 경주: 한국, 2023.
- 이강식,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천신교경영사상과 호우의 대원1도, 열10자도, 9한도

- 의 천신교경영사상 연구” 『세계환단학회지』, 10권2호, 대전: 세계환단학회, 2023. 12.
- 이고선, 『단서대강』(1965), 132면. ; 『심당전서』(1981), 李俊, 冠文社.
 - 이상은 감수, 『한한대사전』, 7판, 서울: 민중서관, 1972.
 - 이병선, 『임나일본부는 대마도에 있었다 - 일본독자들의 서한집 -』,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이상시, 『단군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서울: 가나출판사, 1987.
 - 이승휴, 『제왕운기』, 1287.
 -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서울: 고려가, 1987.
 - 일연, 『3국유사』, 1281~3.
 - 임승국 번역·주해, 『한단고기』, 초판 1986, 중판 1987, 서울: 정신세계사.
 - 장자, 『장자』 「내편 응제왕」.
 - 전관응 감수, 『불교학대사전』, 7판, 서울: 흥법원, 1994.
 - 전규호 편역, 『광개토대왕비첩』, 서울: 명문당, 2014.
 -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동한신성단군『천부경』주해서언」, 권지1, 북경: 정신철학사, 1920.
2. 7. 출판허가.
 - 『정본 환단고기』, 해학 이기 교열, 일시당주인 운초 계연수 원저(1911). 고양: 한뿌리·북캠프, 2005. (「이유립본」 수정 영인).
 - 정훈모 발행, 『단탁』, 창간호, 경성부: 단탁사, 1921.
 - 짐 알칼릴리 지음, 김성훈 옮김,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월북: 경기 파주, 월북, 2022.
 - 『참전계경』.
 - 『천부경』.
 - 최창록 역해, 『다시읽는黃帝素問經』(하), 『黃帝素問』(권8), 「천원기대론편」, 서울: 푸른사상사, 2001.
 - 최치원, 『낭혜화상비』, 890? ; 『4산비명』.
 - 최치원,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 893. ; 『4산비명』.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큰글자 성경)』 「창세기 1:1·2」, 마제스티 에디션 초판,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2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1:1·2」, 제3판 3쇄, 서울: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020.
 - 『환단고기』, 해학 이기 교열, 일시당주인 운초 계연수 원저(1911), 안중건 발행, 개정신판 1쇄, 대전: 상생출판, 2010. (「이유립본」 수정 영인).
 - 『黃帝內經素問』 「6원정기대론제73편」, 속수4고전서, 자부, 의가류, 982.
 - 논-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천신교경영사상20231016월이공식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

상생문화연구소 유 철

- I. 들어가는 말
- II. 〈삼일신고〉의 유래와 전수과정
- III. 〈삼일신고〉 위작설과 그에 대한 비판
 - 1. 〈삼일신고〉는 대중교계 위작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 2. 신채호발 위작설과 이에 대한 논박
 - 3. 『환단고기』 위서론에 근거한 위작설과 이에 대한 반론
- IV. 맺음말

〈삼일신고〉와 〈천부경〉은 그 출현시기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두 경전 모두 출현과정이 대중교와 관련되면서 대중교의 단군신앙과 관련되어 창작되었을 수 있으며, 당시 일제의 억압을 받던 시기에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일명 위작설이다. 위작설이 이러한 근거를 갖는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 사실적 비판을 통해 더 이상 위서론이나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자는 〈삼일신고〉의 출원과 전수과정, 판본들을 검토한 후, 다양한 위작설을 알아보고 그 위작설의 논리와 근거를 비판하여 위작설 자체가 의도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핵심 개념】 〈삼일신고〉, 위서론, 대중교, 신채호, 『환단고기』, 민족주의

I. 들어가는 말

〈삼일신고〉와 〈천부경〉은 그 출현시기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두 경전 모두 출현과정이 대중교와 관련되면서 대중교의 단군신앙과 관련되어 창작되었을 수 있으며, 당시 일제의 억압을 받던 시기에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일명 위작설이다.

한편 여러 역사적 기록에 따라 그 두 경전 모두 상고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고유 경전으로서 오랜 전승과정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서,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주장도 있다.

위작설의 입장에서 볼 때 환국시대나 배달시대, 심지어 고조선시대조차 인정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천부경〉이나 〈삼일신고〉가 현재까지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더구나 두 경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수록된 『환단고기』나 『단기고사』 등의 저

술들이 진서가 아니라고 믿는 입장에서 삼일신고는 위작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예정된 위작설이다. 반도사관과 식민사관에 근거해 상고사를 부정한다면, 그리고 『환단고기』나 『규원사화』 등 역사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몇 가지 티끌을 찾아서 무조건 위서로 부정한다면 <천부경>도 <삼일신고>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위작설의 근거가 이러한 의도적 부정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 사실적 비판을 통해 더 이상 위서론이나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단고기』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그 사관과 사실들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 강단 사학계에서는 위서론을 만들어 『환단고기』 열풍을 잠재우려고 했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 때 그들이 만든 위작설은 『환단고기』를 충분히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단어의 문제나 전수과정의 문제, 전수자나 편집자의 문제를 부각시켜 그 내용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위작설이 근거 없거나 잘못된 사실에 바탕을 둔 성급한 주장이었다는 것은 『환단고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여러 논문으로 반박되었고, 오히려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삼일신고> 위작설 역시 『환단고기』 위서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삼일신고>의 발표시기와 내용이 위작의 요소를 내포한다는 주장이나 <삼일신고>의 문체로 볼 때 고대 경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등이다. 즉 <삼일신고>의 발표시기와 내용이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자가 현대적이고, 내용이 기독교 교리나 도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모두 『환단고기』 위서론과 유사한 논리들이다.

『환단고기』 위서론이 여러 분야에서의 진실한 학문적 연구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삼일신고> 위작설 역시 그 의도가 불순하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거도 부정되고 비판될 것이다. 논자는 <삼일신고>의 출원과 전수과정, 그리고 여러 판본들을 검토한 후 <삼일신고>가 위작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왜 여러 위작설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위작설 자체가 의도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삼일신고>의 유래와 전수과정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삼일신고>는 366자로 구성된 경전으로 그 내용은 하늘과 땅과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참됨을 추구하는 수행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부경>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해 다루는 경전이지만 81자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매우 함축적일뿐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삼일신고>는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천지인에 대해 다루면서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논리적이어서 그 본의를 독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렇다면 〈삼일신고〉를 통해 〈천부경〉의 본의를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백일사』에서 이맥은 “〈삼일신고〉의 5대 종지도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삼일신고〉의 궁극적 정신 역시 〈천부경〉의 일—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고 하여 삼일철학의 정수인 〈천부경〉과 삼일정신을 함께 하는 것이 곧 〈삼일신고〉라고 하였다.

〈천부경〉이 만들어진 경위와 전수과정에 대해서는 『태백일사』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²⁾ 하지만 〈삼일신고〉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다. 『태백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삼일신고〉의 기원을 언급한다.

〈삼일신고〉는 본래 신시개천 시대에 세상에 나왔고, 그때 글로 지어진 것이다...우리 환국은, 환웅천황께서 배달을 개천할 당시부터 천신께 제사를 지내 오셨고, 〈삼일신고〉를 지으셨으며, 산하를 널리 개척하시고 백성을 교화하셨다.³⁾

〈삼일신고〉가 만들어진 때를 신시 배달국 시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 그 전수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다. 『환단고기』에서 〈천부경〉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 시기와 전수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기록이 간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⁴⁾

한편 발해 문왕이 간행하여 석실에 봉장한 〈삼일신고〉는 본문 뒤에 고구려 개국공신인 마의극재사의 〈삼일신고〉讀法, 발해 문왕의 〈삼일신고〉봉장기奉藏記 등이 붙어있다.⁵⁾ 〈삼일신고〉봉장기는 석실본 〈삼일신고〉의 유래와 봉장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태백일사』에서 읽을 수 없는 〈삼일신고〉의 전수 과정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고조선기』에 따르면 ‘단군왕검께서 〈삼일신고〉를 강연하고 팽우는 이를 받들었다. 신지神誌가 돌에 고문古文으로 새겨 전하였다’고 했다. 『후조선기』에는 ‘기자箕子가 일토산 사람 왕수궁을 초빙하여 박달나무에 은나라 문자로 새기게 하여 전했다’고 했다. 그런즉 〈삼일신

1) “神誥五大之指訣亦本於天符 神誥之究竟亦不外乎天符中一之理想也”(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532.)
2) 『환단고기』에서는 〈천부경〉의 유래에 대해 “〈천부경〉은 천제 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성되어 온 글이다. 환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뒤에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였고,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p. 505~506)
3) “三一神誥本出於神市開天之世而其爲書也...吾桓國 自桓雄開天 主祭天神祖述神誥 煇拓山河教化人民”(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p. 508~510)
4) 송호수는 『태백일사』의 위 구절을 인용하면서 “〈삼일신고〉는 환웅천황이 환국으로부터 전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서울: 기린원, 1991, p. 92)고 하였는데 이는 ‘吾桓國 自桓雄開天 主祭天神祖述神誥’의 오독에 의한 착오가 아닌가 한다. ‘우리 환국은’은 배달국 이전의 나라 환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족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정훈모 저, 조준희 역, 『단재 정훈모 전집 1』, p. 62. 참조.

고)는 원래 돌과 나무로 된 두 가지 본이 있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돌로 된 본은 부여의 국고에 간직되었고, 나무로 된 본은 위만씨가 가지고 있다가 둘 다 전란에 잃어버렸다’고 하니...이 <삼일신고>는 고구려 때 한역漢譯한 것이 전한 것이고 나의 조부께서 읽으시고 예찬하신 것이다. 이 역시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조부 대조영의 찬문과 대야발의 서문에 봉장기를 첨부하여 태백산 보본단 석실에 보관하였다. 대흥 3년 3월 15일에 문노라.”⁶⁾

이 봉장기에 의하면 배달에서 전해진 <삼일신고>는 단군조선에 이르러 단제께서 백성들을 모아 <삼일신고>를 강설하시고 신지는 돌에 신고를 새겼으며, 또 기자에 의해 은나라 문자로 나무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배달시대에 만들어진 <삼일신고>가 단군조선에 이르렀고, 이것이 어떻게 후대로 전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발해 문왕의 봉장기는 『고조선기』와 『후조선기』라는 당시 존재했던 역사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 듯하고, 또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존하여 <삼일신고>의 출원과 전래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결론적으로 <삼일신고>는 신시 배달시대에 만들어져 단군 조선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경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일신고>의 출원과 전수에 대한 기록이 약소해 이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고서에서 <삼일신고>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를 이은 대진국의 개창자인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단기고사』라는 책에서 대야발은 <재편서再編序>를 적으면서 “대개 인물人物이 같이 삼진三眞을 받았으니 이는 성性和 명命과 정精인데 진성眞性은 선악善惡이 없고, 진명眞命은 청탁淸濁이 없고 진정眞精은 후박厚薄이 없는지라...”⁸⁾라고 해서 <삼일신고>를 인용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 인용문은 <삼일신고> 전문全文을 보지 않았다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다. 대진국시대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존재했고, 이를 강연했다는 것은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 “이듬해(738년)에 태학을 세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시고...”⁹⁾의 기록이 뒷받침한다.

고려시대 역사서로 알려진 원동증의 『삼성기』 하에서 “환웅천황께서 처음으로 동방 배달 민족의 새 역사 시대를 열고 백성에게 교화를 내릴 때 <천부경>을 풀어 설명하고, <<삼일신고>>를 강론하여 백성들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었다.”¹⁰⁾고 기록하고 있다. 또 고려 말 이암의 『단군

6) <삼일신고봉장기三一神謠奉藏記>의 내용을 간추려 인용하였다. 끝에 글을 작성한 때를 대흥 3년이라고 하였는데, 서기 739년이다.

7) 이찬구는 이를 토대로 <<삼일신고>>가 여러 판본으로 제작되어 고구려, 부여, 위만조선 등 주변 국가들에 전해져 읽혀졌다고 추론하고 있다.(이찬구, 「<삼일신고>에서의 하늘과 하느님의 관계」, 『선도문화』 제3집, 2008. p. 172.) 이러한 전래 경로로 볼 때 뒤에서 | 살펴볼 석식본과 태백일사본의 구조와 내용 차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 『단기고사』, p. 21.

9) “明年立太學 教以天經神謠...”(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670.)

10) “桓雄天皇肇自開天生民施化 演天經講神謠大訓于中”(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44.)

세기』 서문에는 〈삼일신고〉를 해석한 것이 분명한 구절들이 상당량 기술되어 있으며,¹¹⁾ 『단군세기』 본문에서도 11세 도해단군 기사에 국자사부國子師父 유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역대 성조들이 조명으로 기록하였고...”¹²⁾라고 하여 단군 조선 시대의 각 왕조는 〈삼일신고〉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태백일사』에는 이암이 〈삼일신고〉 전체를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다섯 장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제목을 달았다고 기록하였다.¹³⁾

조선 중기 저작으로 알려진 『규원사화』에서는 〈삼일신고〉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으며,¹⁴⁾ 역시 조선 중기의 이택이 지은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서는 앞에서 인용한바 〈삼일신고〉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에서는 〈대변경〉을 인용하여 “고주몽성제께서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리셨다. 하늘의 신이 모든 사람을 한 모습으로 창조하고 삼진을 고르게 부여하셨느니라.”¹⁵⁾라고 하여 ‘삼진을 고르게 받았다’는 〈삼일신고〉의 내용이 들어있다.

고대 사서 여러 곳에서 그 이름이나 부분적 내용들이 회자되던 〈삼일신고〉가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이 고통 받던 20세기 초였다.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알려졌는데, 먼저 독립운동가 나철이 1905년 잠시 서울에 기거할 때, 백두산에 은거하던 백봉도인이 백두암에게 부탁하여 전하여 받은 〈삼일신고〉가 있다. 그리고 이 때 함께 받은 문서인 『신사기』에도 〈삼일신고〉 전문이 들어있다. 이 둘은 그 형식으로 볼 때 서로 다른 판본이다. 세 번째 경로로 전수된 것은 1911년 제연수에 의해 간행되었고 그 후 1979년 오형기에 의해 필사된 뒤, 이유립에 의해 새롭게 간행된 『환단고기』에 실려 있는 〈삼일신고〉 전문全文이다.¹⁶⁾

〈삼일신고〉는 이처럼 서로 다른 전수 경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발해 석실본, 고경각 신사기본, 태백일사본이 그것이다. 여기에 소전거사로부터 천보산에서 이명, 범장과 함께 이암은 여러 고서들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문서에 〈삼일신고〉가 들어있었다는 추측 하에 천보산 태소암본 〈삼일신고〉를 거론하기도 한다.

행촌 선생이 일찍이 천보산에서 유람하다가 밤에 태소암에서 묵게 되었다. 그곳에 소전이라

11)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단군세기」, p. 84. 이하 참조.
 12) “天經神誥祖述於上”(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124).
 13) “〈삼일신고〉는 옛 판본에 장이 나뉘어있지 않았다. 행촌선생이 처음으로 장을 나누었는데 1장은 허공, 2장은 일신, 3장은 천궁, 4장은 세계, 5장은 인물이라 하였다.”(『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14) “御天宮 大吉祥 大光明 處曰 新鄉. ...性通功完”
 15) “高朱蒙聖帝詔曰 天神造萬人一像 均賦三眞”(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562.)
 16) 〈삼일신고〉의 전래과정에서 볼 때 대종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대종교는 〈삼일신고〉의 출현을 1905년으로 보고 있어 1911년에 간행되고 1983년에 다시 공간公刊된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본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났다. 초기 대종교단이 백봉으로부터 전수한 경전류 중에 최초로 인쇄본의 형태로 간행한 경전은 1912년 김교현 이름으로 출간한 〈삼일신고〉였다.

하는 한 거사가 기이한 옛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명, 범장과 함께 신서神書를 얻었는데 모두 환단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의 진결이었다.¹⁷⁾

그러나 천보산에서 얻은 여러 고서중에 <삼일신고>가 포함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암이 받은 고문서들이 이암의 손자인 이택에 의해 『태백일사』로 엮어졌다고 본다면¹⁸⁾, 이 태소암본은 결국 태백일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암은 소전거사로부터 받은 고서들을 전거로 해서 『단군세기』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군세기』에는 <삼일신고>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삼일신고>를 보지 않고 『단군세기』를 저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호수는 “<삼일신고>가 몇 가지 본이 현재 세간에 전해지고 있으나 그를 압축해보면 대략 3개본으로 줄여진다...즉 발해의 석실본, 천보산의 태소암본, 고경각의 신사기본”¹⁹⁾이라고 말하면서, “태소암본의 <삼일신고> 전문은 『태백일사』에 편재되어 있고, 이 신고의 단편들은 『단군세기』의 서문과 본문에도 산견되고 있으며, 『태백진훈』에도 많은 부분이 주해를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²⁰⁾고 하는데 정작 천보산의 문서가 무엇이고, 그 속에 <삼일신고> 전문이 들어있는 것은 증명하지는 못했다. 단지 『태백진훈』이나 『단군세기』의 내용으로 보아 그 당시 태소암의 고서 속에 <삼일신고>가 있었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태소암본의 <삼일신고> 전문은 『태백일사』에 편재되어 있고’라고 하여 태소암본이 있었을 것인데 그 전문이 『태백일사』에 편재(사실 편재가 아니라 원문 전체가 실려 있다)되어 있다고 하여, 태소암본이 곧 태백일사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태소암본은 아직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태백일사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²¹⁾

조남호는 <삼일신고>의 두 가지 전승과정을 구분하는데, 1. 고조선-고구려-발해-백봉-나철로 이어지는 대중교 판본과 2. 신시배달-이암-이택-계연수로 이어지는 태백일사본이다.²²⁾ 1

17)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p. 734. “杏村先生嘗遊於天寶山夜宿太素庵 有一居士曰素侏多藏奇古之書 乃與李茗范樟同得神書 皆古桓檀傳授之真訣也” 이때 소전거사로부터 이암李岳, 범세동范世東, 이명李茗등이 전수받아 각각 잊혀진 동방 조선의 원형 역사를 복원하는 책을 집필하였으니 『단군세기檀君世紀』와 『북부여기北扶餘紀』와 『진역유기震域留記』이다. 이 세권의 책 중에서 『단군세기』와 『북부여기』는 『환단고기』에 실리게 되었고, 『진역유기』는 조선 중기 북애거사가 지은 『규원사화』의 바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8) 이택은 『태백일사』 발문에서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접고해보니, 역사와 전기에 근거로 삼을 만한 것과 평소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채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라고 하여 『태백일사』의 저본이 집안에 내려오던 고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19)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서울: 기린원, 1991, p. 131.

20) 송호수, 같은 책, p. 137.

21) 이근철은 <대중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선도문화 제16권, p. 106.)에서 “<삼일신고>는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에 따라 발해 석실본, 신사기본, 태백일사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외 태소암본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송호수의 주장에 기인하는 듯하다.

번 전승과정에는 신사기본 〈삼일신고〉도 들어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다. 그런데 조남호 역시 태백일사본을 태소암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송호수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전수된 〈삼일신고〉는 판본이 각기 달라 어느 한사람에 의해 20세기에 만들어진 위작된 경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판본이 가진 형식을 비교해보면 〈삼일신고〉가 단순 위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발해 석실본(발해 문왕 봉장본)

- 1) 시작부분 : 帝日 元輔彭虞 蒼蒼非天...
- 2) 분장제목 : 天訓, 神訓, 天宮訓, 世界訓, 眞理訓

2. 신사기본

- 1) 시작부분 : 主若日咨爾衆 蒼蒼非天...
- 2) 분장 없음

3. 태백일사본

- 1) 시작부분 : 帝日 爾五加衆 蒼蒼非天...
- 2) 분장제목 : 虛空, 一神, 天宮, 世界, 人物

보다시피 세 판본은 각각 도입부분이나 분장, 분장제목에 차이가 있다. 도입부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판본 모두 총 366자로 구성되는 것은 일치한다. 앞에서 논자는 세 판본이 존재하는 것이 〈삼일신고〉가 위작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하였는데 이는 분장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삼일신고〉는 옛 판본에 장이 나누어있지 않았는데 행촌선생이 처음 장을 나누었다.²³⁾

22) 조남호, 『환단고기』와 〈삼일신고〉, 『선도문화』 제9집, 국학연구원, 2010, p. 51. 참조.

23)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p. 530. “三一神告舊本無分章 杏村先生始分章”

이 말은 <삼일신고>에 원래 분장이 없었다는 것이고, <삼일신고>를 읽고 연구한 행촌 이암이 처음으로 분장을 하였다는 말이다. 만일 이맥의 『태백일사』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암이나 이맥은 태소암에서 구한 <삼일신고>(나중에 『태백일사』에 수록된 것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외의 <삼일신고>(신사기 <삼일신고>나 발해석실본 <삼일신고>, 혹은 적어도 발해 석실본 <삼일신고>)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일단 그 도입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전래 과정상 고려시대보다 앞서는 발해석실본 <삼일신고>에 분장과 분장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장 제목이 <삼일신고>를 접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붙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암과 이맥은 고구려와 발해로 전수된 <삼일신고>를 보지 못하였고, 다른 전승과정에서 이암과 이맥으로 이어지는 <삼일신고>만 자료로 삼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신사기 <삼일신고>에 분장이 없다는 것은 ‘원래 <삼일신고>에 분장이 없다’는 이맥의 말과 일치한다.²⁴⁾ 이렇게 본다면 <삼일신고>가 20세기 초 대중교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II. <삼일신고> 위작설과 그에 대한 비판

앞에서 <삼일신고>의 유래와 전수과정을 살펴보면, 특히 그 전수과정과 세 판본의 형식을 비교할 때 <삼일신고>가 위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때 <삼일신고>의 실체가 대중교를 통해서²⁵⁾, 그리고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환단고기』 위서론, 『단기고사』 위서론을 전제로 <삼일신고> 위작설이 만들어졌다. 특히 전자는 20세기 초 당시 민족사학자로 중국 일대를 답사하면서 조선사 연구에 몰입했던 신채호의 <삼일신고> 관련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후자는 『환단고기』와 『단기고사』 위서론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아래서는 그러한 위작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당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삼일신고>는 대중교계 위작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삼일신고>는 단군교와 대중교의 주요 경전이다. 나철의 대중교는 1909년 개창한 단군교에서 분리되어 1910년 대중교로 개명하는데, 나철은 1905년에 전수받은 <삼일신고>를 대중교의

24) 송호수는 “석실본과 태소암본(태백일사본)은 모두 분장이 있으며 그 분장목이 서로 다르고, 신사기본은 아예 분장이 아주 없고하니...”라고 말한다.(송호수, 같은책, p. 145.) 『태백일사』에서는 “三一神譜舊本無分章(<삼일신고>는 원래 분장이 없다”이라고 하였으니 신사기본 <삼일신고>가 가장 오래된 본이 아닌가 한다.

25) 1905년 나철이 받은 <삼일신고>가 김교현에 의해 인쇄된 해는 1912년이고, 계연수가 편찬한 『환단고기』에 <삼일신고> 전체가 실려 간행된 것은 1911년으로 알려져 있다.

경전으로 삼게 된다. 〈천부경〉이 『환단고기』 간행으로 1911년에 세상에 처음 공개되고, 그 후 1916년 계연수에 의해 묘향산 석각본이 정훈모 단군교로 전해졌고 1920년 정훈모 단군교의 경전이 된 것과 비교하면, 대종교에서는 〈삼일신고〉가 먼저 경전화 되고, 오히려 〈천부경〉은 1976년에 대종교의 경전으로 편입된다.²⁶⁾

사실 정훈모 단군교는 1937년 『단군교부흥경략』의 〈진리의 귀원득진〉이라는 글에서 “본교의 진리는 〈천부경〉〈성경〉〈삼일신고〉로 단심수련하고 영성감통하면...”이라고 하였다.²⁷⁾ 이는 1921년 《단탁》에서 〈천부경〉만을 경전으로 수록한 것과 달리 『단군교부흥경략』에서는 〈삼일신고〉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⁸⁾ 사유와 경위가 어찌 되었던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일제 강점기에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두 종교단체인 대종교와 단군교의 경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삼일신고〉의 근대 출현 배경을 두고 위작설이 대두되었다.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삼일신고〉 역시 위작설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으로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 고유 사상의 근본을 찾으려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삼일신고〉는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당시 일제에 핍박받는 민중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단군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화적 존재가 아닌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을 부각하고 그런 문헌을 집적하는 현상은 대한제국기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기는 근대 문물을 등에 업고 들어온 서구 열강의 위협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기였다. 즉 기존에 없었던 근대적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발견 된 것이 단군이고...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문헌의 수집, 정리는 필연적으로 당대의 의도를 담은 역사 서술을 낳게 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같은 3대 위서의 단초가 형성되었는지도 모른다.²⁹⁾

일본제국주의 시대 민족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창작 위조된 것이 역사적 존재로서 단군의 존재이며, 그 단군의 역사를 강조하고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위서가 『환단고기』라는 주장이다. 당연하게도 〈삼일신고〉 위작론자들은 이러한 『환단고기』 위서론자들과 교집합이

26) 유철, 「〈천부경〉 위작설비판」, 『세계환단학회지』 6권1호, 세계환단학회, 2019. 대종교와 단군교 모두 〈천부경〉을 단체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훈모 단군교는 늦어도 1921년도에, 그리고 대종교는 1976년에 〈천부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였다.

27) 정훈모, 『단군교부흥경략』, p. 109. 논자가 보기에 단군교는 〈천부경〉을 먼저 경전으로 삼았고, 〈천부경〉을 위주로 신앙했다면, 대종교에서는 〈삼일신고〉를 먼저 경전으로 삼고 〈삼일신고〉 중심의 신앙을 한 것 같다.

28) 이렇게 본다면 대종교에서는 〈삼일신고〉를 먼저 경전화하고, 〈천부경〉은 거의 60년이 지나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든 것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삼일신고〉가 시원 종교인 신교의 전통을 이은 백두산 신교의 백봉에 의해서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에 전수된 것으로 〈천부경〉보다 먼저, 그리고 직접 전수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29) 정육재,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 『역사문제연구』 39집, 역사문제연구소, 2018, p. 135.

다. 예를 들어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서문은 <삼일신고>와 대종교의 교리가 그 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⁰⁾

이근철이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라는 논문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단군세기』 서문이 <삼일신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군세기』 서문이 20세기 초 대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삼일신고>가 단군을 신앙하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서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대종교의 집일합삼集一舍三 회삼귀일會三歸一,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일신三神 등의 교리가 잘 드러난 것이 <삼일신고>이고, 이 <삼일신고>를 참고로 한 것이 『단군세기』 서문이므로 <삼일신고>도 『환단고기』도 다 위서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삼일신고> 위작설은 <삼일신고>를 고대에서 전승된 고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제하에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대종교계에서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이 위작설의 근거로 삼는 또 다른 내용은 <삼일신고>의 용어와 문체가 고문으로 보기 힘들고, <삼일신고>가 발해 문왕의 봉장기와 대조영의 찬문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거론한다. <삼일신고>의 용어문제는, 『환단고기』의 현대적 용어문제를 거론하면서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한역漢譯된 <삼일신고>와 원본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 분명하며, 배달시대의 문서가 단군조선으로, 그리고 다시 은나라 문자로, 고구려 때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체나 개념이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발해 석실본 <삼일신고>에 부록처럼 붙은 봉장기나 찬문의 내용이 <삼일신고>와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삼일신고>가 이들 봉장기나 찬문을 참고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일 뿐 아니라 비논리적이다. 이럴 경우 누구도 <삼일신고> 찬贊이나 문왕의 봉장기 등의 내용이 <삼일신고>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어느 책의 추천사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고 그 책이 추천사를 베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권덕영은 「위서 “제왕년대력”의 발견과 그 의미」라는 논문 서문에서 “일제시대 일부 인사들은 민족의식의 고취랄까 종교적 목적으로 몇 종류의 위서를 만들기도 하였다.”³¹⁾고 하였는데, 이 논문의 한 항목인 <2. 일제시대의 위서들>에서 민족주의의 발로로 만들어진 위서로 『환단고기』, 『단기고사』, 『규원사화』, <삼일신고> 등 네 가지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³²⁾

30) 이근철,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 『선도문화』 제16권, p. 110.

31) 권덕영, 위서 제왕연대력의 발견과 그 의미, 사학연구 제75집, 2004, p. 25.

위에서 소개한 이러한 책들이 근대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것들이 왜 위서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인성, 박광용 등의 비판적 연구로 대신하거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단군을 그 중심에 두고 한국상고사를 영광의 역사로 분식粉飾하였다.³³⁾

위 네 가지 책들이 근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조인성이나 박광용의 위서론은 허술하면서 비논리적인 면이 다분하다는 것은 『환단고기』 진서론이나, 『환단고기』 위서론 비판 등의 논문에서 이미 드러났기에³⁴⁾ 이를 근거로 『환단고기』 등의 책들이 위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위 인용문에서 ‘한국상고사를 영광의 역사로 분식하였다’라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 이 표현 속에는 한국상고사는 반드시 반도에 한정되어야 하거나, 우리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 고통 받는 민족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식민사관이 전제되어 있다.

2. 신채호발 위작설과 이에 대한 논박

무엇보다 〈천부경〉 위작설도 그렇지만 〈삼일신고〉 위작설의 가장 손쉬운 논거는 신채호의 〈삼일신고〉 관련 주장에 기대고 있다. 민족사학자로 알려진 신채호가 〈삼일신고〉를 위서라고 판단하였다면 더 이상 그 진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신채호는 역사관련 글들을 그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는데³⁵⁾ 그 원고들에서 신채호는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먼저 〈동아일보〉 기고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역사를 연구하려면 사적 재료의 수집도 필요하거나와 그 재료에 대한 선택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 고대 유물이 산처럼 쌓였을지라도 그에 대한 학식이 없으면 日本寛永通寶가 기자의 유물도 되며 십만 권의 책이 비치된 장서루 속에 坐臥할지라도 서적의 眞僞와 그 내용의 가치를 판정할 안목이 없으면 後人僞造의 〈천부경〉 등도 단군왕검의 聖言이 되는 것이다.³⁶⁾

32) 권택영, 같은 글, p. 48 이하 참조.

33) 권택영, 같은 글, p. 50-51.

34) 유철, 『『환단고기』 위서론 논박』(세계환단학회지 2권 2호), 윤창열, 『『환단고기』 전서고』(세계환단학회지 2권 2호), 안창범, 『환단고기』는 진서 중의 진서이다. 등 수없이 많다. 무엇보다 박광용이 『환단고기』는 친일적 관점에서 기술된 위서라는 엉뚱한 주장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위서라는 위의 위서론과는 상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위서론자인 이도학에 의해 “『환단고기』의 내용을 이른바 대동아공영론과 결부지어 ‘친일적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 아닌가 생각된다.”(이도학, 역사를 오도하는 상고사의 위서들, 세계와 나 1990. 11월호, 세계일보사, 1990, p.421)

35) 『조선사연구초』로 묶여지는 글들을 〈동아일보〉에 연재(1924.10.13.-1925.3.16.)하였고, 『조선상고사』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1931.6.10.-1931.10.14.)하였다.

비록 <천부경>을 예로 든 글이지만, ‘<천부경> 등등도’라는 문구에서 <삼일신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후인위조의 <삼일신고>’라는 표현으로 유추가능하다. 즉 <천부경>뿐 만 아니라 <삼일신고>에 대해서도 ‘후인위조後人僞造’라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몇 년 뒤 <조선일보> 기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국은 고대에 珍書를 焚棄한대(李朝太宗의 焚書같은)는 잇었스나 위서를 조작한 일은 업섯다. 近日에 와서 <천부경> · <三一神誌> 등이 처음 출현하였스나 누구의 辨駁이 업시 古書로 信認할 이가 업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아국서적은 各氏의 족보 중 그 祖先의 事를 혹 위조한 것이 잇는 이외에는 그리 진위의 변별에 애쓸 것이 업거니와 다음 接壤된 隣國인 支那 일본 양국은 從古로 교제가 빈번함을 따라서 우리 역사에 참고 될 서적이 적지 안흐다. 그러나 위서만키로는 支那가튼 나라가 업슬거시다. 위서를 辨認치 못하면 引證치 않을 기록을 我史에 인증하는 착오가 있다.³⁷⁾

위 인용문을 볼 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나란히 함께 거론하고 있어서, 앞서 <동아일보>에서 인용한 글 중 ‘<천부경> 등도’라는 표현의 ‘등’에 <삼일신고>가 포함된다는 것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앞에서 분명하게 ‘후인 위조의 <천부경>(과 <삼일신고>)’³⁸⁾이라고 한 것과 달리, 위 인용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위서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서의 진위판단에 애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천부경>, <삼일신고> 등이 진서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두 글의 내용 차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 쪽에서는 어찌 되었던 신채호의 두 신문 원고 모두 그 내용상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위작이라고 확언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신채호가 위작설에서 진서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³⁹⁾

논자가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논자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단순히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당연히 상고시대의 경전일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에서가 아니라, 뒤의 인용문인 <조선일보> 기고문의 내용을 엄밀히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신채호의 “아국은... 고대에

36)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경주: 환국, 2016, p. 239에서 재인용.

37) 신채호 기고문, <조선일보>, 1931. 6. 18. 이강식, 같은 책, p. 249. 재인용.

38) 괄호 논자 첨가.

39) 박병채는 <천부경>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에서 신채호의 위작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전에 이숙화는 석사논문에서 신채호의 기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동아일보>의 기사는 <천부경> 위작설을 주장한 것이라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 문장의 전체 맥락상 <천부경>이 위서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조라고 하였다. 박병채는 이러한 이숙화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신채호의 두 기고문 모두 <천부경>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박병채, 「<천부경>수용과 철학적 이해」,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및 이숙화, 「일제강점기의 <천부경> 연구」,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珍書를 焚棄한대(李朝太宗의 焚書같은)는 잇었으나 위서를 조작한 일은 업섯다. 近日에 와서 〈천부경〉·三一神誌 등이 처음 출현하였으나 누구의 辨駁이 업시 古書로 信認할이가 업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아국서적은 各氏의 족보 중 그 祖先의 事를 혹 위조한 것이 잇는 이외에는 그리 진위의 변별에 애쓸 것이 업거니와”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그 함축된 뜻은 아래 재구성한 문장에서 보듯이 전혀 애매하지 않다.

아국은 (서적을 불태워 버린 적은 있어도) 위서를 조작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국 서적은 (각 성씨 문중에서) 족보에 대한 위조는 있어도 이 외 (위서가 없으므로) 문서의 진위변별에 애쓸 이유가 없다.

보다시피 신채호는 우리 문서에 위서나 위작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에 위서가 넘쳐난다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또 한 번 우리나라에 위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이 〈조선일보〉 기고가 여전히 〈삼일신고〉 위작설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近日에 와서 〈천부경〉·三一神誌 등이 처음 출현하였으나 누구의 辨駁이 업시 古書로 信認할 이가 업게 된 것이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문장은 위작설을 위해, 그리고 위작설에 의해 곡해曲解되었다. 위작설은 위 인용문 중에서 ‘고서로 신인信認할 이가 없다’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 결과 이를 ‘근래에 〈천부경〉 〈삼일신고〉가 출현하였지만 이를 옛 문서로 믿고 인정하는 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민족사학자 신채호조차도 위서로 보았으니 〈삼일신고〉는 위서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작설은 “근일에 〈삼일신고〉가 처음 출현하였으나 누구의 辨駁이 업시 고서로 신인할 이가 없게 된 것이다”라는 이 문장에서 ‘누구의 변박이 없이’라는 문구에 대한 문맥상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 변박辨駁은 ‘그릇된 것을 가린다’는 의미로 ‘누구의 변박도 없이’는 ‘〈삼일신고〉에 대해 그릇됨을 가리는 일이 없이’라는 뜻이다. ‘누구의 변박도 없이’라는 문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1. ‘누구의 변박이 없어 고서古書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
2. ‘누구의 변박이 없이(변박을 근거로 해서) 고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게 되었다’는 뜻

위작설은 1번의 뜻으로 곡해하여, 위 전체 문장을 ‘〈삼일신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았기에 이를 고서(진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신채호는 바로 뒤에서 ‘아국 서적은 (위작이 거의 없으므로)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박이 없기 때문에 <삼일신고>를 고서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위작설의 해석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 문장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2번의 의미로, 즉 '굳이 <삼일신고>에 대해 그 그릇됨을 분별하여(분별한 후) 그 문서가 고서(진서)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고문서들은 굳이 그렇게 변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다음 문장에서 신채호가 '굳이 우리 고서들은 변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⁴⁰⁾

이렇게 볼 때 <삼일신고>가 상고시대에 만들어져 전수되어 온 경전임을 부정하는 위작설은 신채호의 주장에서 '우리나라에 위서가 없으며 굳이 변별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과, 반대로 '중국 고서는 위작이 많다'는 신채호의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두 문구를 받아들인다면,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대해 변박없이 고서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문장을 결코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고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3. 『환단고기』 위서론에 근거한 위작설과 이에 대한 반론

<삼일신고>가 우리 고유의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철학과 성명정性命精을 바탕으로 한 수행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지만, 반면 <삼일신고>가 실린 『환단고기』의 출현이나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 대중교를 중심으로 하는 <삼일신고>의 경전화 작업 등과 관련해서, <삼일신고>는 신시배달 시대의 경전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주장들도 있다. 이러한 위작설을 근거로 『환단고기』 역시 위서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우리나라 재야 사서 중 『환단고기』만큼 진위에 관한 논쟁이 심한 책도 없을 것이다...『환단고기』에는 대중교의 주요 경전들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의 주요 교리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천부경>과 <삼일신고>와 같은 경전 뿐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화, 교화, 치화라는 대중교의 삼대 교리와三一其體 一三其用을 바탕으로 한 삼일철학 등이 그것이다.⁴¹⁾

40) 송호수 역시 논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는 있지만 "충분한 변박의 과정을 거쳐서 고서로 인정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고서로 인정하게 된 것은 아니다"(송호수, 같은 책, p. 103. 참조)고 하였다. 즉 <삼일신고>에 대해 위작설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고 진서로 인정하였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볼 때 굳이 변박하지 않아도 <삼일신고>는 위작이 아니라는 것이 더 올바른 풀이이다.

41) 이근철, 「대중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 『선도문화』 제16권, p.102~3.

이 논문의 제목(〈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에서도 드러나지만, 위 인용문의 함의는 분명한데, 『환단고기』가 〈천부경〉, 〈삼일신고〉 등 위작을 담고 있고, 그 내용에서 볼 때 일제하 대종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삼일철학과 유사하므로 『환단고기』는 대종교 이후 만들어진 위서라는 주장이다. 그 다음의 문장 “『환단고기』가 대종교 경전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둘 다 이전부터 내려온 동일한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⁴²⁾라는 문구 역시 같은 주장이다. 학술 연구에 있어 매우 중립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이근철이 하고 싶은 말은 ‘『환단고기』가 대종교 경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것이다.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서문은 〈삼일신고〉와 대종교의 교리가 바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삼신일체, 삼일철학, 심기신 감식축 등의 내용이 담긴 「단군세기」 서문은) 〈삼일신고〉가 수록되어 있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문장의 성격도 매우 유사하여 동일인이 썼다는 느낌이 강하다...(「단군세기」는) 『태백일사』에 그 내용이 없는 성명정, 심기신 감식축 등 〈삼일신고〉의 내용이 많이 인용된 점과 집일함삼 회삼기일, 그리고 삼신일체로 대표되는 대종교의 삼일철학의 원리는 예전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종교의 독특한 철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⁴³⁾

〈삼일신고〉의 내용을 근거로 『환단고기』가 위서임을 알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이다. 이암의 〈「단군세기」 서문이 대종교의 교리와 유사하고, 『태백일사』의 한 부분 역시 대종교의 독특한 철학과 일치하므로 『환단고기』는 대종교 이후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것이다.⁴⁴⁾

이근철은 ‘〈삼일신고〉가 신시배달시대의 문서인가’ 혹은 ‘환단고기는 우리 전통사서를 편집하여 만들어진 역사인가’ 하는 점은 논외로 하고, 대종교의 경전인 〈삼일신고〉와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환단고기』의 유사성만을 비교하여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선결문제요구의 오류’⁴⁵⁾를 범하고 있다. 〈삼일신고〉가 신시배달 이후 전승된 저작인지 아닌지를 해결하지 않고 『환단고기』가 〈삼일신고〉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어서 위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특히 이근철의 ‘『환단고기』가 대종교 경전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둘 다 이전부터 내려온 동일한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즉 1) 『환단고기』는 1905년에 나철에게 전수된 〈삼일신고〉의 영향을 받

42) 이근철, 같은 논문, p. 103.

43) 이근철, 같은 글, p. 110~111. 괄호는 논자 첨가.

44) 이 글의 뒷부분에서 이근철은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종교 경전을 참고하면서 빨라도 1922-23년 사이에 간행된 『중경합부綜經合附』 이후의 것을 기준으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45)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전제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의 오류이다. 즉 〈삼일신고〉의 기원과 전래 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바탕으로 『환단고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해당한다.

았으므로 고대 사서가 아니다 라는 진술과 2) <삼일신고>와 『환단고기』는 둘 다 이전부터 내려 온 동일한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둘 다 위서라는 주장은 서로 양립되는 주장이 아니다. 즉 2번의 경우는 <삼일신고>도 『환단고기』도 모두 동일한 이전의(고대의 기록을 포함해서)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는 주장은 두 문서 모두 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단군세기』서문>은 <삼일신고>의 주석으로 평가된다.⁴⁶⁾라는 조남호의 분석은 논자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악의적으로 이 문장만 떼어 본다면 ‘『환단고기』 『단군세기』는 근대 위작인 <삼일신고>를 주석하고 있으므로 『환단고기』는 위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 뒤 문맥으로 추론해보면 조남호는 <삼일신고>가 전승된 고문 경전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고려시대 <삼일신고>를 본 이암이 『단군세기』 서문 작성에 참조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단군세기』와 『태백일사』가 내용과 문장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여 동일인의 저작으로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심은 『단군세기』와 『태백일사』가 동일인의 저작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환단고기』에서 말하듯이 그 두 책의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서의 증거라는 것이다. 즉 저자를 의도적으로 위조한 문서는 위서이므로 『환단고기』는 위서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논자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의도적 위서론이고 무조건적 위서론이다. 왜냐하면 『태백일사』 ‘발문跋文’에서 이맥은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상자에서 역사와 전기에 근거로 삼을만한 내용과 평소에 노인들에게서 들은 바를 채록한 원고 문치들을 편집하여 『태백일사』를 만들었다”고 하여 『태백일사』가 온전히 자신의 소산이 아님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암의 <『단군세기』 서문>과 이맥의 『태백일사』의 철학적 내용이 유사함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태백일사』가 이맥의 저술한 것이라고 한들 그 철학적 내용이 <『단군세기』 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해서 그 양자를 한사람의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맥이 발견한 고문서들의 소자출이 집안 조상인 이암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중교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의 교리가 전통 우주론과 신관, 철학관을 담은 『환단고기』 류의 고유 철학의 맥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면, 『환단고기』와 대중교는 그 선후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대중교는 홍암 나철에 의해 새롭게 창교된 것이 아니라, 백두산 신교 신앙집단으로부터 경전을 전수 받으며 증광한 것”⁴⁷⁾ 것이기에 오히려 대중교의 교리가 그 이전의 사상에 뿌리들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46) 조남호, 『『환단고기』와 <삼일신고>』, 선도문화 제9권, p. 49~50. 참조

47) 이근철, 같은 글, p.103.

IV. 맺음말

〈삼일신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대종교이다. 왜냐하면 그 전수과정에서 대종교를 중광한 나철이 큰 역할을 하였고, 그 후 대종교의 경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철은 항일 독립투쟁의 대명사이며, 2대 교주인 김교헌은 340칸의 대저택을 소유한 부호였으나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헌납하였고, 대종교도 백포 서일은 청산리전투에 큰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이다. 이처럼 대종교는 항일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앞장서면서 그 당시 애국 지식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대종교의 핵심교리는 단군신앙이며 신교이다. 보통 단군교에 뿌리를 둔 것이 대종교이기에 대종교의 신앙대상이 단군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종교는 민족 고유의 신앙체계를 전수받은 종교로서 상제를 주신으로 하고, 환인, 환웅, 단군을 삼위일체의 삼신으로 모시는 신앙단체이다. 대종교의 경전인 〈삼일신고〉라는 이름 자체가 삼일신, 삼신일체상제의 가르침을 뜻한다. 이러한 대종교의 색채에서, 그리고 〈삼일신고〉가 대종교의 경전이라는 점에서 〈삼일신고〉는 대종교가 단군신앙을 위해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단군세기』나 『태백일사』 등에서 〈삼일신고〉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환단고기』 위서론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 선후가 어찌되었던 강단사학계에 『환단고기』가 위서이면 〈삼일신고〉도 위서이고 위작된 〈삼일신고〉의 내용을 통해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위서라는 레벨을 붙인 사서들의 특징은 한국사의 위대함, 우리 고유 사상과 철학의 심오함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환단고기』나 『단기고사』, 『규원사화』, 〈천부경〉, 〈삼일신고〉 등을 위서로 모는 주요 원인이었다.

요즈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고사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역사인 셈이다. 그것들을 보면 우리 민족은 환웅이 다스렸다는 신시대에 이미 국력과 문화면에서 중국을 능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단군 왕검 때부터 중국의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걸치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우리 고대사학계의 연구 성과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학계에서는 『규원사화』, 『환단고기』를 무시하여 왔다.⁴⁸⁾

조인성의 이 말은 『환단고기』의 기록은 배달시대에 중국을 능가하는 ‘영광의 역사’이고 이는

48) 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1988, p. 2.

식민사관에 따라 반도사관을 주장하는 고대사학계의 연구내용과는 달라서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서들 대부분을 일제시대 대종교와 대종교의 신앙대상인 단군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위서론자들의 핵심 논점이다. 그런데 정옥재는 같은 위서론자이면서 “국수주의 유사역사학의 폐해와 관련하여 밝혀둘 점은 대종교와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의 3대 위서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종교와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의 3대 위서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⁴⁹⁾고 말한다.

논자가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드는 의문은 위서론자들의 위서에 대한 집착이 왜 이렇게 집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만일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한국사학계와 공존할 수 없는 『환단고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위서론자들은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와 『단기고사』는 근대에 만들어진 위서여야 했으며, 그 결과 위서로 낙인찍혔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이들 위서가 만들어진 동기를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만일 『환단고기』가 위서라면, 그러한 위대한 한민족을 기록한 역사서를 조작한 동기는 바로 일제하 핍박받는 민중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독립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민족주의’라는 것이다.⁵⁰⁾ 그들은 이를 아주 합리적 추론이라고 만족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서론자인 조인성은 이러한 합리적 추론에 반하는 엉뚱한 주장을 한다.

『규원사화』의 저술과 유포에는 친일적 성격의 단군교가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단고기』는 친일 경력의 소유자 이유평이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들은 내용적으로도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 지은 『단기고사』에서도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와 민족주의 사학과의 같고 다른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⁵¹⁾

민족주의 성격을 가진 위서에서 갑자기 친일적 역사관에 동조하는 위서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조인성은 『환단고기』가 위서는 맞는데 이에 ‘민족주의 위서’라는 상표를 붙이기는 아깝고 하니 일제 강점기 친일을 위한 위서, ‘친일주의 위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결국 위서론자들은 ‘민족주의인지 친일주의인지 헷갈리지만 『환단고기』는 무조건 위서다!’ 라

49) 정옥재, 같은 글, p. 162.

50)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이순근의 고조선은 과연 만주에 있었는가?, 조인성의 한말 단군계사서의 재검토, 이근철,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 박광용,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 이도학의 대종교와 근대민족주의 사학 등이다.

51) 조인성,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역사논총 55호, 2017. p. 296. 여기서 ‘독립운동가 출신이 지은 단기고사’라는 표현은 단기고사가 대진국 대야발의 조술이 아니라 일제하에 독립운동의 산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 외친다.

정재서 교수는 신화학자다. 그는 『환단고기』 진서론자도 위서론자도 아니다. 역사가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양심인 것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여러 고문서들이 민족주의에 바탕한 위서라는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환단고기』 등이 민족주의 진영에 의해 전면적으로 위조되었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일본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우월감이나 대항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하나 이 부분이 거의 없고, 외려 당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 책들 자체는 근대에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과거 중화주의가 군림했던 시기에 성립된 것이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⁵²⁾

논자는 〈삼일신고〉 위작설을 검토하면서 그 논조나 근거가 『환단고기』 위서론자들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했다. 〈삼일신고〉가 대종교의 경전으로서 민족자긍심을 위해 만들어 졌다는 위작설이나 『환단고기』 위서론에 기댄 위작설, 그리고 대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채호가 위서라고 했으니 위작이라는 주장 등은 〈삼일신고〉를 위작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들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천부경〉이 단군교에 전해진 과정도 그렇지만 〈삼일신고〉가 나철에게 전해지는 과정 역시 굳이 그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논자가 보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나철에게 〈삼일신고〉의 내용이 단군신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리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또 〈삼일신고〉를 전승된 경전으로 만들기 위해 발해의 대조영이나 문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조작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통성과 신교적 신앙심을 강조하는 대종교의 교리로 볼 때 불가능하다.

신채호가 위서라고 하였으니 위서라고 믿는다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내용 전체를 다 신뢰해야 할 것인데 위서론자들은 오히려 그 지점에서는 신채호를 불신한다. 『환단고기』 위서론에 기댄 〈삼일신고〉 위작설이나 〈삼일신고〉 위작설에 기댄 『환단고기』 위서론이나 위서론으로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삼일신고〉도 『환단고기』도 모두 고대에 전승된 사서로 주장되거나, 고대 사서에서 발원한 사서이거나 사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에서든 종교에서든 역사에든 위서 논쟁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분석과 연구를 통한 문서검증은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 위서론일 때 고증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논자는 삼일신고 위작설을 인정할 수 없다.

52) 정재서, 「『환단고기』의 신호 도교적 상상력」, 중국어문화지 제45집, 2013. p. 10.

참고문헌

단행본

- 대야발, 『단기고사』
-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서울: 기린원, 1991.
-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 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경주: 환국, 2016.
- 정훈모 저, 조준희 역, 『단재 정훈모 전집 1』, 2015. 서울: 아라,
- 정진홍, 『단군교부흥경략』, 계신달, 1937.
- 최동환,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2000.

논문

- 권덕영, 「위서 제왕연대력의 발견과 그 의미」, 『사학연구』 제75집, 2004.
- 박병채, 「〈천부경〉수용과 철학적 이해」,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유철, 「〈천부경〉 위작설비판」, 『세계환단학회지』 6권1호, 세계환단학회, 2019.
- 이근철,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 『선도문화』 제16권, 2013.
- 이도학, 「역사를 오도하는 상고사의 위서들」, 『세계와 나』 1990. 11월호, 세계일보사, 1990.
- 이숙화, 「일제강점기의 〈천부경〉 연구」,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찬구, 「〈삼일신고〉에서의 하늘과 하느님의 관계」, 『선도문화』 제3집, 2008.
- 정육재,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 『역사문제연구』 39집, 역사문제연구소, 2018,
- 정재서, 「환단고기의 신호 도교적 상상력」, 『중국어문화지』 제45집, 2013.
- 조남호, 「『환단고기』와 〈삼일신고〉」, 『선도문화』 제9집, 국학연구원, 2010.
- 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1988.
- 조인성,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농북아 역사논총』 55호, 2017.

Critic of theories of forgery involving Samilshingo

You Chul(Sang-Sea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Because the Samilshingo and Cheonbugyeong appea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was much controversy over their authenticity. There were claims that both scriptures may have been created in connection with Daejonggyo's Dangun faith as their emergence process was related to Daejonggyo, and that they were created to awaken the nation's historical pride during a period of oppression by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a so-called forgery theory. If the forgery theory has this basi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forgery theory or forgery theory from spreading further through logical and factual criticism. After reviewing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versions of Samilshingo, I examine various forgery theories and criticizes the logic and basis of the forgery theories to reveal that the forgery theory itself was intentional.

Keywords : Samilshingo, forgery theory, Daejonggyo, Shin Chae-ho, Hwandan meat, nationalism

고조선의 첨단 과학기술

이명우(운릉도서관·운릉역사문화포럼)

- I. 서론
- II. 본론
 1. 최첨단 토목기술로 건설된 고인돌
 2. 청동기 금속공예 기술
 3. 주철 제련 기술과 강철 생산
 4. 초정밀 청동주조 다뉴세문경
 5. 세계 유일의 초정밀 금공예 제품
- III. 결론

I. 서론

『삼국유사』에 ‘단군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고 아사달에 도읍하여 나라를 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민족 최초 국가인 ‘조선’, 즉 ‘고조선’은 단군왕검의 조선으로부터 변조선의 기준箕準이 멸망할 때까지 2139년을 이어온 국가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왕조가 이집트 왕조(2818년)이고 두 번째로 긴 왕조를 유지한 국가가 고조선이다. 세 번째는 로마제국으로 1480년간 존속하였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건국 후 천 년 이상 나라가 유지된 예는 극히 드물다. 또한 아시아에서 여러 민족이 나라를 세웠고, 중국 역시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러 이민족의 나라로 교체되며 이어져 왔으며 그 국가들이 250년 이상 존속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볼 때 2139년을 존속한 고조선은 동북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닌 강대국이었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종류의 사서史書가 삼국시대와 고려 및 조선시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3차에 걸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정치 사정으로 거의 다 멸실되고 현존하는 것이 별로 없어 고조선의 역사를 바로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해방 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고조선의 역사를 고조선의 건국이야기를 기록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기초하여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환웅의 신시배달과 단군왕검의 고조선의 실존적 역사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해놓았다. 이렇게 교과서에 고조선의 역사적 내용이 거의 없다면 하게 된 주요 원인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고조선의 사서가 타국의 외침과 조선시대 정치적 이유 및 일제의 식민지배에 의한 고대 사서의 망실이다.

제1차 고대 사서의 망실 시기는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한 때이다. 고구려는 태학박사들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뿌리인 고조선시대부터 고구려초에 이르는 약 2,300여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유기』 100권을 편찬하였다. 이어서 『신집』 5권과 『신지비사』 등 사서와 중요 문헌들이 있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고조선의 사서 등 고전문헌을 다 수거하여 소각함으로써 고구려의 뿌리인 배달국과 고조선, 부여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된 계기가 되었다.

백제도 근구수왕 원년(375년)에 박사 고흥이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국사 『서기』를 저술하였다고 하며, 『단군기』·『해동고기』·『삼한고기』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고 사서의 이름만 겨우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에는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역사서로서 『삼성기』·『신라고사』·『화랑세기』·『제왕연대력』·『부도지』 등이 있었고 발해는 『단기고사』·『조대기』가 있었고, 고려때는 『삼국사기』·『삼국유사』·『삼성기』·『제왕운기』·『고조선비사』·『단군세기』·『진역유기』·『삼성밀기』 등의 고조선 관련 역사서가 조선초까지 전해내려 왔다.

제2차로 잔존 고대 사서의 망실 시기는 조선 세조때로서 조선초기 사대주의 훈구학과 대신들이 세조에게 고조선 관련 서적의 수거를 건의하였고 이에따라 왕명에 의하여 1457년 대대적으로 관가와 민간에 있던 고대 사서를 수거를 하였고 이 책들을 간직하여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고조선이 중국 보다 우월한 문화와 영토를 가졌고, 중국이 자기나라 최초 국가라고 하는 하(夏)와 상(商)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로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하고 지금 조선이 명나라 제후국이라는 정치적 동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수거령으로 조선초때까지 있었던 고조선 역사서인 『고조선 비사』·『대변설』·『조대기』·『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삼성밀기』·『삼성기』·『표훈천사』 등이 멸실되었다.

1469년 예종때는 이 수서령을 어긴자는 참형(斬刑: 지금의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수거령 때문에 고대 사서가 대부분 관청에 수거 되거나 멸실되었다. 이러한 예종의 수거령은 3개월후 성종이 즉위한후 폐지하였다.

제3차로 그나마 조선 말기까지 남아 있던 고대 사서의 망실은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 조약을 맺음으로서 조선총독부가 경성에 설립되고 총독이 조선을 통치하게 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1년 2개월동안 일본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한제국 규장각과 전국 관공서 및 지방의 향교, 서원, 서당과 권문세가의 고택을 급습하여 그곳에 보관된 단군관련 사서와 도가(道家)서적 및 중요 문헌 등을 탈취하였다. 이때 수거된 문헌서적이 약 51종 20만권으로 일부 중요 서적은 총독부에 이관하고 나머지는 소각하였다.

또한, 총독부는 1916년 1월 “조선반도사편찬사업” 확정하고 이의 준비작업이란 명목으로 총

독부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1918년말까지 조선 전국의 관공서와 향교, 서원 및 고택 등을 뒤져서 귀중한 문헌들을 탈취하였다. 이어서 1922년 ‘조선사편수회사업’을 착수하면서 1938년 3월 조선사편수회사업이 종료될때까지 15년간 조선반도와 만주 및 대마도에서 수집한 조선 역사서가 총 4,950권이고 그 외에 사진 4,510매, 문권·화상·고지도·편역이 453점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편수회에의하여 그나마 남아 있었던 우리나라 고대의 사서가 거의 절멸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사서는 『삼국유사』·『제왕운기』·『규원사화』·『단기고사』·『환단고기』 등 몇 종류만 남아 있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고조선의 역사서도 강단사학계에서 위서라고 하여 고조선의 2139년의 상세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 각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에의하여 고조선의 지표유물인 고인돌과 무덤들을 발굴함으로써 고조선의 청동기 및 여러 유물들이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고 또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동안 발표되고 박물관에 전시된 고조선의 유물 중에는 고조선의 첨단 과학기술에의하여 제조된 것들이 있어 이러한 고조선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어 강대국 고조선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최첨단 토목기술의 고인돌, 청동 및 제철 제련기술, 최첨단 청동 및 금 세공기술 등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II. 본론

1. 최첨단 토목기술로 건설된 고인돌

4만 년 전부터 인류의 조상들은 동물에서 진화되어 의식세계를 갖게됨으로서 자연이 만든 대지와 모든 만물을 경외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연이 만든 사람과 닮은 거대한 바위라든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대한 솟은 바위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였다. 원시 부족사회가 형성되어 자손의 번창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여 숭배의 대상이된 남근석(男根石)과 마을 어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입석(立石) 또는 돌장승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근석과 입석 또는 돌장승이 문명의 태동과 함께 거대한 석조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운악산 남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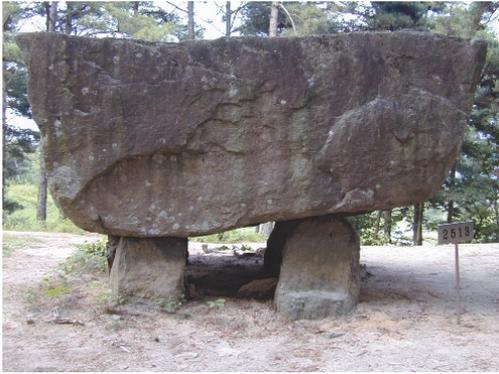


돌 장승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석조문화는 고인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고조선의 청동기시대에 고인돌(Dolmen)이 가장 먼저 시작 되었을 것이다. 청동기문화를 공유하게된 신석기시대 중반에 들어와 주거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죽었을 때 정치와 종교적 측면에서 주검을 땅에 묵고 고인의 내세 영생(永生)과 남은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매장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매장 의식은 점차 부족사회의 권력에 의하여 권력자의 주검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흙에 매장하는것에서 발전하여 돌을 사용하여 서기전 5000년 전부터 거대한 돌무덤이나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고대 민족인 동이족(東夷族)들도 돌을 사용하여 인간의 주검을 보호하는 장례 문화가 이어져 왔다. 동이족들이 시신을 매장할 때 아시아의 다른 민족과 달리 주로 돌을 갖고 무덤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돌무덤(石墓)이다. 돌무지무덤(적석총), 등 여러 종류의 돌무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무덤(지석묘)이다.

1998년 10월 고창군에서 열린 고인돌 축제에서 KBS 역사스페셜팀이 전문가의 고증을 토대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재연했다. 커다란 평평한 덮개돌을 골라 크기를 재어 무게로 환산하니 약 9,800Kg (9.8톤)이나 되었다. 이 돌을 고대의 전통적 운송방식으로 바닥에 통나무를 여러개 깔고 돌을 그위에 올려 놓고 밧줄로 묶어서 85명의 장정이 인력으로 끌어서 70m의 행사장으로 옮기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 고인돌은 크고 거대한 판돌로 덮개석의 받침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조물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므로 간단히 주먹구구식으로 축조할 수 없다. 돌방의 긴 두 벽을 이루는 받침돌은 무거운 덮개돌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도록 구멍이도 깊게 뚫으며 덮개돌이 전체 구조물 무게 중심에 있도록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올려 놓았다.



남방식 고인돌(고창)



북방식 고인돌(만주 개주시 석봉산)

고인돌 축조 공사는 현대의 토목·건축기술로 보아 정교한 구조 설계와 역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대규모 토목 공사이다. 고창 운곡리에 있는 고인돌은 높이 4m에 무게가 297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이다. KBS에서 실험한바에 근거하면 297톤의 고인돌 상판을 움직일려면 약 3,000명 이상의 인력이 끌어 당기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인돌을 축조한 고조선의 토목 건설 기술자들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토목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십톤에서 3백톤에 가까운 거석을 2개의 작은 판석위에 올려 놓아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사전에 고인돌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상판 고인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쌓아 놓은 흙더미 위로 끌고 올라와서 고인돌을 놓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만약 쌓아 놓은 흙더미를 다치우고 난후에 고인돌의 무게 균형이 안맞으면 2m정도 솟아 있는 판석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 고조선인들이 고도로 발전된 토목 및 석조 건축기술을 갖고 있었음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남아 있는 많은 지역의 거대한 고인돌이 증명하고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토목 및 석조 건축 기술면에서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2톤 정도의 사각형 판석을 무너지지 않게 넓게 그리고 삼각형으로 좁혀가며 차곡차곡 쌓는 것으로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반 석축 쌓는 공사와 같다.

우리나라 고인돌 무덤은 약 3000년전 부터 2000년 사이인 고조선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 졌다. 전세계에 분포된 고인돌이 약 80,0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50,000개가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와 요동지역의 고조선 영역에 있다.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북한의 황해도 은율과 평양 등 대동강 유역에 1만 4000여 기가 있고, 전남 화순과 고흥 및 강화도에 2만 4000여 기가 있다. 특히 전북 고창 선운사 부근에는 2,000여 기가 밀집되어 있고 고인돌 공원과 박물관이 있다. 고인돌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금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고창, 화순과 강화도의 고인돌이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인돌 상판 운반

거석 유물이 많다는 아일랜드조차 고인돌이 1500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그 숫자면에서 세계 제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볼 때 우리나라가 거석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로 건축된 우리나라의 고인돌 유적은 우리들이 소중히 보존해야 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거석문화이다.

2. 청동기 금속공예 기술

우리나라는 서기전 2,700년경 환웅천황이 개국한 환국(桓國)의 치우천왕 시대에 청동기로 무기와 마구 및 농기구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환단고기> 및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 기록에 남아 있다. 고조선 영역인 중국의 발해연안 북부 하북성 당산시 대성산 유적지와 한반도 여러 지역의 고인돌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기(靑銅器)로 연대를 고증한 결과에 의하면 서기전 10세기 전후의 청동기 시대를 금속공예가 시작된 시기로 본다. 청동기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동검, 동경(청동거울), 마구나 제사 의기 등의 금속 공예품이 삼국시대에 와서 세련되고 미적으로 완성된 귀금속 제품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제 세공품으로서 평양 석암리 9호 고분에서 출토된 2세기경 마한의 금제 띠고리나 신라백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과 금귀고리, 금팔찌, 곡옥, 유리 제품 등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금 세공과 보석 가공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신라 천마총의 금관과 새 모양의 관식(모자의 장식),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 등을 보면 금세공 기술에서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Persia)보다 몇 곱절 더 우수한 귀금속 세공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고대의 청동 제품과 귀금속 등의 유물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고도의 세공 기술로 만들어진 예술품들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귀금속·보석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금속 공예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고대 선조로부터 수천 년 간 이어져 내려온 금속공예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청동기시대부터 금속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해서 사용해 왔으며, 가공에 따라 제품의 실용성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공예품부터 산업용품까지 광범위하게 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금속이란 고대부터 오금(五金)이라 하여 금, 은, 동, 철, 주석을 말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금속의 기본 재료이다. 인류는 이 기본 금속 재료에 아연, 규소, 인, 유황 등의 첨가제를 섞어 용도에 따른 적절한 합금을 만들어 사용했다. 금속은 색채, 광택과 질감에 따라 아름다움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에 있어서도 단단한 성질과 재생 가능한 성질, 열에 대한 내성과 전도성, 쉽게 파괴되지 않는 보존성 등이 있고, 석재나 목재 등 타 재료에 비해 경제성이 입증되어 인류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금속은 생산과 가공의 어려움이 많아 금속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잘 알고 적절히 이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금속의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인 열을 가하면 용해하는 점을 이용해 주조(鑄造) 기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드리면 늘어나는 특성을 활용한 단조(鍛造) 기법에서 파생한 타출(打出) 및 압출(壓出) 기법이 응용되었다.

이런 기법 외에도 금속을 꿰뚫거나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가공 기술인 선조(線彫)·어자문(漁子文)·상감(象嵌)·투조(透彫)기법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속공예 기술은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상감 금속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아름다운 한민족 금속공예 문화를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의 부족사회는 가공이 어려운 마제 석기를 사용하다가 청동기의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똑같은 물품을 다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용의 편리성과 기능의 우수성 때문에 무기나 농업 기구가 모두 청동기 제품으로 발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제조 기술의 미비로 매우 거칠은 상태의 주조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였지만 점차 제조와 공예 기술이 향상되었다. 서기전 10세기경부터 고조선이나 중국의 주(周)와 춘추전국시대에 청동으로 제작된 예기(禮器), 병기(兵器) 및 농업과 생활 용품 등의 대량 보급에 의해 약 1600년간 청동기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각종 금속공예 기술이 발전했고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 신라 시대에 화려한 금속 공예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리는 손으로 휘수 있을 정도로 약한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이나 물질을 섞어서 굳은 합금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청동이란 흔히 구리(Copper, 銅)에 주석(Tin) 또는 비소를 넣은 합금이

다. 구리에 주석을 10%정도 섞으면 구리는 굳어지면서도 원래의 유연성이 남아 있어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칼 같은 무기에 적합하다. 주석을 20~30%로 올리면 백동이 되어 강철처럼 강도는 높지만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거울 같은데 쓰인다. 그리고 진유(眞鍮)·황동(黃銅)으로 불리는 금속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며, 우리나라의 놋그릇도 이에 속한다.

청동은 합금 비율에 따라 금속의 성질이 달라진다. 청동기 제품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합금 제조 기술, 즉 주조 기술이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금속 가공 기술이 달라져 왔다. 합금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녹여서 섞어 만드는 제련 기술인데 그 당시 두 종류의 기술이 사용되었고 이 제련 기술로 여러 가지 청동의 합금이 가능해졌다.

첫 번째 기술은 합금에 이용할 각각의 금속을 녹여서 이를 한 개의 통 속에 넣어 섞어서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련된 금속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녹이는 방법이다. 대체로 두 번째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들 금속을 녹이는 기구를 도가니라고 부른다. 선사시대의 도가니가 직접 출토된 것은 없으나 경주 안압지에서 신라시대의 도가니가 출토된 예가 있다. 청동제품은 만들고자하는 용범(鑄范: 금속 제품을 만드는 틀로서 거푸집이라 부른다)에 도가니에 녹아있는 쇠물(합금 용액)을 부어서 주조한다. 우리나라 청동기의 주조에는 돌을 가공하여 만든 석형(石型), 밀납(蜜蠟)으로 만든 납형(蠟型)과 흙으로 만든 토형(土型) 등이 사용되었다.

석형은 돌이 물러서 잘 파지는 활석(滑石)이나 편암(片岩)으로 만든 용범이 전해지고 있다. 전남 영암이나 경기도 용인과 평양 부근에서 출토된 용범은 동경, 동도끼, 동검 등의 청동 제품을 주조하는 거푸집이다. 이것은 두 개의 활석판 양면에 원하는 기구의 원형을 새겨서 위·아래 한 조의 틀로 된 것으로 제품을 양산하는데 사용했다. 칼이나 도끼 등은 양면이 같기 때문에 석형으로 주조가 가능했지만 동방울 등은 용범의 내부와 외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흙으로 구워 만든 토형을 사용하였고 주조가 완성되면 토형을 부셔서 제품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동제품의 겉 문양이 좀더 정교한 장신구나 의기(儀器)의 고리 등은 밀랍을 이용한 납형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 용철로와 도끼 석형 용범

납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벌꿀이 만든 밀랍과 소나무 송진으로 된 송지(松脂)를 섞어 만든 재료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만들고자하는 제품의 모양을 빚고 그위에 문양을 세겨서 동점자루 같은 밀랍 제품을 만든다. 이 밀랍 제품 양쪽에 쇠물을 붓는 주입구와 쇠물이 흘러 들어가기 쉽도록 홈을 파주고, 또 가스 배출구를 빚은 다음 그 주위에 고온 흡으로 반죽한 걸쭉한 진흙을 바르고 다시 거친 진흙을 두껍게 덮어서 건조시켜서 만든 토형 거푸집을 납형이라 한다. 이렇게 굳어진 거푸집 토형에 열을 가해 안에 있는 밀랍이 녹아 나오면서 생긴 공동부를 식힌다. 그리고 이 토형의 쇠물 주입구로 도가니에 녹아있는 쇠물을 부어 넣어서 식힌 후, 토형을 부셔서 원하는 청동기 제품을 만들어 내는 식이다.

토형이나 밀랍형의 용범은 용범 한 개에 물건 한 개 밖에 만들 수 없고, 밀랍 재료도 상당히 귀한 고가라서 이런 용범으로 만든 의기나 장신구는 자연히 왕과 왕족, 권력자 및 제사장들이나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청동방울인 국보 146호 팔수형동령(八手形銅鈴)은 기원전 3~2세기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강원도에서 출토되었다. 이 청동방울은 밀랍형 용범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청동기인데 중앙에 있는 8개 방향의 광채형태를 중심으로 이 광채에서 방울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과 같은 4종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이 청동방울은 아마도 최고 권위의 제사장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거나 왕이 국가의 의식에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국보 팔수형동령 청동제품



금동 용머리 장식

청동기시대 금속공예 기술은 토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범의 표면에 선(線)을 긋거나 문자 또는 구멍의 흠집을 내는 아주 초보적인 주조 기술에 의해 시작되었다. 청동기 주조 제작 공정 중에서 쇠물이 잘 흐르지 않아 제품에 빈 곳이 생겼을 때, 다시 쇠물을 붓거나 철판을 두드려 때우는 방법이 시도되어 자연스럽게 초보적인 상감(象嵌)기법을 알게 되었을 것 같다. 이로 인해 금속공예의 기법이 쇠물을 부어 만드는 주철(鑄鐵)과 쇠를 두드려서 만드는 단철(鍛鐵)기법에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철을 정련한 강철(鋼鐵)을 작업 공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각종 조금(彫金)기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화려한 금속공예 기술을 꽃피우기에 이르렀으며 청동기의 상감 기법은 나중에 도자기의 상감기법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하고 성행하게 되었다.

금제, 은제, 금동제의 장신구에 사용되는 금속공예는 재료를 얇게 펴서 만든 판금(板金)에 투조 및 선각, 누금 세공, 도금(鍍金)의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마구(馬具)와 무구(武具) 중에는 구조에 의한 제작과 조금기법을 이용한 장식이 돋보이며, 생활기구에 있어서도 역시 주금과 단금기법, 그리고 조금과 도금 등이 골고루 이용되었다.

3. 주철 제련 기술과 강철 생산

중국인 덩인커의 『중국고대발명』에 의하면 고대의 주철 제련 기술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역은 중앙 아시아였으나, 용광로가 매우 작고 바람을 불어넣는 힘도 약해 해면철(海綿鐵)을 제련하는 정도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중앙 아시아에서 전파된 철기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춘추전국시대 말부터 제철 기술이 시작되었는데, 수직 용광로가 주철을 제련하는 주요 설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漢)나라에 이르러 국가가 경영하는 제철 작업장의 기술이 더욱 정밀해지면서 주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조선은 중국보다 더 빠른 시기에 독보적 기술로 수직 용철로를 개발해 다양한 주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굴한 서기전 7~5세기로 추정되는 무산 범의구석 유적 제5호분에서 발굴된 쇠도끼를 실험분석한 것에 의하면 완전히 녹은 상태의 선철로 주조한 것이다. 또한 서기전 4~3세기로 추정되는 같은 유적지에서의 철유물이 강철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철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를 서기전 6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은 자연계에 가장 많이, 그리고 널리 분포되어 있는 금속의 한 종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 기술은 구리 및 청동 주조 기술보다 늦게 알려졌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통 철의 녹는점이 구리나 청동보다 높고 야금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철은 탄소의 비율에 따라 크게 연철(鍊鐵), 강철(鋼鐵), 주철(鑄鐵)로 나뉜다. 철광석은 청동기 주물 제작에 필요한 800℃ 내외에서 녹기 시작한다. 여기서 조금 높아진 1,000℃ 내외의 열로 뽑아낸 철이 연철이다. 연철은 탄소가 0.01% 미만으로 거의 환원철 상태인데다 불순물이 채 녹지 않아서 순도가 낮기 때문에 단단하고 실용적인 철기를 만들기에 부족하다.

철의 녹는점을 1,539℃라 하는 것은 순철(純鐵)의 녹는점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계에

흔한 산화철은 700~800℃에서부터 산소가 빠져나가는 현상, 즉 환원이 시작된다. 용철로의 온도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철의 환원은 급속히 끝나고 탄소를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져 1,200℃에서 액체 상태로 변해버린다. 용철로에서 1,200℃ 이상의 고열로 철광석을 녹이면, 액체 상태에서 탄소 함량이 2% 이상 되는데 이를 선철(銑鐵) 또는 주철이라 한다.



고조선 시대 철검

선철은 액체 상태에서 주형틀을 이용해 도끼나 솔 같은 주조품을 만들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칼을 만드는 강철은 1,500℃ 정도의 고온에서 연철에 2% 이하(보통 0.7~0.8%)의 탄소를 가하거나, 선철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낸다. 탄소가 적은 연철은 탄성이 높은 반면에 아주 무르며, 탄소가 많은 선철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부러지기 쉽다. 그러나 연철과 선철의 중간 정도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강철은 탄성과 강도가 모두 높아 무기나 도끼 등 강도를 요하는 생활도구에 적합하다.



고조선의 철제 농기구와 도끼

선철은 보통 백색 주철과 회색 주철로 나뉘는데, 백색 주철은 탄소가 탄화물로 결합되어 흰빛을 띠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반면 회색 주철은 탄소가 흑연의 형태로 포함되어 겉면에 퍼져 회색 빛을 띠고 있다.

백색 주철은 다시 탄소 함유량에 따라 아공정 백색 주철(탄소 2.0~4.2%), 공정 백색 주철(탄

소 4.3%), 과공정 백색 주철(탄소 4.4%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쇠도끼들의 금속 조직은 백색 및 회색 주철이다. 기원전 7~5세기로 추정되는 세죽리, 운성리 등 북한의 고구려 영역에서 출토된 칼과 도끼 등은 백색 주철이다.

특히 서기전 6세기를 전후한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질 좋은 강철인 백색 주철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제련기술을 개발했다. 강철 제품의 탄소 함유량은 0.15~1.55% 사이이며 규소, 인, 유황 등의 함유량도 선철 제품보다 훨씬 낮다. 강철은 탄소 0.25% 이하의 극연강(極軟鋼)에서 탄소 1.0% 이상을 포함하는 극경강(極硬鋼)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재질로 나뉘는데, 당시에 출토된 칼과 도끼 등을 분석한 결과 강철 제품은 연강과 경강(구조용강과 공구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원전 3~2세기의 세죽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도끼 등의 강철은 강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대 제강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열처리하여 단조(鍛造)한 강철은 조직이 세밀해지고 탄성과 강도가 높아져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제품이 된다. 그래서 백병전에서 일반 주철로 만든 칼과 부딪칠 때, 열처리 강철로 만든 칼은 주철 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고조선 시대에 강철을 열처리하여 칼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조선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항하여 막강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한 강대국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의 장검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칼이 유명한 이유도 모두 수십 번의 열처리와 단조를 거쳤기 때문이다.

특히 철을 제련하는데 있어 용철로의 크기와 풍무(풍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서 발견된 서기전 2세기경의 용철로는 규모가 작고 구조도 간단한 연철로여서, 주철 기술에 있어 유럽은 동양에 700년 정도 뒤진 것으로 판명됐다. 유럽에서 선철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이며, 선철로부터 강철을 얻는 제련법이 개발된 시기도 대략 이 시기라고 한다. 그 이전에 사용된 강철은 연철을 단조하여 얻었던 것이다.



주철을 열처리·단조하는 과정

중국의 덩인커는 그의 저서 『중국고대발명』의 「강철제련과 철기제작」에서 유럽에서는 중국보다 2,000년 후에 백색 주철이 발명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주철 유화 기술은 중국 고대 강철 산업에서 또 다른 중대한 발명이다. 주철은 제련한 후에 잘 부스러지고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단조하여 우수한 철기로 만들기에 부적합하다. 열처리 온도와 방법을 달리하면 단조 철기에 적합한 주철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주철에는 백심가단주철(백색 주철)과 흑심가단주철(회색 주철)의 두 종류가 있다. 백심가단주철은 비교적 높은 경도와 강도를 갖고 있으며, 흑심가단주철은 충격에 강한 성질을 갖고 있다. 백심가단주철은 프랑스인이 1722년에 발명하여 ‘유럽식 가단주철’이라 부르고, 흑심가단주철은 미국인이 1826년에 발명한 것으로 ‘미국식 가단주철’이라 부른다.”

또한 중국은 기원전 3세기경에 세계 최초로 가단주철을 만드는 제조기술을 발견하였다고 하며 한나라에 이르러 국가 주도하에 주철을 대량 생산하였다고 로버트 템플의 저서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고조선 사람들은 기원전 수백 년경에 이미 연철과 선철은 물론이고 강철까지 제련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이는 고조선 사람들의 철에 대한 지식과 가공기술이 대단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과학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한 ‘덩인커’나 ‘로버트 템플’은 주철 제조기술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최근 우리나라 남·북한의 고대 유물 발굴에 따른 청동기나 철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 보고서나 유물을 직접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저자의 오류는 우리나라가 고대 과학기술에 대해 국내 및 세계에 홍보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 하겠다. 고분 발굴에 따라 출토된 철제 유물에 의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대 고증으로 보면 고조선은 중국보다 300년 앞선 기원전 6세기경에 이미 세계 최초로 백색 주철과 회색 주철 제조기술을 발명하여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고조선 시대의 다량의 철 생산은 농경에 필요한 혁신적인 농기구의 발명으로 이어져 농업이 발전되고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청동 무기에서 철제 무기로의 전환은 주변 부족사회를 무력으로 통합해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은 팔조금법(八條禁法)의 법치를 통치 수단으로 하는 확고한 정치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철제 무기를 갖춘 군대를 이용해 요하 지역에서 요동 서북쪽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하여 대제국을 이루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250년을 전후하여 흥망을 거듭한 것에 비해 고조선은 2000년간 대제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4. 초정밀 청동주조 다뉴세문경

여러분들이 지금 확대경 없이 육안으로 보면서 직선자와 가는 연필로 1mm 폭내에 0.3mm

직선 3개를 그을 수 있는가? 아마도 확대경이나 컴퓨터로 CAD 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만약 2400년 전 고조선시대에 1mm 폭내에 0.3mm 직선 3개가 그려진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었다면 아마도 그 시대에 우주인이 갖고온 유물이라고 생각이 들것이다.

우리나라 고인돌(Dolmen) 무덤은 약 3000년전 부터 2000년 사이인 고조선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 졌다.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의 고인돌 유적지 발굴로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마제석검, 비파형 동검, 활촉, 방패, 마구류, 수레부속, 도끼, 농경기구 및 동경, 각종 장신구 등 생활 용품을 발굴 할 수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문화를 찾게 되었다.



고조선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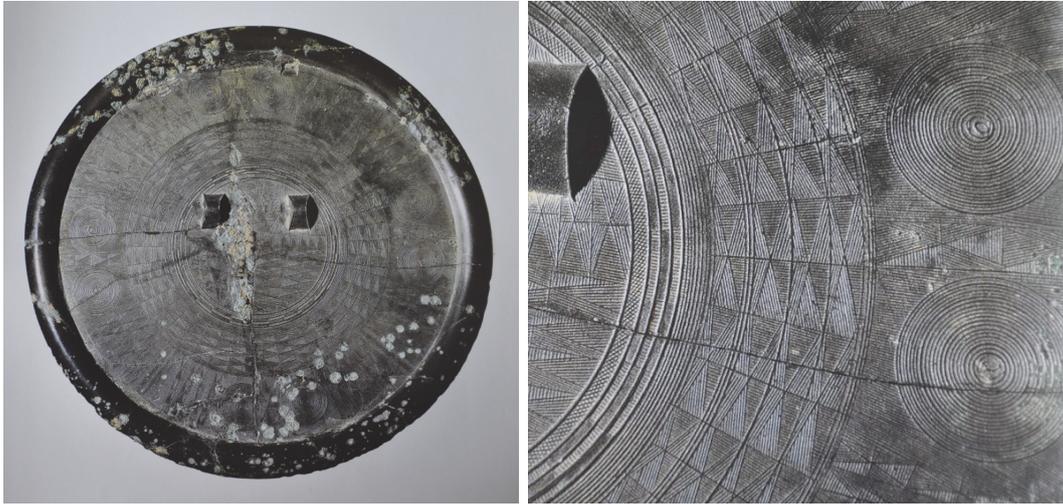
중국 한나라 동경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중에는 가는 직선과 원형 등이 동경 뒷면에 조각되어 있어 세문경이라 부르는 동경(銅鏡: 구리거울)이 있는데 이 세문경은 유독 한반도에서만 출토되었으며 그 수가 약 30개 정도이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쳐 그 당시 사용된 동경은 모두 거울 뒷면에 조각하기가 쉬운 꽃이나 아름다운 문양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토되어 숭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뉴세문경은 지름 21.2cm 크기로서 현존하는 세문경 중 가장 정교한 것이다. 이 다뉴세문경이 나노기술에 가까운 초미세 기술로 주조된 유물로 확인되어 1971년 12월 21일 국보 제141호로 지정 발표된 이후 역사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2400년전의 제작기법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9년도에 박물관 최병현 관장은 지름 21cm인 다뉴세문경의 거울 뒷면이 1만3000여개의 선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이에대한 도면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박물관 측은 “1mm에 3개의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실측이 불가능하고 사진을 토대로 하는 도면화에

도 한계가 있었다”며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 기본 형상을 조합하고 일러스트레이터 및 폴리웍스로 드로잉을 실시한 결과, 8개월 만에 도면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국보 다뉴세문경과 400배 확대된 13,000개 문양

현대 첨단 과학기술로도 아직까지 온전한 복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 제작 기법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특히 철기 시대도 아닌 청동기 시대에 이와 같은 정밀하고 가는 선의 문양 거울을 만든 것은 놀라운 일로 여겨진다. 우리가 보통 초정밀 미세분야의 제조 제품을 얘기하면 바로 반도체를 떠올린다. 지금부터 약 66년 전인 1948년 미국 벨연구소가 최초로 발명한 반도체에는 5제곱센티미터에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었다. 1958년 잭 킬비(Jack Kilby)에 의해 집적회로(IC)가 발명된 이후, IC칩 위에 올라가는 트랜지스터 또는 기능 소자(素子)의 숫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VLSI(대규모집적회로)가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초에 1제곱센티미터 크기에 1000개(1K)의 소자를 올린 칩이 개발된 이후 21세기 들어서면서는 기가(G), 즉 10억 개 이상의 소자를 한 개의 칩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칩 하나에 올라가는 소자 숫자의 증가는 각 소자의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가능했다. 최소 선폭의 길이가 1960년대 처음에는 수십 밀리미터(mm) 단위였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 마이크로미터(0.001mm) 단위로, 1980년대에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던 반도체기술이 21세기 들어 0.1마이크로미터(즉 100나노미터)의 벽을 넘어서면서 나노(10억분의 1미터)의 시대가 열렸다.

2400년 전 고조선이 만든 다뉴세문경의 선폭이 0.3mm라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바로 나노기술 수준이다. 확대경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처음 발명되었는데 2400년 전 어떤 기술로 청동 거푸집에 1mm 선 간격 0.3mm의 직선과 원형 선들을 조각하여 청동거울을 주조하였는지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2400년 전 그 당시 문명국이라 자랑하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나 그리스 및 페르시아에서도 만들 수 없는 기술이다.

5. 세계 유일의 초정밀 금공예 제품

한반도의 금속공예 역사의 시작은 아마도 기원전 10세기 전후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동검(銅劍), 동경(銅鏡), 마구(馬具)나 제사의기(祭祀儀器) 등의 금속 공예품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와서 세련되고 미적으로 완성된 귀금속 제품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제 세공품으로서 평양(平壤) 석암리(石岩里) 9호 고분에서 출토된 2세기경 마한(馬韓)의 금제(金製) 띠고리나 신라(新羅)·백제(百濟)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金冠)과 금귀고리, 금팔찌, 곡옥(曲玉), 유리 제품 등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금 세공과 보석 가공 및 유리 제조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신라(新羅) 천마총(天馬冢)의 금관(金冠)과 새 모양의 관식(冠飾: 모자의 장식), 부여(扶餘)에서 출토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 등을 보면 금세공 기술에서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Persia)보다 몇 곱절 더 우수한 귀금속 세공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고대(古代)의 귀금속과 보석 등의 유물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고도의 세공 기술을 요구하는 귀금속·보석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선조들의 금속공예 DNA 속에 이어져온 놀라운 세공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청동기시대부터 금속(金屬)은 제작과 가공에 따라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응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공예품부터 산업용품까지 광범위하게 각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금(金)은 그 아름다운 색깔과 희귀성으로 인하여 문명의 발상과 함께 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다. 자연적으로 금은 지상이나 지하에서 유물로 발굴될 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금이 단일 원소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로 금은 1g으로 0.6 평방미터까지 얇게 할 수 가 있고, 가는 실로 만든다면 2,800cm까지 늘리 수 있다. 따라서 금은 공예품으로 만드는데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왕수(王水)이외에는 녹지 않고 산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합금이 용이하여 도금이나 금박(金箔), 니금(泥金)에도 많이 이용된다.

금의 이런 특성 때문에 금속공예에서 청동이나 타 금속제품에 도금을 하거나 조금(彫金)기법으로 제작에 이용되고, 늘어나고 자르기 쉬운 특성과 잘 녹는 특성 때문에 판금가공과 투조(透彫) 및 상감기법에 많이 사용되었다.

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신(神)의 영광에대한 표현으로, 또는 사후세계의 장식으로 한반

도에 많은 영향을 준 스키타이(B.C 7~2세기)나 이집트, 페루시아의 황금유물 등 세계 각지에서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금제 유물은 1916년 평안남도 대동군에 위치한 석암리 9호분(BC 108년부터 AD 313년)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인 국보 89호 금제교구(金製鉸具)이다.

이 금제교구는 금제교구는 길이 9.4cm x 6.4cm 크기인데 얇은 금판을 타출(打出)하여 7마리의 용을 만들고 작은 금알갱이인 금립(金粒)과 금줄인 금사(金絲)를 이용하여 누금세공(鑲金細工)이란 기법으로 무늬를 나타낸 후 비취옥을 감장(嵌裝)한 것으로 타출, 누금세공, 옥감장 등의 기법을 고루 구사한 화려한 유물이다.



국보 금제교구(국립중앙박물관)

천마총 출토 금귀거리

이 금제교구 유물을 300배 확대하여 본 결과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새김된 여섯 마리 용의 아가리 속과 몸통 부분에 제일큰 금알갱이는 1.0 ~ 0.9mm이고 가장 작은 금알갱이는 0.28 ~ 0.3mm인 금알갱이가 수백개의 금알갱이가 붙어있다. 이는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직선 무늬가 0.3mm 간격으로 약 0.13 ~ 0.15mm 두께와 높이 0.2mm로 제작한 초정밀 기술과 같은 것이다. 이런 금공예 세공기술은 전 세계에서 출토된 비슷한 시대의 금 공예품을 비교하여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었다.

금알갱이를 만드는 방법은 녹은 상태의 금을 찬물에 가늘게 떨어 트리면서 막대기를 고속으로 휘저으면 금이 식으면서 물속에서의 표면장력으로 원형의 구가 생성되는데 이때 빠르게 휘저는 속도에따라 금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방법은 4,000년전부터 고대 여러나라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통 2mm이상의 금구슬을 만들 수 있다. 최근의 금공예 기술로도 1mm이하의 금구슬을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초정밀 기술이다. 1mm이하의 금알갱이를 만들려면 1mm이하의 금실을 1mm이하로 잘라서 자른 금실편을 흑연판위에 놓고 흑연판에 열을 가하면 금줄편이 녹는 순간 타재료와의 표면장력 작용으로 원형 형태로 되고 흑연판의 열을 내려 식히

면 금알갱이가 만들어진다. 1mm이하의 금알갱이를 금속판위에 올려 놓고 금실로 땀납하는 기술도 매우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다.

2,000년전 전세계 고대 국가중에서 누금세공기법으로 만든 금공예 제품중 1mm이하의 금알갱이가 붙어있는 유물은 한국에서 출토된 국보 89호 금제교구가 유일한 것이다. 당시의 금세공 기술로 보아 로마나 중국 한나라의 선진문화 강대국도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정상의 금공예 기술이었다. 2~3세기경 고조선시대의 금제교구에서 볼 수 있는 타출, 누금세공, 옥감장 등의 정교한 금공예 기술은 이후 신라의 화려한 금공예 기술로 이어진다.

1300년 전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대왕(文武大王, 626~681)은 왜구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자 동해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대종천 입구에 호국사찰인 감은사를 건립하였다. 감은사 건립 이후 1300년의 시간이 흐른 1959년에 감은사지의 주변을 발굴하고 서탑과 동탑을 해체 보수하였는데 이 때 동탑에서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을 한 사리함(舍利函)이 발견되었다. 이 사리함내에 있는 풍탁을 현미경을 사용하여 200배로 확대해 보면 풍탁의 표면과 사리함 뚜껑등에 지름 0.3mm의 금알갱이들을 헤아릴수 없이 많이 부착되어있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국보 유물인 금귀거리 역시 주금(鑄金)에서 판금가공, 선조(線彫), 투조(透彫) 등 각종 조금기법이 사용되었고, 타출기법, 누금세공, 도금에 이르기까지 금을 이용한 모든 금공예기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귀걸이 금판에 붙어있는 금알갱이 역시 0.3mm로서 고조선때부터 이어내려온 기술이라고 하겠다. 이런 초정밀 금공예 기술은 6세기 이후 동로마의 비잔틴 문명의 유물이나 중근동 아랍지방의 금공예 제품에서 볼 수 없는 기술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후 정부와 학교로부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단군 왕검의 고조선을 신화속의 조그마한 부족국가로 알고 있었지만 동북아 최대의 제국을 이룩한 강대국이었다는 것이 고인돌 유적과 발굴된 수 많은 유물을 통하여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최근 초정밀 나노기술의 반도체와 제철 및 첨단 무기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400년전 고조선 때부터 이어받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DNA가 흘러 내려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 및 금세공 유물들을 고고학적 역사 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알고 우리민족의 고대 세계 유일의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에 자부심을 갖고 국내외에 홍보하여여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성봉 역주, 『삼국유사』, 1987년, 서문문화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엮음, 『문화유산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 2007년 고래실
- 전상운 지음, 『한국의 과학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년
- 사회과학원,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2002년 도서출판 중심
- 사회과학원, 『조선원시 및 고대 사회의 기술 발전』 1084년, 백과사전출판사
- 덩인커 지음, 『고대발명』, 2008년 도서출판 대가
-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편, 『고조선·단군·부여』
- 김원용저, 『한국 고미술의 이해』, 1999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고대학회, 『오르도스 청동기와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07년, 백산문화
- 이난영 저,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1998년, 일지사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찬, 『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2009년
- 북한 사회과학원, 『평양일대 락랑무덤에대한 연구』, 2001년 도서출판 중심
- 이형구 저, 『한국 고대문화의 기원』, 1991년 도서출판 까치
- 이종호·박택규 지음, 『한국의 과학 기술 이야기 2』, 2006년 집사재
- KBS 『역사 스페셜 4』, 2002년 효형출판사
- 하비 레클린 지음, 『유물을 통해 본 세계사』, 1997년, 주식회사 세종서적
- 북한 사회과학원,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2002년 도서출판 중심

평양부 고지도 분석과 관련된 역사적 지역 위치 탐구

정택선*

- I. 서론
- II. 위상수학을 활용한 평양부 고지도 분석
 - 1. 평양부 고지도와 북한 평양 위성지도 비교 분석
 - 2. 평양부 고지도와 요양시 궁장령구 주변 위성도 비교
 - 3. 결론
 - 4. 위상동형과 평양성 기록(참고 사항들)
- III. 능라도, 합도; 대양각도, 소양각도, 기자정; 보산성保山城
 - 1. 능라도, 합도, 장안성
 - 2. 대양각도, 소양각도, 기자정
 - 3. 보산성保山城
- IV.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면의 위치 탐구
 - 1. 대화궁의 모습
 - 2. 평양성에서 28개 면의 초경初境과 종경終境
 - 3. 석다산石多山과 합지蛤池의 모습
 - 4.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面)의 위치
- V. 고지도 분석을 통한 서경기西京畿 위치 탐구
 - 1. 서경전도 분석
 - 2. 서경(평양) 주변의 서경기 지역 현의 위치 탐구
- VI. 절령岫嶺과 황주 위치 탐구
 - 1. 자비령(또는 岫嶺) 위치 탐구
 - 2.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위치 탐구
- VII. 결론

【주제어】 한국사, 한국고지도

【주제어】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부 고지도, 석다산, 장안성, 西京畿, 대명일통지, 동녕로東寧路, 자비령(또는 岫嶺), 금당산, 황주

【요약문】 본 연구는 평양부 고지도를 분석하고 고지도에 강과 지류에 대응되는 지역을 찾고 평양부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위치를 찾았다. 西京畿, 절령, 황주 등의 위치도 찾았다.

(1) 평양부 고지도를 위상적으로 분석하고 고지도가 가리키는 지역이 북한 평양이 아니고 요양시 궁장령구弓長嶺區 근방임을 밝혔다.

(2) 평양부 고지도의 대양각도, 소양각도, 능라도, 합탄蛤灘의 위치를 요양시 궁장령구 근방에

* 군산대학교 명예교수

서 찾았다.

(3) 평양부 고지도에 석다산면 등 28개 면 위치가 그려져 있다. 평양부 고지도와 평양부 주기를 가지고 석다산면 등 28개 면의 위치를 요양시 궁장령구 근방에서 찾았다.

(4) 장안성과 ‘서경기西京畿(서경 주변의 경기): 강서, 강동, 순화, 중화, 삼화, 삼등’ 위치는 모두 궁장령구 근방에서 찾았다. 강동은 궁장령구 동쪽 지역이고 강서는 서쪽 지역이다. 요양 시내 중심지역은 고려의 강서현이다.

(5) 대명일통지에 ‘자비령은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고 한다. 자비령은 궁장령구에서 의주 가는 역참로 중 분수령 있는 기가보촌이다.

(6) 대명일통지¹⁾의 금당산 위치는 놀랍게도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고 황주는 동녕로東寧路에 속했고 안악, 삼화, 용강, 함종,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황주와 그 속촌들은 요양, 안산鞍山, 해성, 대석교시 주변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I. 서론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영토의 국경이나 지방들의 지도를 매우 훌륭하게 제작해 놓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²⁾에만 약 6000장의 고지도가 있다. 이들 고지도들은 1800년대에 정리된 것들이다. 이들 지도들이 맨 처음 제작된 시기를 확실히 모르는 것들이 매우 많다. 한 지도가 처음 제작되고 수백 년 후까지 모사되어 전달될 수 있다. 평양부 고지도도 맨 처음 제작된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이 지도의 오른쪽 부분에 장안성長安城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부 서쪽에 장안성(지도를 분석한 후 궁장령구가 평양성고 요양이 長安城임)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지도는 맨 처음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지도는 고구려 때 처음 제작되고 천년 이상 모사模寫되어 전해진 것으로 판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양성과 장안성이 경계를 맞대고 있을 때는 고려나 조선 시대는 아니고 고구려 시대뿐이다.

본 연구는 평양부 고지도를 분석하고 고지도에 대응되는 지역을 찾고 평양부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위치를 찾는다. 서경기, 절령, 황주 등의 위치를 찾는다.

남의현 교수의 연구³⁾에 의하면 졸본 부여 도읍지 천도 이후 고구려 도읍지 천도는 국내성 - 환도성丸都城 - 평양 - 평양 동쪽 황성黃城(혹자는 東黃城이라고도 함) - 평양성 - 장안성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의 도읍지 중 2곳이 평양이다. 고려는 상경(개경), 동경, 서경(平壤), 남경 4京⁴⁾을 두어 전국을 통치했다고 하여 고려에도 평양(서경)이 있었고 조선에도 평양이 있었다.

1) 『大明一統志』 이현 외, 1461.

2) 서울대학교규장각, 원문검색

3) 남의현, 「고구려 7차 천도와 도읍지 연구」, 『한국 북방 경계의 흐름』 대한사랑(서울), (2021),

고구려는 국가의 수도(京)로서 2번의 평양이 있었고 고려는 4京 중의 하나로서 西京(平壤)을 두었고 상경(개경) 다음으로 고려 정부의 행정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다.

우리는 조선의 평양이 북한 평안도의 평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고구려의 평양과 고려의 평양도 북한 평양이라고 배우고 있다. 하지만 평양부 고지도는 북한 평양의 위상도가 아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기록이나 평양부 고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

- (1)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자비령이 있다(대명일통지 참고).
- (2) 평양성 서쪽(또는 동쪽)에 장안성이 있었다(평양부 고지도 참고).
- (3) 평양성 주변에 석다산면石多山面, 불곡면佛谷面, 임원면林原面, 합지면蛤池面 등 28개 면이 있었다(평양부 고지도 참고).

조선 시대 평양이었던 북한 평안도 평양은 위 세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다. 대명일통지 등 중국 역사 기록물들은 고대 평양이 요양에 있거나 요동에 있다고 기록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평양부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문자기록을 가지고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규장각에는 6000장 정도의 고지도들이 있고 평양에 관한 고지도가 6 종류가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서경전도가 있다. 이들 고지도들은 1800년대에 정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들 평양 고지도들이 북한 평양의 위상도가 아니다.

본 연구는 다음의 6가지를 연구한다.

- (1) 평양부 고지도를 위상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도에 나타난 강과 그 지류들을 위상적으로 분석 대응시켜 대응하는 강과 지류들을 요양시 궁장령구에서 찾는다.
- (2) 평양부 고지도에 대양각도, 소양각도, 능라도, 합탄蛤灘의 위치가 그려져 있다. 이들의 위치를 찾는다.
- (3) 평양부 고지도에 석다산면 등 28개 면 위치가 그려져 있다. 평양부 주기에는 이들 28개 면의 초경初境과 종경終境의 기록들이 있다. 평양부 고지도와 평양부 주기를 가지고 석다산면 등 28개 면의 위치를 찾는다.
- (4) 장안성과 ‘西京畿: 강서, 강동, 순화, 중화, 삼화, 삼등’ 위치를 찾는다.
- (5) 대명일통지에 ‘자비령은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고 한다. 자비령 위치를 찾는다.
- (6) 대명일통지⁵⁾에서 “금당산은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고 황주는 東寧路에 속했고 안악, 삼화,

4) 『高麗史』 地理편.

5) 『大明一統志』 이현 외, 1461.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갖고 있다” 고 금당산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황주와 그 속촌屬村의 위치를 찾는다.

II. 위상수학을 활용한 평양부 고지도 분석

1. 평양부 고지도와 북한 평양 위성지도 비교 분석

(참고: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⁶⁾: 새롭게 재구성함)

위상수학의 위상 동형을 활용하면 우리 선조들이 제작해 놓은 평양부 고지도가 북한 평양의 위상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비교 분석하는 두 지도는 규장각에 있는 평양부 고지도와 북한 평양 위성도이다.

다음은 규장각에 있는 평양부 고지도와 북한 평양 위성도이다.

주의: 평양부 고지도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표기하지 않았다. 지도의 상단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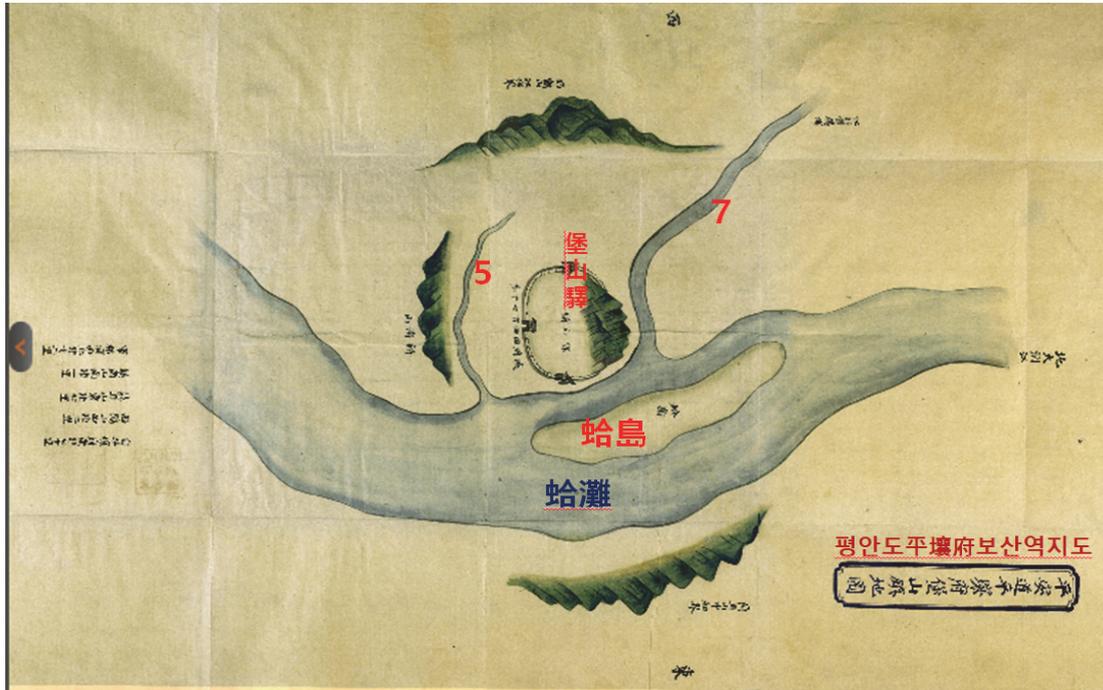


[그림 1]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 6 개의 지류가 있다. 평양성은 3번 지류와 4번 지류 사이에 있다.

평양부 고지도에는 불곡면, 석다산면, 임원면, 합지면, 대동강면, 생이면, 추오을면, 반석면

6) 정택선, 최규홍,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상생출판, 2020.

등 28 개면이 있다. 5번 지류 오른쪽에 합탄蛤灘이라는 글자가 있다. 한편 규장각 고지도 편인 평양부 편에 함도 고지도가 있다. 이는 합탄은 함도蛤島 옆에 있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판단해야 하고 추오을면 위 함도 오른쪽에 있는 땅은 함도蛤島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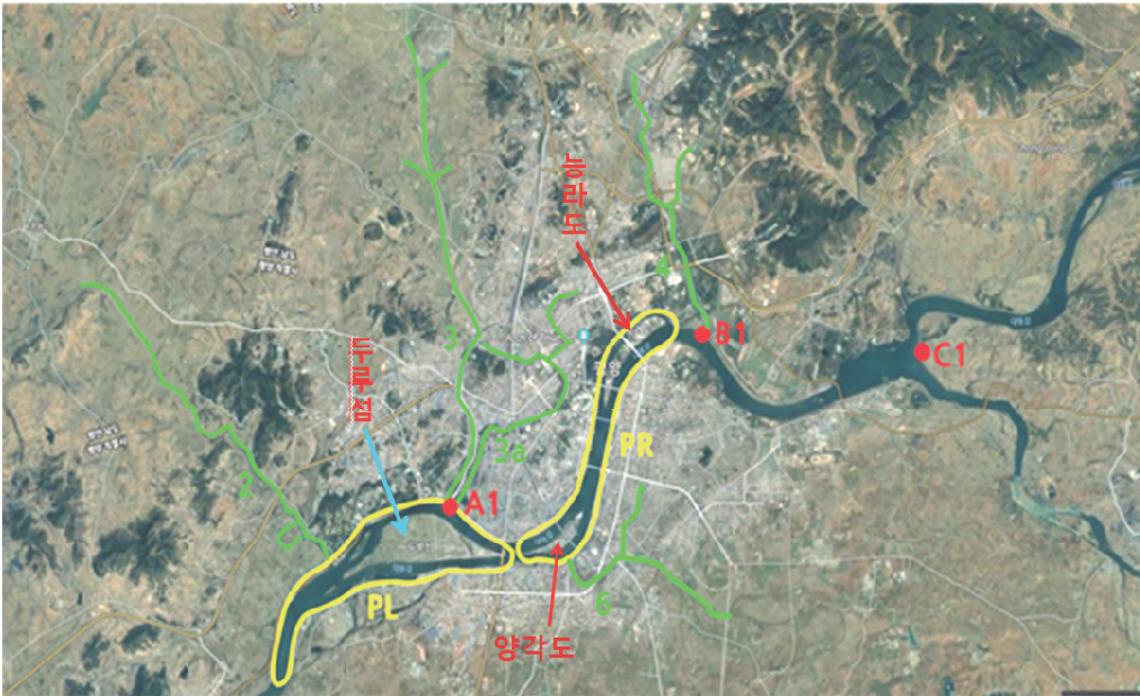
[그림 2] 보산역(堡山驛⁷⁾): 북한 대동강 지역에 이지도와 위상동형인 지역은 없다.

평양부 고지도의 4번지류와 5번 지류 사이에 장안성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는 4번 지류 오른쪽 지역에 장안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판단해야 한다.

석다산면은 돌이 많이 있는 지역의 면이라는 의미이고 합지면은 대합 모양의 저수지(또는 연못)가 있는 지역의 면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은 북한 평양 위성도이다. 평양부 고지도와 위상 비교를 하기 위하여 조선의 평양성 서쪽 큰 지류를 3번 지류로 동쪽 큰 지류를 4번 지류로 번호를 붙였다.

7) 『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00년대 정리.



[그림 3] 북한 평양 위성도: 북한 평양에는 산이 별로 없다.

1) 평양부 고지도의 대동강과 북한 평양 대동강의 위상 수학적 비교

평면상의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면 두 도형의 닮음비가 있다. 평면 도형의 닮음이라는 개념을 좀더 일반화한 개념으로 동형이라는 개념이 있다. 두 평면 도형이 동형이라는 의미는 두 도형 간에 일대일 대응이며 연속인 함수 존재할 때이다. 이를 판별할 때 평면 도형의 종수(genus)라는 개념이 있다. 두 도형의 종수가 같으면 두 도형은 동형이라고 판정한다.

평양부 고지도와 북한 평양의 위성지도의 대동강을 2차원 위상적 방법에 의해 비교해 보자.

고지도의 대동강에서 오른쪽 상단 OR 안쪽에는 1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영역의 강물로 이루어진 영역을 OR 이라 하면 섬 1개가 빠지므로 이 영역의 평면 위상의 종수(genus)는 다음과 같다.

$$g(OR) = 1$$

한편, 북한 평양의 대동강에서 오른쪽 상단 PR 내부에는 2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영역의 강물로 이루어진 영역을 PR 이라 하면 섬 2개가 빠지므로 이 영역의 평면 위상의 종수(genus)는 다음과 같다.

$$g(PR) = 2$$

위상수학적 동형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영역의 종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g(OR) = 1 \neq g(PR) = 2$$

따라서 평양부 고지도의 오른쪽 강 *OR* 영역과 북한 평양 지도의 오른쪽 강 상류지역 *PR* 영역은 동형이 아니므로 같은 지역의 지도가 아니다.

평양부 고지도의 *OR* 영역 안에 양각도가 없다. 양각도는 매우 큰 섬으로 지도를 제작할 때 무시하고 그려서는 안 되는 섬이다. 양각도를 안 그린 북한 평양 고지도로 안 맞는 지도이다.

고지도 평양부의 대동강에서 왼쪽 하단 부분 *OL* 안쪽에는 5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영역의 강물로 이루어진 영역을 *OL* 이라 하면 섬 5개가 빠지므로 이 영역의 평면 위상의 종수(genus)는 다음과 같다.

$$g(OL) = 5$$

한편, 북한 평양의 대동강에서 왼쪽 하단 *PL* 안쪽에는 두루섬을 포함해서 4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영역의 강물로 이루어진 영역을 *PL*이라 하면 섬 4개가 빠지므로 이 영역의 평면 위상의 종수(genus)는 다음과 같다.

$$g(PR) = 4$$

고지도에는 두루섬 처럼 근방의 섬보다 상대적으로 큰 섬도 그려져 있지 않다.

위상수학적 동형을 판단하기위하여 두 영역의 종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g(OL) = 5 \neq g(PL) = 4$$

평양부 고지도의 왼쪽 강 하류지역 *OL*과 북한 평양 *PL*은 동형이 아니다. 평양부 고지도의 *OL* 영역은 북한 평양 *PL*의 위상도가 아니다.

평양부 고지도의 *OL* 영역 안에 두루섬이 없다. 북한 평양 대동강 영역의 *PL* 영역 안이나 그 서쪽 부분 강에는 보산성이 없다.

이상의 결과로 평양부 고지도의 대동강과 북한의 대동강은 같은 강이 아니다.

2) 평양부 고지도의 지류와 북한 평양 위성도의 지류 비교와 지류들의 대응관계

평양부 고지도에는 6개의 지류가 그려져 있는데 2번 지류, 3번 지류, 4번 지류, 6번 지류는 북한 평양 위성도에서 대응하는 지류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번 지류와 5번 지류는 북한 평양 위성도에서 대응하는 지류들을 찾을 수가 없다.

고지도에는 2번 강과 3번 강 사이에 산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북한 평양지도에는 2번 강과 3번 강 사이에 산이 별로 없어 동일 지역의 위상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

고지도에는 3번 강이 있고 그 지류 3-1, 3-2, 3-3의 있으며 이들 지류 사이에 산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북한 평양 지도에서는 3번 강은 대응시킬 수 있지만 그 지류 3-1, 3-2, 3-3 주변에 그려놓은 산들이 없다. 고지도가 정확하다면 고지도의 3번 강은 북한의 보통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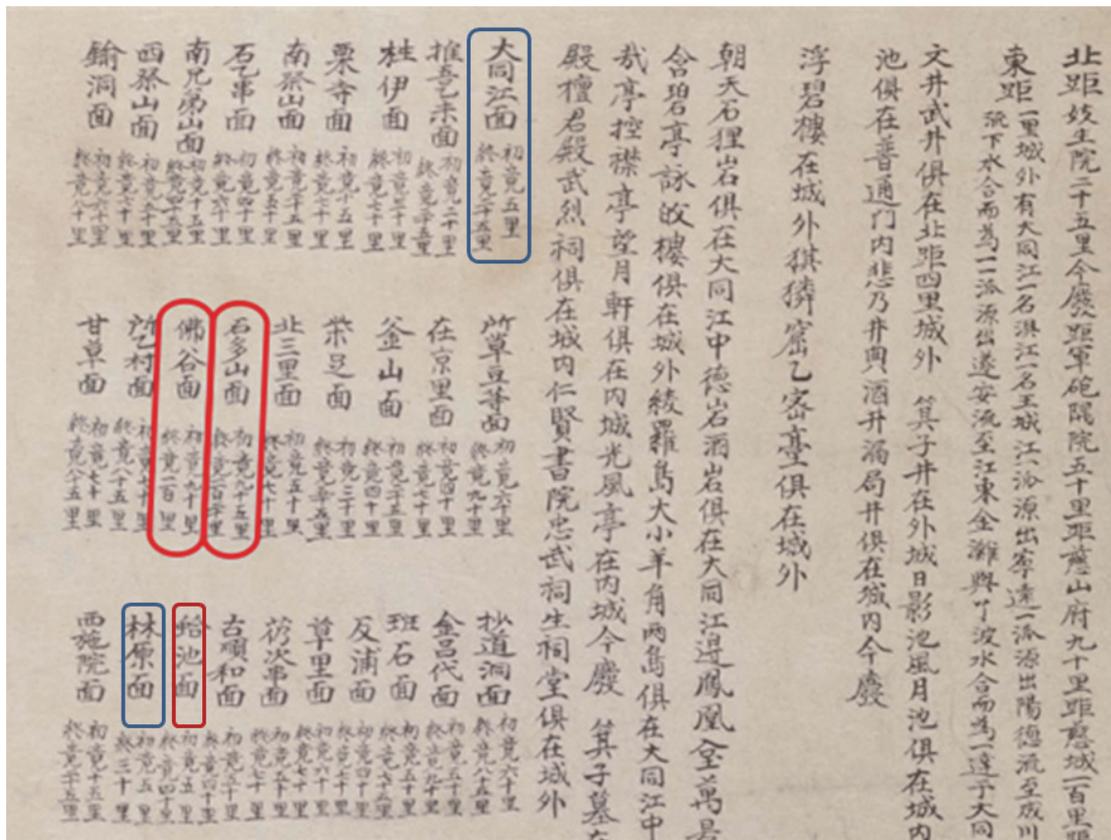
북한 평양 지도에서는 3a번 강폭도 3번 강폭과 비슷한데 고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3)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북한 평양 서북 방면에 존재할 수 없다

평양부 고지도에는 28개면이 그려져 있고 그 주기에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나온다. 평양으로부터 40리 안 영역에 그려 넣을 수 있는 면은 28개중 6개도 안 된다.

평양부 고지도가 북한 평양의 위상지도라면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평양의 서북쪽에 있다.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80리 가면 바다에 이른다(구글지도 참조). 평양부에 있는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북한 평양으로부터 90리 밖 서북쪽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서해 바다 속에 그려 넣어야 한다.

참고로 평양부(규장각-필사본(회화식)-해동지도(古大4709-58)) 주기의 일부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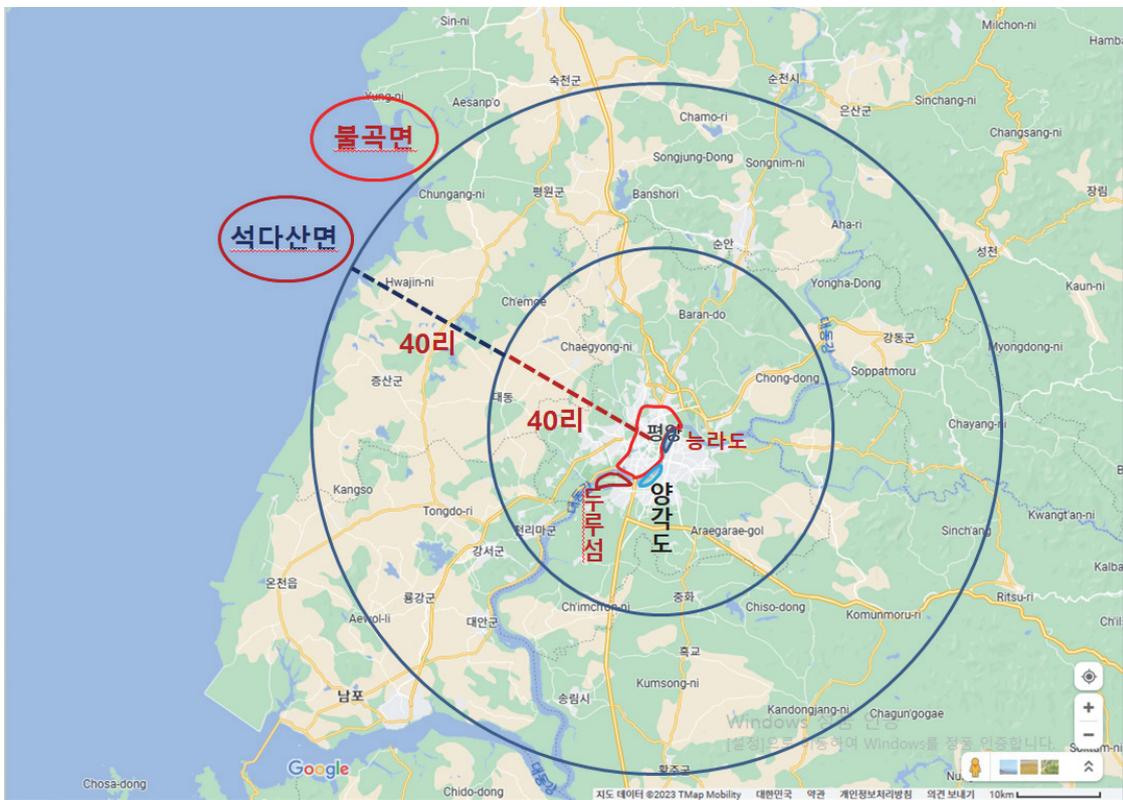


[그림 4] 평양부(해동지도) 주기의 일부: 석다산면, 불곡면 등 28개면이 있다.

위 평양부 주기에서 석다산면은 평양으로부터 초경 90리, 종경 120리, 불곡면은 평양으로부터 초경 90리, 종경 100리로 기록되어 있다. 평양부 고지도가 북한 평양의 지도라면 석다산면石多山面과 불곡면은 평양의 서북쪽에 있다. 평양으로부터 서북쪽으로 80리 가면 바다에 이른다. 따라서 석다산면과 불곡면이 평양부 고지도에 위치한 것처럼 북한 평양 서북쪽 90리 밖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하면 서해 바다에 위치한다.

따라서 평양부는 북한 평양의 위상지도가 아니다.

고려조나 조선조에 평양 서북쪽 바다 속에 석다산면과 불곡면이 위치했다는 전설은 전무하다.



[그림 5] 북한 평양의 위성도: 10리를 약 5Km로 하여 평양에서 서북 방향으로 80 리 가면 바다이다. 고려조, 조선조, 현재의 중국은 10리를 약 5Km로 간주한다.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평양의 서북쪽에 있다면 이 두 개면은 바다에 위치해야 한다.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평양의 서북쪽에 존재할 수 없다. 북한 평양의 동북쪽에 임원면林原面도 없다. 북한 대동강 남쪽에 대동강면도 없다. 합지면(초경 5리 종경 40리)은 평양부 고지도의 평양 왼쪽에 그려져 있다. 합지면의 지명은 이 면안에 합지 즉 대합 모양의 호수(또는 저수지)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지명이다. 하지만 북한 평양 서쪽 10리~40리 사이에서 합지라 할 수 있는 호수를 찾을 수가 없다.

석다산면과 불곡면은 평양의 서북쪽에 존재할 수 없어 평양부 고지도는 북한 평양의 위상도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평양부 ‘비고’ 편의 ‘석다산면은 평양부 서북쪽 초경初境 95리 종경 120리이다.’⁸⁾는 잘못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북한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80리 가면 바다이고 120리를 가면 바다 한 가운데가 된다는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옛 기록 “石多山面 初境 九十五里 終境 百二十里”라는 옛 기록을 보고 “평양부 서북쪽”을 추가하여 기록한 것이다.

2. 평양부 고지도와 요양시 공장령구 주변 위성도 비교

참고: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⁹⁾ 새롭게 재구성함

앞 절에서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가 북한 평양의 위상도가 아님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증명하였다. 하지만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와 위상적으로 동형인 위상도를 갖는 지역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찾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에 그려진 6개의 지류(그리고 지류의 지류들도 포함)와 대동강을 그린 위상도와 위상적으로 동형인 지역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이나 고려의 평양이 요양에 있었다(참고 [?])는 기록들을 참고하면 후보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오직 위상수학적, 기하학적으로 고지도를 분석한 것이다.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와 위상적으로 동형인 위상도를 갖는 지역으로 요양시 공장령구 주변 지역을 찾을 수 있다.

1) 고려 평양부 고지도와 요양시 공장령구 주변 위성도 비교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에서 위쪽을 남쪽, 아래쪽을 북쪽으로 보고 평양부 고지도와 위상적으로 동형인 위상도를 갖는 지역으로 요양시 공장령구 주변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평양부 고지도에서 하단에 있는 대동강이 현재의 태자하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양시 공장령구 지역의 위성도에서 평양부 고지도와 대응하는 큰 강과 지류, 지류의 지류를 1, 2, 3, 3-1, 3-2, 3-3, 4, 4-1, 4-2, 5, 6으로 번호를 붙여 놓아 평양부 고지도와 공장령구 위성도에 나타나 있는 큰 강과 지류, 지류의 지류를 위상적으로 대응시켜 평양부 고지도와 공장령구 위성도가 대역적으로 위상 동형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9) 정택선, 최규홍,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 상생출판, (2020).

연구: 공장령구 위성도에서 1번 지류와 2번 지류 사이에 4개 정도의 작은 지류가 있는데 평양부 고지도에서는 이 4개의 지류를 생략하였다. 평양 고지에는 이 4개의 지류를 그려 놓았다.



[그림 6] 요녕성 요양시 공장령구 위성도

평양부 고지도는 요양시 공장령구를 나타내고 있어 조선조에 지도를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다. 이 지도는 고려시대 이전에 그려진 것을 1800년대에 모사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 하면 조선 시대에는 요양시 공장령구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요양시 공장령구의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구글 지도로 본 공장령구 현재의 상황

북쪽에 태자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한하와 태자하가 만나는 지점에는 참와수고參窩水庫라는 큰 호수가 있다. 참와수고는 폭이 평균 2Km 이상으로 총 길이가 약 20Km이다. 이 호수는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수량이 늘 풍부하고 물살이 심하지 않아 동절기를 제외하고 언제나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의 호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탕하湯河가 흐르고 있다. 환성로가 중앙에, 그 북쪽에 환성북로가, 그 남쪽에 환성 남로가 있다. 탕하 상류인 남쪽에는 탕하수고湯河水庫라는 큰 호수가 있다. 탕하수고 주변에 온천이 잘 발달되어 있다. 고려 시대에는 여기에 평주 온천역이 있었던 곳이라 생각한다.

구글 지도로 보아 대략적으로 평가할 때 평양성 성곽의 내부 면적은 대략 50평방Km 이상으로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성곽의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다.

한하寒河의 남단 서쪽 부분에는 관문(성곽문)자연 공원이 있고 대문화룡大門火龍이라는 지명이 있다. 어찌 산속에 관문과 대문화룡이라는 지명이 있는가? 한하의 남단 동쪽에는 해발 969m의 마천령이 있고 그 산자락들이 한하寒河와 탕하湯河의 남단 상류 지역으로 뻗어 있다(구글지도 참조).

3. 결론

오직 위상수학적으로만 판단하면 고려 평양부 고지도는 북한 평양성이 아니다.

요령성 요양시 궁장령구의 모습을 구글 지도에서 찾은 앞에서의 지도를 선조들이 위상적으로 그리면 고려 평양부 고지도가 나온다. 이때는 기하적인 거리 개념 보다는 각 위치의 위상 위치 관계를 더 중요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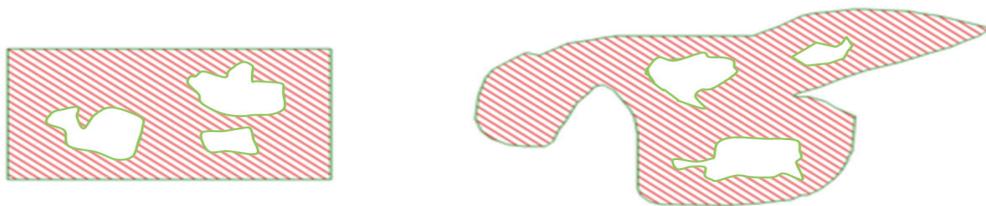
강을 그릴 때 지류들을 자세히 그리지 않고 외줄기로 강을 그릴 수 있다. 지류를 자세히 그리나 외줄기로 그리나 두 강의 평면 도형은 동형이기 때문이다

4. 위상동형과 평양성 기록(참고 사항들)

1) 위상동형과 평양성 기록

평면상에서 두 도형 A, B가 동형이라 함은 1-1 대응이며 연속인 함수 $f: A \rightarrow B$ (동형함수)가 존재할 때이다. 두 도형 A, B가 동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형함수가 존재하는 걸 증명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두 평면 도형 A, B가 동형이라는 판정을 할 때 한 초보적인 개념 중에서 종수(genus)라는 개념이 있다. 두 평면 도형 A, B의 종수가 같으면 두 도형 사이에는 동형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도형의 종수가 같으면 두도형은 동형이다. 아래 두 빗금 친 도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가운데 구멍이 하나씩 뚫린 위상적 종수가 3으로 두 도형은 동형이다.



[그림 7] 종수가 3으로 동형인 두 도형

우리는 여기서 위상수학의 가장 쉬운 개념 중의 하나인 종수 개념을 사용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고려 서경 평양성 고지도와 북한 평양 지도를 4개 영역으로 나눈다.

고지도와 평양의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의 강물을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섬을 빼면 구멍이 뚫린 평면 도형이 나와서 두 평면의 위상적 성질을 비교할 수 있다.

고지도와 평양의 지도에서 아래쪽 부분의 강물을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섬을 빼면 구멍이 뚫린 평면 도형이 나와서 두 평면의 위상적 성질을 비교할 수 있다.

고지도와 평양의 지도에서 세 강의 안쪽 부분의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산과 비교적 평평한 부분들을 3차원 기하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2) 평양성 기록

고대 사료에 나타나는 평양성은 주로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을 주로 가리킨다. 우리는 장수왕의 평양성을 북한의 평양으로 알고 있다. 주로 북한에서 나온 고구려 유물과 북한의 평양시가 고대에도 평양이라고 불렸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수서』나 『신당서』, 『구당서』 등 당시 사료에 나타나는 평양성이 북한의 평양성임을 암시하는 기사가 한 건도 없다. 장수왕의 남진정책이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사료에 나타나는 고구려 장수왕의 平壤城, 西京, 東寧路, 遼陽은 같은 지역이다¹⁰⁾.

여기서 같은 지역이라는 의미는 면적이 같고 완전히 같은 지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면적과 중심지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동녕로는 요양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군현郡縣을 거느린(屬村으로 가진) 넓은 지역이다.

III. 능라도, 합도; 대양각도, 소양각도, 기자정; 보산성保山城

1. 능라도, 합도, 장안성

평양부 고지도의 능라도, 합탄 근방을 확대하여 조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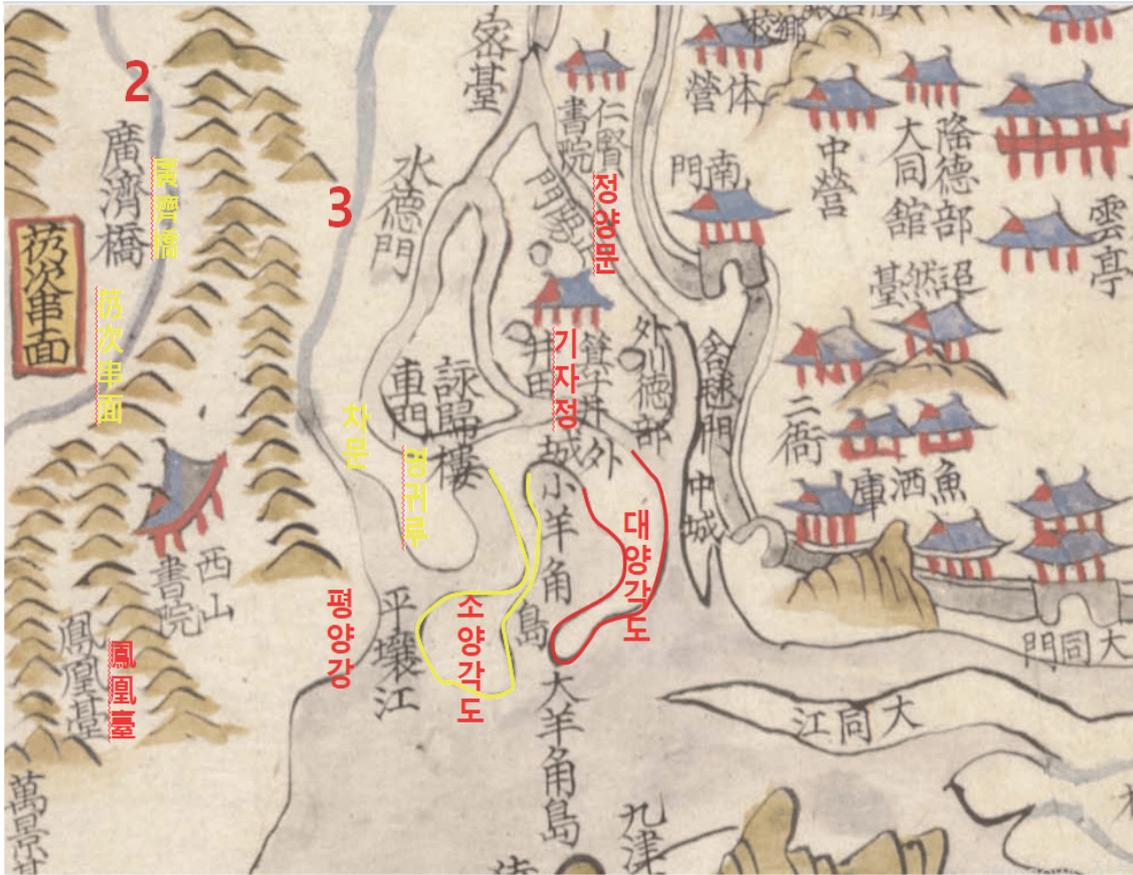
10) 복기대,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주류성출판사, (2017).



[그림 8] 평양부 능라도 근방: 합탄은 합도 옆의 개울임

평양부 고지도의 능라도 근방에는 합탄蛤灘이라는 여울 이름이 보인다. 평안도 평양부 고지도 편에 합도 고지도가 있다¹¹⁾. 이 합탄은 합도蛤島 가장자리를 흐르는 강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평양부 고지도에 대응되는 궁장령구 능라도 근방의 위성도를 살펴보자. 4번 지류와 5번 지류에 위상적으로 대응되는 지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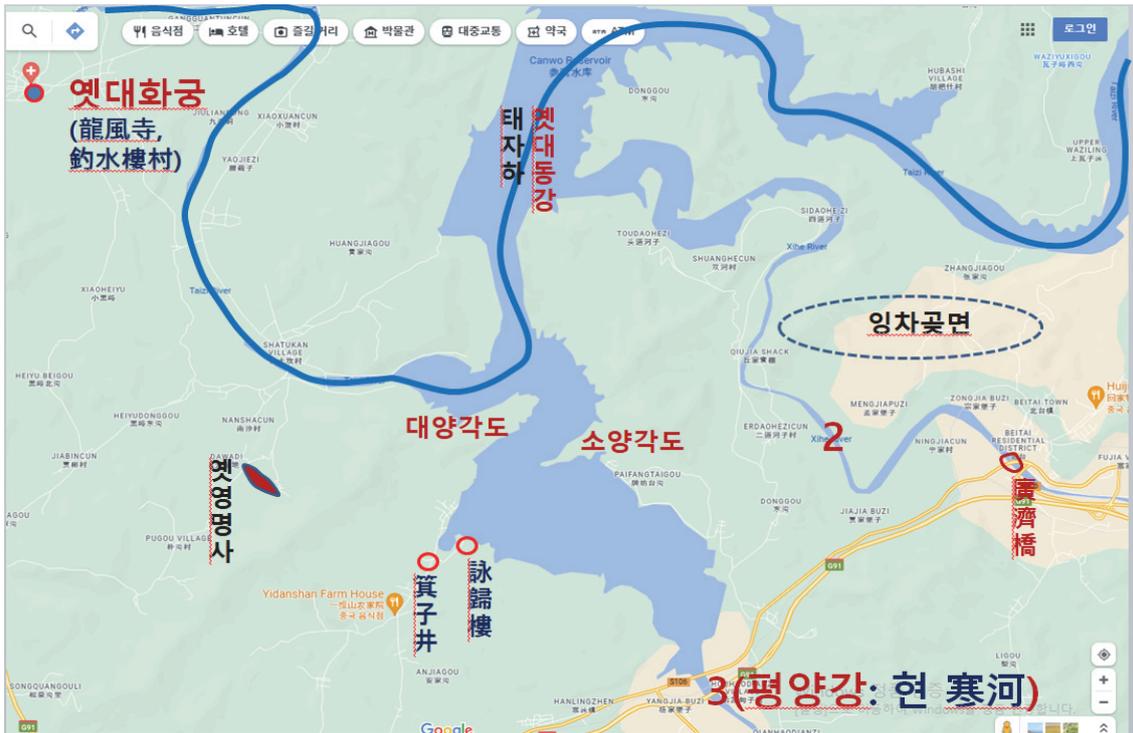
11) 『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00년대 정리- 원문검색



[그림 10] 평양부 고지도의 대양각도, 소양각도 근방: 이 고지도는 남과 북이 바뀌어서 그려진 위상도이다.

3번 지류를 평양강이라 명명하고 하구 근방에 대양각도 소양각도가 있다. 이 근방에 기자정箕子井이 있고 정전井田도 있고 영귀루詠歸樓가 있다. 기자정은 3곳이다. 영귀루는 귀족들이 노닐다가 돌아와서 시를 읊고 즐기던 장소라고 판단된다. 영귀루 옆에 차문車門이라는 글자가 있어 이 지역은 귀족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주차하고 영귀루에서 놀던 곳이라고 추정된다.

지도 왼쪽 2번 지류 옆에 광제교, 임차곳면, 봉황대가 보인다. 광제교는 2번 지류를 건너는 다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11] 요양시 공장령구 동북 지역과 한하수고 근방

평양부 고지도의 3번 지류는 한하寒河를 그린 것이다. 이 한하가 고려시대는 평양강으로 불린 경으로 보인다. 탕하수고에 큰 양뿔 모양의 대양각도 작은 양뿔 모양의 소양각도가 보인다. 광제교는 2번 지류를 건너는 다리로 판단된다. 평양부 고지도는 2번 지류 동쪽에 잉차꽃면이 그려져 있다.

영귀루나 기자정은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영귀루 모습을 보자.



[그림 12] 참와수고 남쪽 옛 영귀루 모습

고려 시대 서경 평양에서 팔관회는 영귀루에서 열렸을 거로 보인다. 때때로 고려 임금들은 이곳 영귀루에서 팔관회를 열고 부계(옥황각)에 올라 대동강물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며 술을 즐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참고: [고려사12]).

기자정箕子井 실제 모습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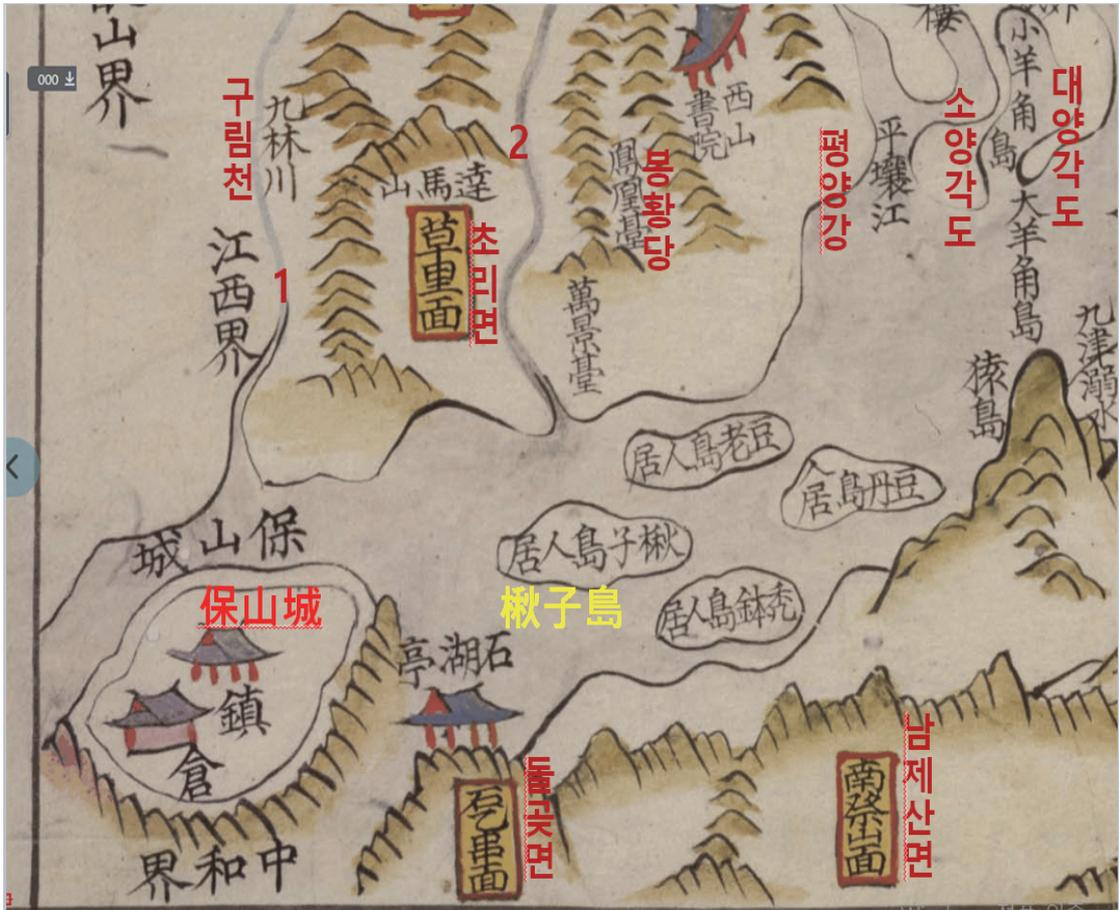


[그림 13] 탕하수고 서남쪽 옛 기자정 영귀루 모습

평양부 고지도에 기장정을 3개의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3개의 우물로 된 기자정이 있다. 기자정 아래의 밭들이 정전井田이다. 고려 시대에는 정전의 면적이 지금 보다 더 넓었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참와수고의 제방 높이가 지금 보다 낮아 참와수고의 수심이 현재 보다 얕아 정전의 면적이 지금보다 더 넓었을 거라 판단된다.

12) 『高麗史』 세가 편.

3. 보산성保山城



[그림 14] 평양부 고지도의 구림천, 보산성, 추자도, 평양강 근방: 이 고지도는 남과 북이 바뀌어서 그려진 위상도이다

1번 지류는 구림천이다. 1번 지류 하류 지역에 보산성이 있다. 1번 지류 오른쪽에 초리면이 있고 대동강 보산성 아래에 돌곶면이 있다. 돌곶면 오른쪽에 남제산면이 있다. 봉황당, 만경대 萬景臺가 보인다.



[그림 15] 평양부 고지도의 구림천, 보산성, 추자도, 평양강 근방에 대응되는 위성도(본계시). 추자도는 옛 대동강과 셋강으로 만들어진 섬.

평양부 고지도의 1번(구림천) 지류와 2번 지류에 대응하는 지역의 위성도를 본계시에서 찾을 수 있다. 구림천 하구 근방에 保山城이 있었다. 추자도는 옛 대동강과 셋강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평양부 고지도의 대동강 남쪽 1번 지류와 2번 지류 사이에 잉차곶면과 초리면이 있다(평양부 고지도는 남과 북이 바뀌어서 그려진 위상도임). 북쪽에는 돌곶면과 남제산면이 있다.

잉차곶면의 잉차곶次串이란 풀밭으로 무성한 몇 개의 곶(A, B, C 지역)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돌곶면의 돌곶洞串은 불룩 나온 강둑이 돌로 이루어진 곶串(D 지역)이라고 본다.

2번 지류에 평산구平山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예전의 평주平州(또는 평산)의 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IV.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의 위치 탐구

1. 대화궁의 모습

대화궁의 궁궐의 도면 설명 자료를 정식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다만 고려사의 묘청 열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왕(인종)이 새 궁전의 건륭전乾龍殿에 나가 앉아서 모든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 때 묘청, 백수한, 정지상 등이 말하기를 《방금 임금이 건륭전에 좌정할 때 공중에서 선악仙樂소리가 들렸으니 이것이 어찌 새 대궐로 온 데 대한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13)

(2) “묘청은 왕(인종)에게 권하여 임원궁성林原宮城을 축성하고 궁의 중앙(宮中)에 팔성당八聖堂을 설치했는데 팔성八聖이란 첫째는 호국백두악태백선인護國白頭嶽太白仙人으로 실체는 문수사리 보살이요. 둘째는...” 14)

앞의 두 가지 내용으로부터 대화궁(임원궁궐)은 궁궐의 중앙 부분에 팔성당이 있고 북쪽에 건륭전이 있으며 주변에 여러 개의 전각殿閣 건물들이 있는 궁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런 연상에 맞는 궁궐의 모습은 공장령구 조수루촌釣水樓村에 있는 용풍사龍風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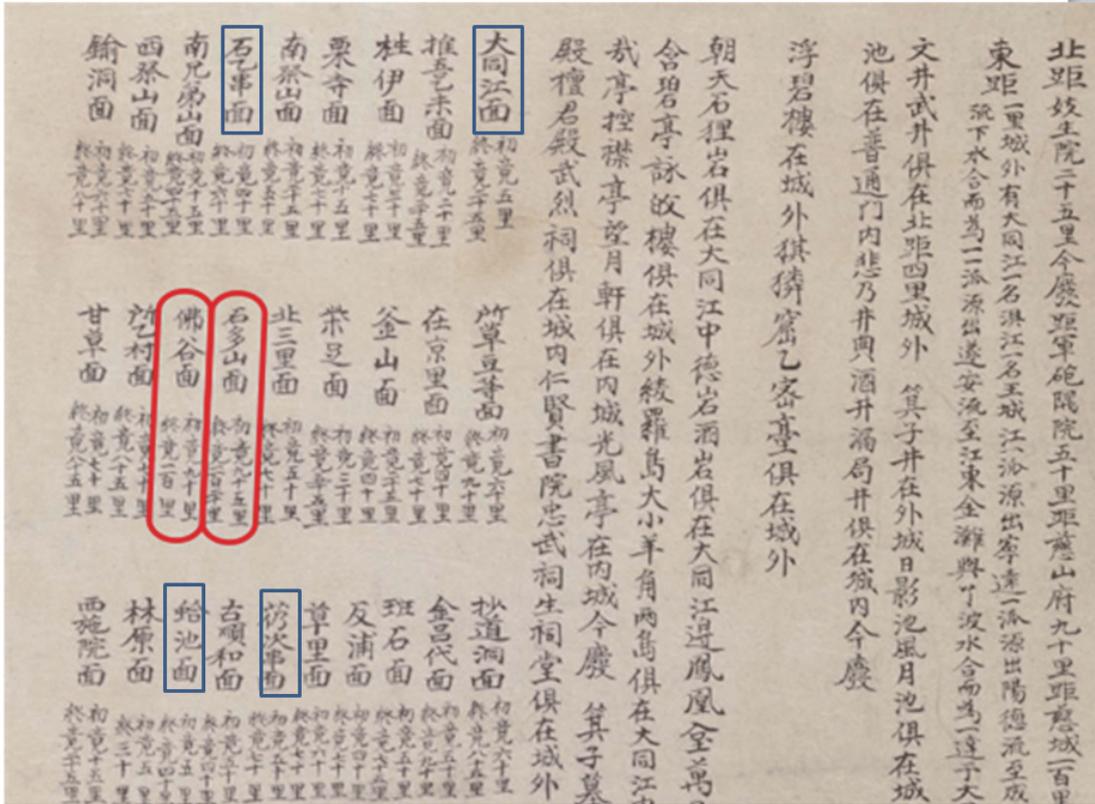
[그림 16] 요양시 공장령구의 북쪽 지역에 있는 龍風寺이다: 용풍사 안에 용불전이 있다. 이곳이 고려 서경의 대화궁이라고 생각된다. 이곳이 대화궁이라면 궁 중앙에 있는 건물이 팔성당이고 북쪽에 있는 건물이 乾龍殿이어야 대화궁의 상황 설명과 맞는다.

13) 『高麗史』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1451년.

14) 『高麗史』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1451년.

2. 평양성에서 28개 면의 초경初境과 종경終境

평양부 고지도의 주기를 살펴보자.



[그림 17] 평양부 고지도(해동지도) 주기 일부

평양부 주기에 나타난 28개 면의 초경과 종경은 다음과 같다.

- | | |
|---------------------------|---------------------------|
| 1. 대동강면: 초경 5리, 종경 25리 | 2. 추오을면: 초경 20리, 종경 35리 |
| 3. 생이면: 초경 30리, 종경 70리 | 4. 울사면: 초경 15리, 종경 70리 |
| 5. 남제산면: 초경 25리, 종경 50리 | 6. 돌곶면: 초경 40리, 종경 60리 |
| 7. 남형제산면: 초경 15리, 종경 45리 | 8. 서제산면: 초경 50리, 종경 70리 |
| 9. 유동면: 초경 60리, 종경 80리 | 10. 소초두등면: 초경 60리, 종경 90리 |
| 11. 재경리면: 초경 40리, 종경 70리 | 12. 부산면: 초경 25리, 종경 40리 |
| 13. 미두면: 초경 30리, 종경 55리 | 14. 북삼리면: 초경 50리, 종경 70리 |
| 15. 석다산면: 초경 90리, 종경 120리 | 16. 불곡면: 초경 90리, 종경 100리 |
| 17. 솔촌면: 초경 70리, 종경 85리 | 18. 감초면: 초경 70리, 종경 85리 |
| 19. 초도동면: 초경 60리, 종경 85리 | 20. 김여대면: 초경 50리, 종경 90리 |
| 21. 반석면: 초경 50리, 종경 75리 | 22. 반포면: 초경 40리, 종경 70리 |

- 23. 초리면: 초경 60리, 종경 70리 24. 잉차곶면: 초경 50리, 종경 70리
- 25. 고순화면: 초경 50리, 종경 40리 26. 합지면: 초경 5리, 종경 40리
- 27. 임원면: 초경 5리, 종경 30리 28. 서시원면: 초경 15리, 종경 25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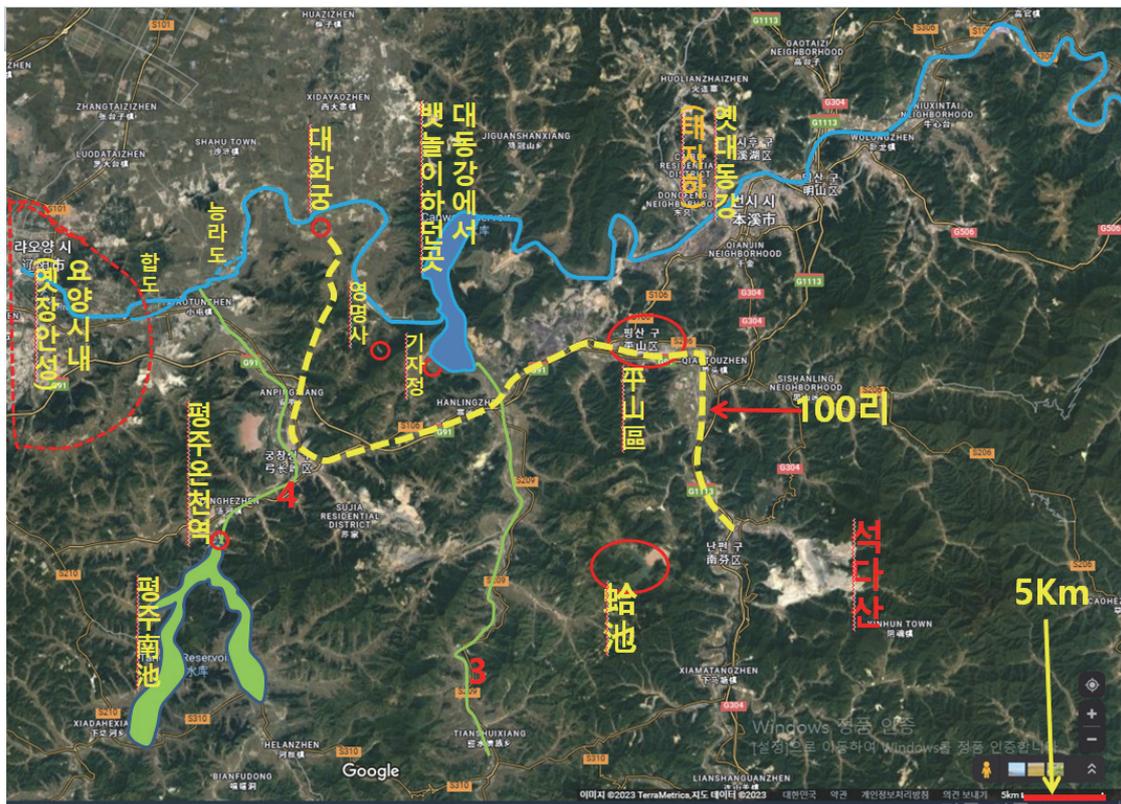
3. 석다산石多山과 합지蛤池의 모습

평양부 주기에 나타난 28개 면 중 돌곶면, 석다산면, 잉차곶면, 합지면은 그 지역의 지형의 특색을 가지고 면의 이름을 지은 것 같다.

돌곶면은 불룩 나온 강둑이 돌로 이루어진 곳이 있는 지역의 면이고 잉차곶면은 불룩 나온 강둑이 풀밭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곳이 있는 지역의 면이라고 판단된다.

석다산면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의 돌로 된 산이 있는 듯하다.

“석다산면: 초경 90리, 종경 120리”



[그림 18] 가로 약 6Km 되는 석다산이 있다. 공장령구 남쪽에 온천이 있는데 이 지역이 평주 온천역이라고 본다. 탕하수고가 평주 남지로 보인다.

석다산에서 대화궁(용풍사)까지는 약 110리(55Km)이다. 석다산이 석다산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 석다산 끝 지역까지는 120리 정도이다.

석다산 서쪽에 蛤池가 있다. 본계시本溪市에 평산구平山區가 있는데 이는 평주에서 그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1) 고려 초에 평주주州는 평양성(요양시 弓長嶺區) 둘레에 있었고 여러 개의 군현을 속촌屬村으로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2) 廣州는 果州, 양지현, 죽산군, 양근현, 지평현, 이천군 등을 屬村으로 거느렸다(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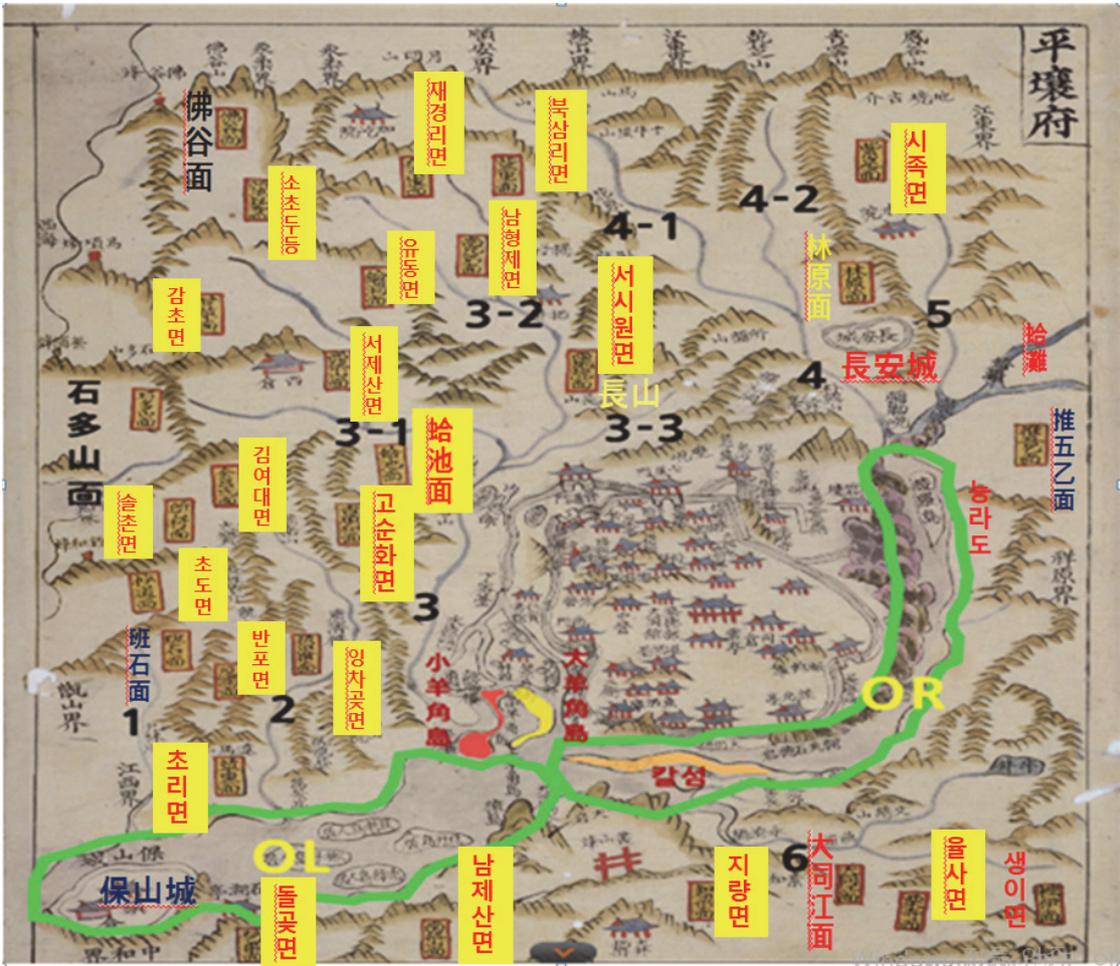


[그림 19] 가로 약 6Km 되는 석다산이 있고 대합이 입을 벌린 모습의 합지가 보인다.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석다산은 본계시 남분구南芬區 지역에 있다. 석다산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돌산으로 가로 6Km 세로 4Km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다산 입구에서 옛 대화궁(용풍사)까지 거리는 100리 정도이다(십리는 5Km).

3.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의 위치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의 위상적 위치를 먼저 파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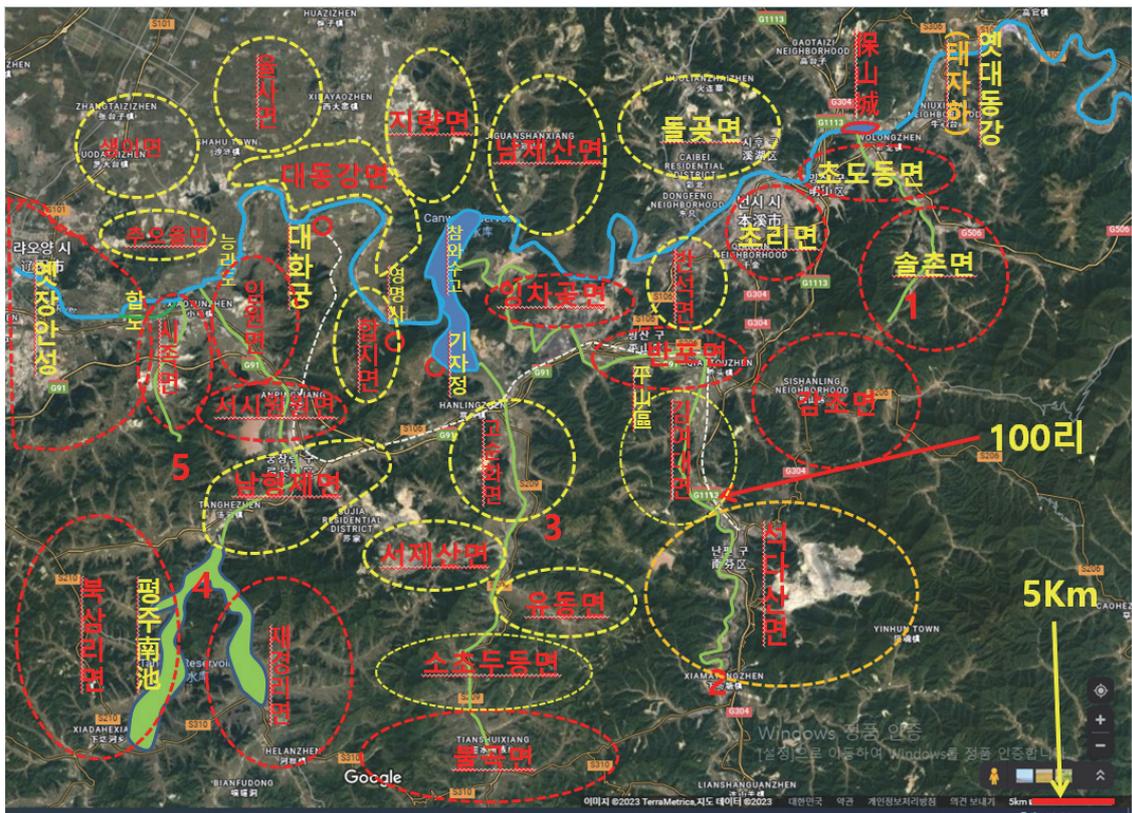
[그림 20] 평양부(해동지도)에 석다산면 등 28개 면이 있다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의 위상적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주의가 필요하다.

28개 면의 위상적 위치를 찾기 위해 각 면의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위상적 위치와 주기에 나타난 초경과 종경을 고려하면 각 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8개 면의 명칭 중 지형지세를 나타낸 면의 명칭들이 있다. 석다산면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석다산이 면이다. 초리면草里面은 넓은 풀밭 지역이 펼쳐진 지역이다. 잉차곶면荊次串面은 여러 개의 풀밭으로 이루어진 곶串이 있는 지역이다. 을곶면乙串面은 불쑥나온 강둑이 돌로 이루어진 곶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반포면은 측 들어간 포구反浦가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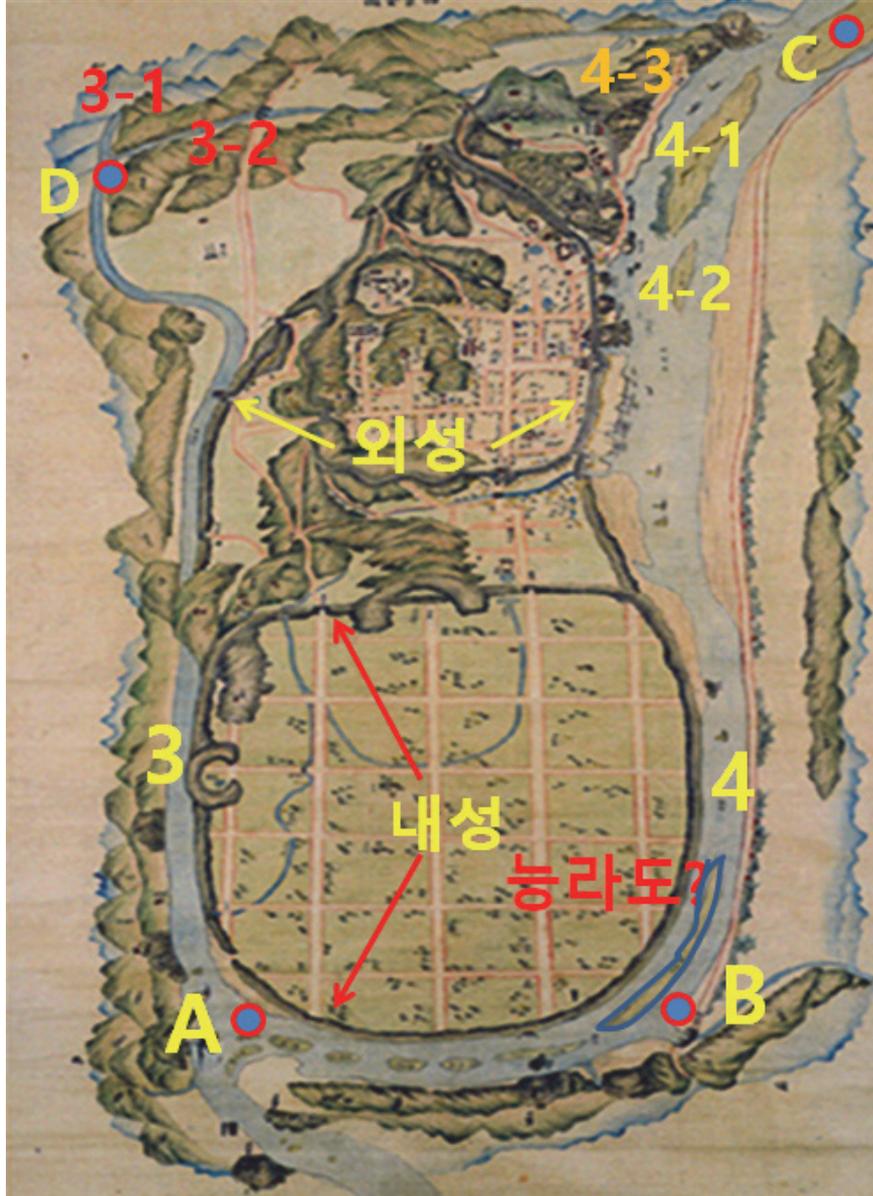
면의 명칭이 나타내는 지형지세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들 면의 위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림 21] 평양부(해동지도)에 있는 28개 면의 위치(잠정)

V. 고지도 분석을 통한 서경기西京畿 위치 탐구

1. 서경전도¹⁵⁾ 분석



[그림 22] 서경전도(출처: 고려대 박물관). 묘청의 난(1135년) 당시 서경의 지도라고 하지만 이 지도는 1800년대에 정리된 지도 중 하나이다. 고지도의 하단부 강에 8개의 섬 중 B점 옆 큰 섬은 능라도를 그린 것으로 판정된다. 지도가 그려진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문헌¹⁶⁾에서 서경 전도는 요양시 공장령구 지역을 그린 것이라고 위상수학적 방법으로 증명하였다. 4-1 지역과 C 지점이 있는 지역은 현재의 탕하수고를 그린 것으로 판정된다.

15) 『서경전도』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800년대 정리.

16) 정택선, 최규홍,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



[그림 23] 고려 평양성이 있었던 요양시 공장령구. 동쪽 성은 한하, 북쪽 성은 태자하(고려의 대동강), 서쪽 성은 탕하를 해자로 이용하고 있어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러 성을 공격할 때 남쪽에서 성을 넘어 들어갔다. 서경전도와 위 공장령구 위성도는 위상동형이다. 이는 공장령구가 고려 서경(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증거이다. 3번 지류는 한하이며 평양부 고지도에서도 3번 지류이다. 공장령구 위성도의 탕하수고에서 4-1 영역과 C점 근방영역 사이에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짧은 개울이 있고 탕하수고의 수위가 낮으면 물이 없고 수위가 높으면 물이 차서 4-1 영역이 거의 섬처럼 된다. 그래서 서경전도에서 4-1을 섬으로 그린 것이다.

2. 서경(평양) 주변의 경기京畿 지역 현의 위치 탐구

고려조에는 경기가 개경 둘레의 경기와 서경 둘레의 경기가 있었다.

5道 兩界의 행정 체제에서 개경 주변의 경기는 ‘개성부도내, 승천부도내, 강화도내, 장단도내’이다(고려사¹⁷⁾ 권 제82, 지제36).

서경 주변의 경기는 고려조 470년 동안 항속적으로 존재했던 경기 행정지명들이 아니다. 서경 주변의 경기는 서경의 속촌으로 편입되거나 평양부의 부속지역이 된 것이다. 고려 인종 14년 묘청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서경 주변의 경기(西京畿)(인종 14년)는 강동江東, 강서江西, 순화順和, 삼등三登, 삼화三和, 중화中和였다.¹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서경기의 속촌屬村들의 건치연혁들을 살펴보자.

(가) 중화군 건치연혁: 원래 고구려의 가화압加火押이었는데 신라 헌덕왕憲德王 때 당악현이라 고쳤고 고려에 이르러 서경의 속촌으로 하였다. 인종 14년 묘청의 난을 평정하고 경기의 도道を 나누어 강동江東, 강서江西, 순화順和, 삼등三登, 삼화三和, 중화中和 6현縣으로 하였다.

황곡(荒곡), 당악唐岳, 송곶松串 등 아홉 촌을 중화현에 합치고 령수를 두었다가 바로 서경에 예속시켰다. 충숙와 9년 태조의 공신 김약金藥, 김철金哲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전대로 령수를 두었다가, 공민왕 20년에 다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는데¹⁹⁾

연구: 고려의 평양과 조선의 평양은 같은 지역이 아니다. 고려의 중화와 조선의 중화도 같은 지역이 아니다. 송곶松串은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4-1 지역과 C점 부근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나) 강동현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서경기를 나누었는데, 잉을사향仍乙舍鄉, 반석촌班石村, 박달곶촌朴達串村, 마탄촌馬灘村을 합하여 강동현으로 하고 현령을 두었다.²⁰⁾

(다) 강서현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畿를 나누었는데, 이악梨岳, 대구大垢, 갑악甲

17) 『高麗史』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1451년.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중화군 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1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중화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2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강동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岳, 각묘, 독촌秃村, 증산甌山 등의 고을을 합하여 강서현으로 만들고 영수를 두었으며²¹⁾
 (라) 삼화현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畿를 나누었는데, 금당金堂, 호산呼山, 칠정漆井을 합하여 삼화현을 만들고 영수를 두었으며

삼화현 산천: 금당산金堂山: 금당부곡에 있다. 우산牛山: 현의 남쪽 4리에 있다.²²⁾

(마) 삼등현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畿를 나누어 성주에 소속한 신성新城, 나평蘿坪, 구아狗牙 세 부곡을 합하여 삼등현으로 하고 현령을 두었다.²³⁾

(바) 순화현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畿를 나누어 추자도楸子島, 앵천촌櫻遷村, 용곤촌龍坤村, 화산촌禾山村과 합하여 순화현을 만들고 영(令)을 두었다.²⁴⁾



[그림 24] 고려의 西京畿(서경 속촌)의 위상적 배치. 평양성은 현 공장령구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의 강동현 건치연혁에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畿를 나누었는데, 잉을사향仍乙舍鄉, 반석촌班石村, 박달곶촌朴達串村, 마탄촌馬灘村을 합하여 강동현으로 하고 현령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강동현은 평양성 동쪽에 있는 현이다.

잉을사향仍乙舍鄉은 구불구불한 강들이 있는 지역의 지명으로 잉차곶면荊次串面의 또 다른 지명으로 보인다. 반석촌班石村은 반석면 지역이다. 박달곶촌朴達串村은 돌곶면의 또 다른 지명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삼화현 산천에 “금당산金堂山은 금당부곡에 있다.”라 하였다. 大明一統地志²⁵⁾에 “金堂山은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다. 주는 東寧路에 속했고 안악, 삼화, 용강,

2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강서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2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삼화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2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삼등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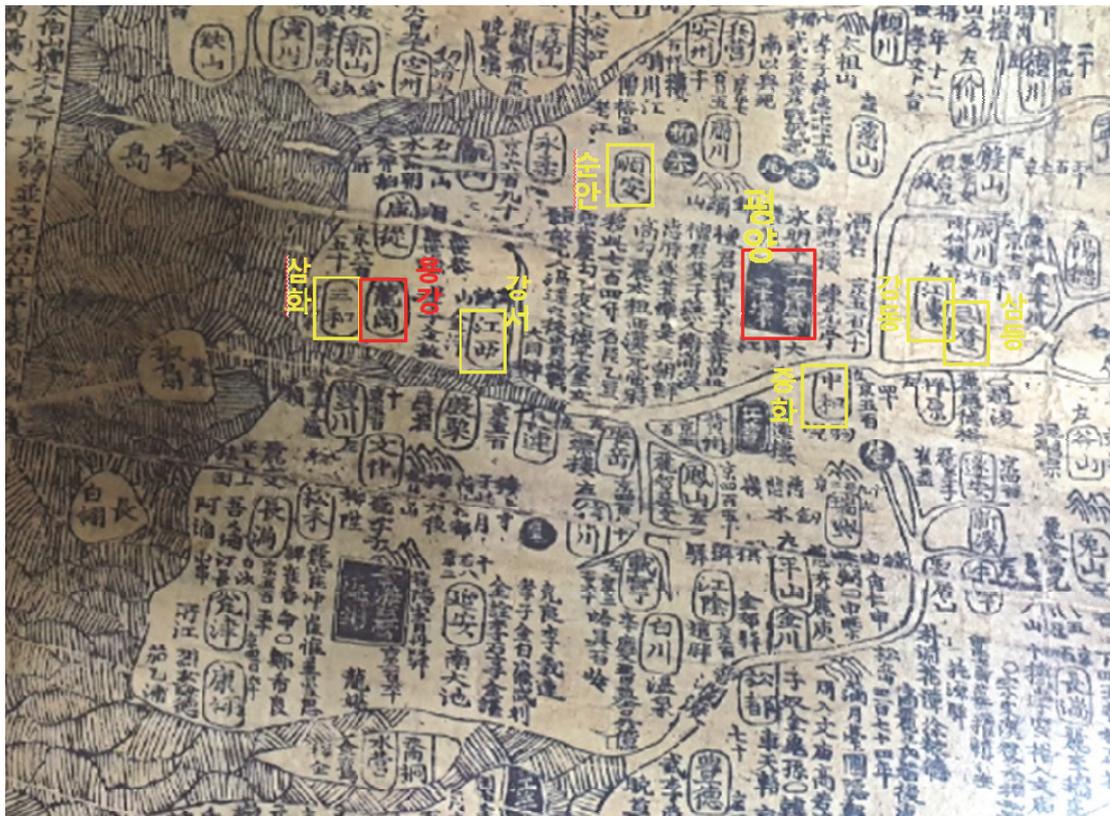
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52권 순안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함중, 강서 5 개현을 차지하고 있다(在三和縣西北州屬東寧路領安岳三和龍岡咸從江西五縣).”라 기록되고 있어 금당산은 요령성에 있는 산이다.

조선의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개현은 東寧路에 속한 역사가 없다.

(3) 西京畿의 강동, 강서, 순화, 삼등, 삼화, 중화 6개 현이 조선의 평양 주변의 서경기 현이 아니다

김수홍의 조선팔도강역도와 大明一統志의 평양 주변을 살펴보자.



[그림 25] 김수홍의 조선팔도강역도(1673년)의 평양 주변

서경 주변의 서경기西京畿가 강동江東, 강서江西, 순화順和, 삼등三登, 삼화三和, 중화中和 6 개 현縣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의 서경이 조선의 평양이라면 위 지도에서 강서와 삼화의 중간 지역인 용강도 서경기西京畿에 소속되어야 한다. 위 지도에서 삼화는 남포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삼화와 강서의 중간 지역에는 용강龍岡이 있어 옛 삼화는 강서나 순안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25) 『大明一統志』이현 외, 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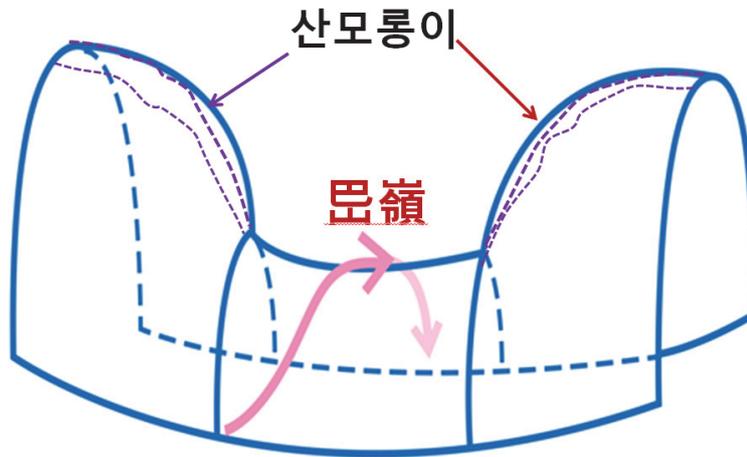
VI. 절령(岫嶺)과 황주 위치 탐구

1. 자비령(또는 岫嶺) 위치 탐구

1) 절령의 기학적 모습

자비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절령岫嶺으로도 불렸다. 자비령은 령의 기하학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절령岫嶺은 령의 기학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명칭이다.

령嶺은 수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기울어진 령을 넘어가는 사령, 극점을 넘어가는 극령이 있다. 극령 중에서 령의 양쪽에 산모퉁이가 확연하게 있는 절령이 있다. 절령岫嶺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6] 절령岫嶺의 기학적 모습

절령의 의미는 령의 양쪽에 산모퉁이가 있는 령으로 이런 의미의 절령으로 령 부분에 3Km 이상 되고 차마도로에서 전투도 일어나고 했음직한 곳으로 개경과 의주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주 북쪽 봉성시(옛 鳳皇城)에서 옛 차마車馬도로를 따라 본계시를 가는 도중에 분수령 기가보촌의 양쪽에는 산모퉁이가 있어 령 부분에 3Km 정도의 비교적 평평한 지역이 있다. 기가보촌祁家堡村을 지나는 분수령은 완전한 모습의 절령이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역참로 상에 령 부분에 3Km 이상의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형성한 모습의 절령은 이 곳이 유일하다.



[그림 27] 연산관과 봉성시 사이의 기가보촌의 절령: 분수령 양쪽에서 개울들이 분수령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봉성시(옛 鳳皇城)에서 옛 차마도로를 따라 본계시를 가는 도중에 분수령 기가보촌의 양쪽에는 산모롱이가 있어 령 부분에 3Km 정도의 비교적 평평한 지역이 있다. 령 부분이 3Km 이상이다. 그림에서 A 부근의 개울물은 태자하로(옛 대동강)으로 흘러간다. B 부근의 개울물은 압록강으로 흘러간다.

2) 고려사²⁶⁾의 자비령 위치 설명

고려사 지제 편에 동주洞州의 절령岵嶺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려사 지제 12).

“동주(洞州)는 본래 고구려의 오곡군(五穀郡)(우차탄홀(于次呑忽)이라고도 함)이었다. 신라 경덕왕은 오관군(五關郡)으로 고쳤다. 고려에 와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고 성종 14년에 방어사를 두었으며 현종 초에 방어사를 없애고 본주에 소속시켰다. 원종 때에 왕의 태(胎)를 안치하였다 하여 서흥(瑞興)현령관으로 승격시켰는바 룡서(隴西)(성종이 정한 명칭)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요해처로서 절령(岵嶺)(慈悲嶺이라고도 부름)이 있다.”

26) 『高麗史』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145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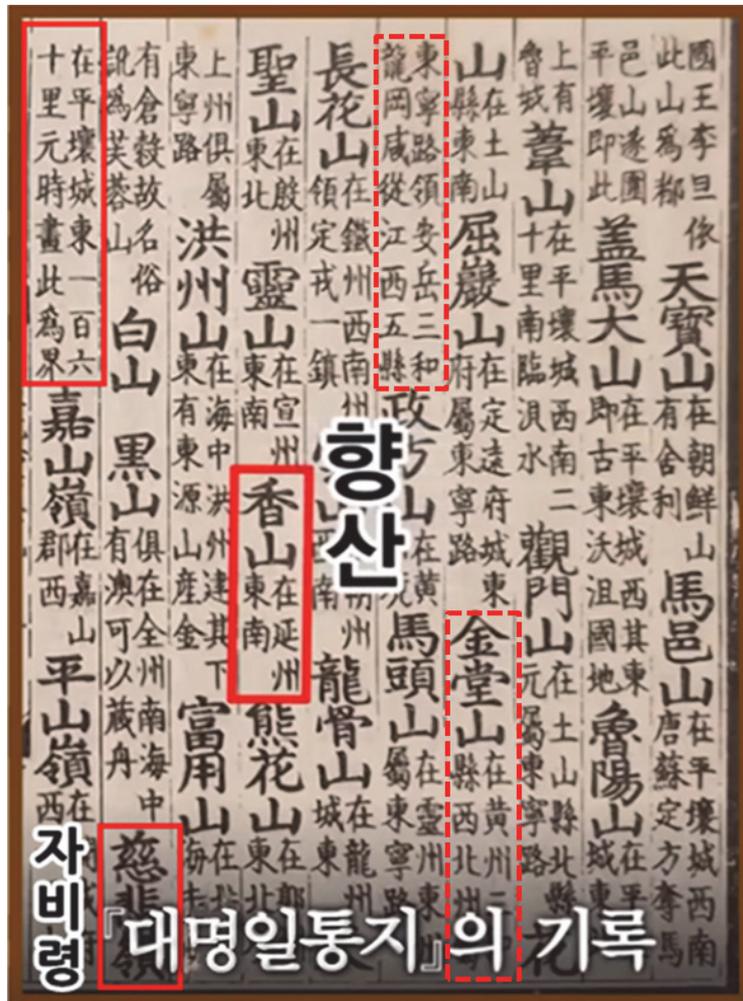
기가보촌에는 절령이 있다. 기가보촌에는 동구洞溝가 있다. 洞溝는 동주洞州의 붓도랑이라는 의미이다. 기가보촌에는 왕도구王道溝도 있는데 이는 임금의 길의 붓도랑이라는 의미이다.

3)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자비령 위치 설명

대명일통지²⁷⁾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慈悲嶺: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 원나라 때 여기에 선을 그어 경계로 삼았다(在平壤城東一百六十里 元時 畫此 爲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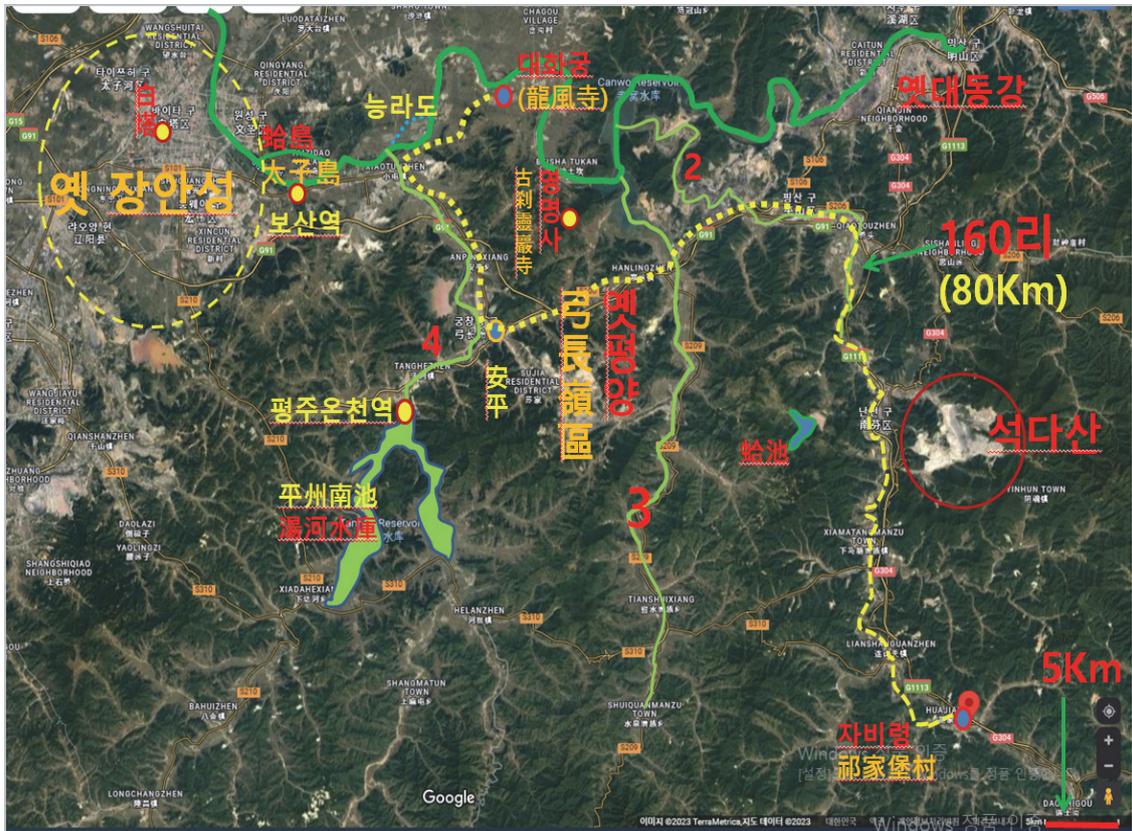
평양성에서 자비령의 방향과 거리를 실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대명일통지에 자비령과 금당산의 위치 설명이 있다.

27) 『大明一統志』 이현 외, 1461.

실제로 평양성 대화궁(현 龍風寺)에서 자비령(다른 명칭 岵嶺)까지의 실제 거리를 재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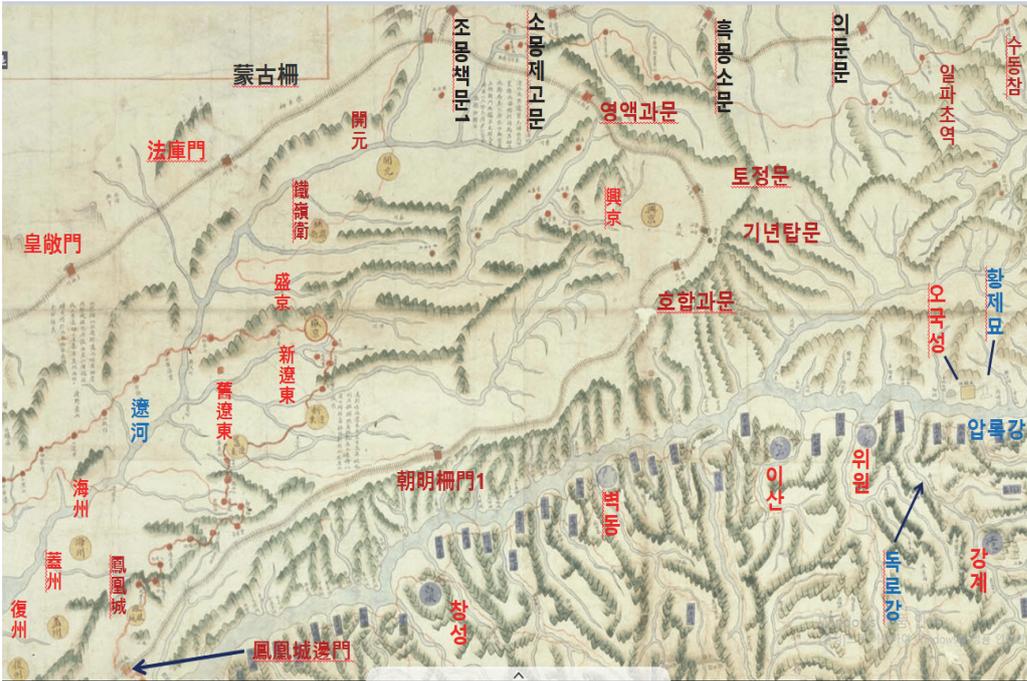


[그림 29] 용풍사에서 기가보촌까지 옛 역참로를 따라 거리를 재면 160리이다.

기가보촌에 있는 분수령은 절령의 기하학적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고려사에서 절령은 洞州에 있다고 하였다. 이 분수령 기가보촌에는 동구洞溝가 있고 洞溝는 동주洞州의 붓도랑이라는 의미로 이 절령은 동주에 있는 것이다. 자비령이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는 기록과도 잘 맞는다.

따라서 기가보촌이 고려의 절령岵嶺(또는 자비령)이다.

참고로 대명일통지에 서술된 산과 령은 명의 영토내의 산과 령嶺이라고 본다. 다음의 피아양계지도에서 조선과 명의 경계를 알 수 있다. 조선과 명 사이에 목책이 있고 봉황성변문鳳皇城邊門, 영액과문 등 6개의 책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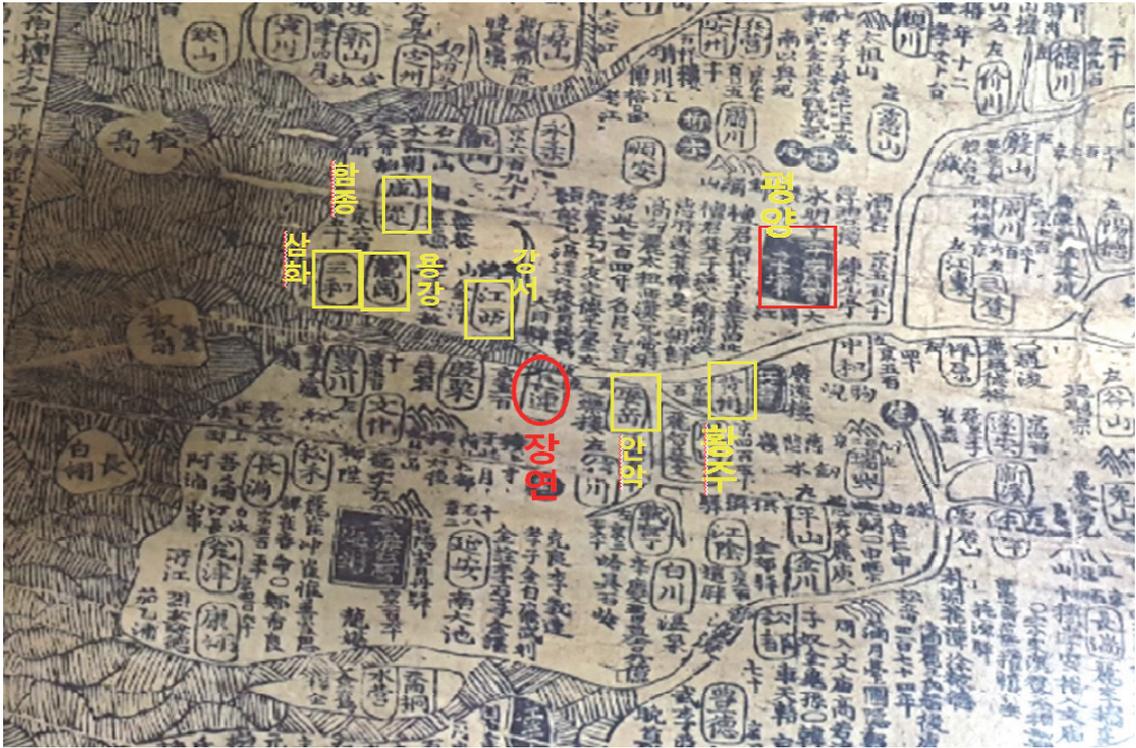
[그림 30] 피아양계지도(해동지도)의 서북 지역: 조선, 명, 몽고와의 사이에 목책이 있다.

2.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위치 탐구

대명일통지에 “금당산金堂山: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다. 주는 동녕로東寧路에 속했고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거느렸다(즉 屬村으로 했다)(金堂山: 在三和縣西北州屬東寧路領安岳三和龍岡咸從江西五縣)”라 기록되어 있다.

1) 대명일통지의 황주는 조선의 황주가 아니다

조선의 황주는 동녕로에 속했던 역사가 없다.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들 수 없는 영역적 구조이다.



[그림 31] 김수홍의 조선팔도강역도(1673년)의 평양 서쪽 지역

위 조선팔도강역도²⁸⁾에서 안악과 강서, 용강 지역 사이에 장연이 있다. 황주의 속촌으로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가지고 있는데 안악과 강서, 용강 지역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황주가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하지만 안악과 강서, 용강 지역 사이의 장연을 제외하고 속촌들을 구성했다는 것은 행정영역 설정의 상식과 안 맞는다.

대한민국 시기의 북한 평양 서쪽 지역을 살펴보자.

28) 『조선팔도강역도』 김수홍, 1673.



[그림 32] 대한민국지도(영진문화사, 2007년)의 평양 서남부 지역

위 대한민국지도²⁹⁾에서 안악과 옛 삼화, 용강 지역 사이에 은천(옛 장연)이 있다. 황주의 속촌으로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가지고 있는데 안악은 강서, 용강, 삼화, 함중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황주도 마찬가지이다. 황주와 안악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하지만 안악과 강서, 용강 지역 사이의 은천(옛 장연)을 제외하고 속촌들을 구성했다는 것은 행정영역 설정의 상식과 안 맞는다.

따라서 대명일통지의 황주는 황해도의 황주가 아니다.

29) 『대한민국지도』영진문화사, 2007.

2) 안시성과 고려의 용강 위치 탐구

신증동국여지승람³⁰⁾의 용강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용강현 건치연혁] 옛날 황룡국黃龍國이었는데 고구려가 합병하였으며, 고려에서는 황룡성黃龍城이라 하였다: 일명 군악軍岳이라고도 한다. 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縣으로 하였는데

[용강현 산천] 오석산(烏石山): 현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봉곡산鳳哭山:

[용강현 성곽] 안시성安市城: 오석산에 있는데 현의 치소治所와의 거리는 5리이며 험하고 견고하기가 비할 데 없다. 돌로 쌓았는데

○ 지금 대명일통지를 살펴보면, 안시폐현安市廢縣을 살펴보면 안시폐현은 개주위蓋州衛 동북쪽 70리에 있는데 한漢이 세웠으며 당나라 태종이 공략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설인귀가 백의白衣로 올랐다는 성이 바로 이 성이다.....

[용강현 [비고]의 성지] 황룡산성黃龍山城: 안시성이라고도 한다. 고읍성古邑城: 어을동고성於乙洞古城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용강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용강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황룡국이 있었었고 안시성(황룡산성黃龍山城)라고도 함)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 용강은 개주위蓋州衛 동북쪽 70리에 있다.

이 지역은 평안도의 용강이 아니고 요령성 개주시蓋州市 동북쪽 70리에 있는 해성시海城市 지역이다.

30)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그림 33] 蓋州의 동북쪽 70리는 海城(옛 용강) 지역이다. 이 지역에 안시성이 있다.

안시성이 해성시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된 듯하다. 오석산도 알기 어렵다.

3) 고려의 함종과 안악 위치 탐구

(가) 신증동국여지승람³¹⁾의 함종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본래는 고려의 아선성牙善城이었는데 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산천] 아선산牙善山: 현의 동쪽 2리에 있고 일명 호두산虎頭山이라 하는데 진산鎭山이다.

[비교]의 [창고] 읍창邑倉 海倉: 서쪽으로 20리에 있다. 성창城倉: 남쪽으로 30리, 황룡산성黃龍山城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종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함종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아선산이 있었었다. 이 함종의 치소治所는 황룡산성黃龍山城 북쪽 30리에 있다. 즉 함종의 치소治所는 안시성安市城 북쪽 30리에 있다. 즉 고려의 함종은 안시성이 있었던 옛 용강 지역(현 海城)과 북쪽으

31)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로 접해 있었다.

(나) 신증동국여지승람³²⁾의 안악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본래는 고구려의 양악군楊岳郡인데 고려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산천] 양산楊山: 군 북쪽 5리에 있는 진산이다. 성초곶: 군 동쪽 60리에 있다. 월불당포月不唐浦: 군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간다. 大明一統志에 나온다. 원당포: 군 동쪽 40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악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안악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월불당포月不唐浦는 명나라 산천들을 기록한 大明一統志에 나와 명나라 영토안에 있는 포浦이다. 월불당포月不唐浦는 현재의 요령성 지역에 있는 포浦이다.

안악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안악은 요령성에 있으며 안악 영역의 장경의 최소 길이는 60리(30 Km)가 넘는다. 안악은 바다와 접해 있는 걸로 판단된다.

4) 최탄崔坦이 군사를 모은 용강, 함중, 삼화의 위치와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³³⁾의 삼화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고려 인종 14년에 西京 경내를 나누었는데, 금당金堂, 호산呼山, 칠정漆井을 합하여 삼화현을 만들고 영수를 두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삼화현 산천] 금당산金堂山: 금당부곡에 있다. 우산牛山: 현의 남쪽 4리에 있다.

○ 고려 원종元宗 10년에 임연林衍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창安慶公曄을 세웠다. 서북면병마사영西北面兵馬使營의 아전 최탄(崔坦)은 이연령李延齡, 현효철玄孝哲 등이 연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용강, 함중, 삼화 사람을 모아 가도영에 들어가 분사어사分司御使 심원준沈元濬과 김창金倉, 박수혁朴守奕,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최탄崔坦이 군사를 모은 ‘용강, 함중, 삼화’ 3개 현은 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는 현들이다. 삼화는 평양성 서쪽에 있고 용강의 북동쪽에 있는 현이다.

황주의 속촌들 중 안악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안악현 기록들을 살펴보고도 그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황주의 속촌 5개현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는 연결된 영역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황주의 속촌 5개현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32)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33)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그림 34]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속촌: 용강, 함중, 삼화, 강서, 안악 추정 지역

고려 성종 12년 고려 조정에서 거란에게 “서경 이북의 땅을 적에게 넘겨주고 황주로부터 절령에 이르는 계선을 국경으로 정하자(고려사, 권94, 열전 제7권).”라는 의견에 서희 장군은 반대했다.

이 의견에서 “서경 이북”은 대동강(현 태자하) 이북을 말하고 “황주로부터 절령에 이르는 계선”은 현재의 요양의 태자하를 따라 2번 지류를 거슬러 올라가 기가보촌(절령)의 강과 지류로 국경선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VII. 결론

평양부 고지도와 강과 지류들을 갖고 위상적으로 동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북한 평양 근방이 아니다. 평양부 고지도와 강과 지류들을 갖고 위상적으로 동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요양시 궁장령구 근방이다. 이 지역에 대화궁(용풍사)이 있었고 영명사가 있었다. 대화궁에서 100리 근방에 석다산도 있다. 불곡면은 3번 지류의 거의 최상류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성 주변에 석다산면石多山面, 불곡면佛谷面, 임원면林原面, 합지면蛤池面 등 28개 면은 북한 평양 근방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초경 90리 종경 120리인 석다산면이 북한 지역이라면 평양 서북 100리 지역은 바다이다. 평양부 주변 28개 면은 궁장령구 근방에 있었던 것이다.

절령은 대화궁(평양성)에서 동쪽 160리에 있어 대명일통지의 기록과 일치해 궁장령구는 고려의 평양(서경)이다. 평양부 고지도는 장안성과 평양이 서로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곳이 장수왕의 평양이기도 하다.

평양부 고지도가 맨 처음 제작된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이 지도의 오른쪽 부분에 장안성(長安城)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부 서쪽에 장안성(지도를 분석한 후 궁장령구가 평양성고요양 중심지가 장안성임)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지도는 맨 처음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지도는 고구려 때 처음 제작되고 천년 이상 모사(模寫)되어 전해진 것으로 판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양성과 장안성이 경계를 맞대고 있을 때는 고려나 조선 시대는 아니고 고구려 시대뿐이다.

남의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졸본 부여 도읍지 천도 이후 고구려 도읍지 천도는 국내성(國內城) - 환도성(丸都城) - 평양(平壤) - 평양 동쪽 황성(黃城(혹자는 東黃城이라고도 함)) - 平壤城(장수왕) - 장안성(長安城)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의 도읍지 중 2곳이 평양이다. 고려는 상경(개경), 동경, 서경(平壤), 남경 4경을 두어 전국을 통치했다고 하여 고려에도 평양(서경)이 있었고 조선에도 평양이 있었다. 요양시 궁장령구는 장수 대왕의 평양이요 고려의 서경(평양)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³⁴⁾에 삼조선(전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도읍이고 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기자정이 있다.

고려는 상경(개경), 동경, 서경(平壤), 남경 4경을 두어 전국을 통치했다. 4경 중에서 개경과 서경 주변에는 경기(京畿)를 두었지만 동경과 남경 주변에는 경기(京畿)를 두지 않았다.

(1) 경기(개경 주변): 개성부도내, 승천부도내, 강화도내, 장단도내(고려사³⁵⁾ 권 82, 지제 36)

(2) 서경기(서경 주변): 강서현, 삼화현, 강동현, 삼등현, 중화현, 순화현

서경기는 서경(궁장령구) 주변에 있었던 6개현이다. 요양 중심 시내는 강서현 소속이다.

대명일통지의 금당산 위치는 놀랍게도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고 황주는 동녕로에 속했고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갖고 있다” 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황주와 그 속촌(屬村)의 위치를 요양 남쪽 지역에서 찾았다. 놀랍게도 옛 용강이 해성 지역이다. 이 지역에 안시성(황룡산성)이 있다. 지금의 용강은 조선의 용강이다.

34)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35) 『高麗史』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1451년.

참고문헌

(원전)

- 집현전, 정인지 외 29명, 『高麗史』1451년.
- 『고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00년대 정리.
- 『구글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00년대 정리.
- 이현 외, 『大明一統志』, 1461.
- 『대한민국지도』, 영진문화사, 2007.
- 『서경전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800년대 정리.
-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 김수홍, 『조선팔도강역도』, 1673.
- 『피아양계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제작년도 미상.

(단행본)

- 남의현, 「고구려 7차 천도와 도읍지 연구」, 『한국 북방 경계의 흐름』, 대한사랑(서울), 2021.
- 복기대,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주류성출판사, 2017.
- 정택선, 최규홍, 『만주에 평양성을 가진 대제국 고려』, 상생출판, 2020.

(논문)

- 정택선, 최규홍, 「위상수학 교육과 묘청의 서경 평양성 고지도 분석에의 응용」, 교육문화연구, 23, 2017.
- 정택선, 최규홍, 「위상수학을 활용한 고려 평양부 고지도 분석」, East Asian Math. Journal, 34(4), 487-509, 2018.

신라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에 대한 논평

안병우(충북대학교)

본 논문은 경영학자로서 우리 역사와 정신문화의 본질문제에 대하여 한평생 연구해 오신 이강식 교수님의 또 하나의 역작이라고 감히 평하고 싶습니다. ‘신라의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변증’이라는 제목이 워낙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였거니와 평소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던 문제, 즉 우리 역사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신앙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토론을 청하였으나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니 신라의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종 문헌자료와 그에 대한 사색의 깊이가 너무도 광대했기에 천학인 저로서는 논평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득이 논평의 시간을 맞이하여 논평자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신라의 풍류도가 완벽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동원된 연구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해서 제한된 시간에 모두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 신앙, 우주관, 신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민족 고유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논문은 풍류야말로 한민족 고유의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사산비명은 난해하기로 학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양산봉암사에 있는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병서’에 나오는 신라 헌강대왕과 지증대사간의 선문답 “金仙花目
金仙花目 **所傳風流, 固協於此!** (“금선화목 부처의 연꽃핵심진리가 바람흐름풍류가 전해 온 바와 진실로 여기에서 일치하는구나!”)에서 신라 풍류도와 선불교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석한 부분은 날카로운 대가의 눈이 아니고서는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간단해 보이지만 내재된 내용은 심오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류이며 삼교를 포함하

고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논문의 핵심주제가 들어 있는 문장인데 사실 이것을 논증한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바로 환국배달단군조선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의 국통을 말하는 것이며, 현묘한 도의 뿌리를 환국과 신시배달의 풍백제도에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사료를 통하여 구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풍류의 원류가 풍백이라는 주장에 다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행법의 핵심이 호흡에 있고 호흡이란 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인데 그 기의 실체가 바람이고, 이때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신과 기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생명의 바다로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바람을 통한 수행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명의 존재로 거듭날 수 없기에 태우의 환웅천황의 묵념청심, 조직보정이나 삼일신고의 지감, 조식, 금축이 모두 풍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우리민족의 뿌리를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환국의 통치자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이념을 가지고 천부와 인 3개라는 국통계승의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 동방땅으로 와서 태백산 신시에 정착을 해서 나라를 열고 원주민인 웅족과 호족을 교화해서 광명의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준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고조선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간의 저술과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관한 한 국내외를 통틀어 최고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 연구에서도 고조선기의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웅족과 호족이 환웅의 지도에 따라 마침내 변득인형하는 과정이 바로 풍류도의 실제 내용이라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환국과 신시시대의 가르침을 천신교, 천선교, 천전교로 정명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천신교는 천신을 믿는 종교, 천선교는 하늘의 신선이 되는 가르침을 열어주는 종교, 천전교는 완전한 인간인 전이 되게 해주는 종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러한 정명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시대의 백성을 교화하는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의 종교의 범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란 말은 서구문화가 동양으로 들어오던 때 religion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뿌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종이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을 교라고 했다는 중국 영명연수 선사의 종교지지라는 책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라는 말은 본래 불교와 관련된 것임에도 이것을

religion을 번역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religion은 원래 재결합을 의미하는 라틴어 religio에서 온 말로서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신과 멀어져 있으므로 다시 신과 재결합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religion은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별뜻없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라는 말은 이처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던 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의 유개념으로 통칭해서 도와 교가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풍류도 도나 교의 범주에 들긴 하지만 그냥 풍류이기 때문에 명칭도 풍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대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신을 모시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행위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생활문화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풍류의 근원이 되는 도나 교를 천신교, 천선교, 천전교 같은 새로운 말로 규정을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종교의 하나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힌두교와 관련하여 풍류가 인도로 전파되어 우주의 실재로서 브라흐마와 힌두교 최고신인 브라만, 숨을 뜻하는 프라나가 모두 풍류의 바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대단히 흥미롭고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루아흐, 프네우마, 숨, 령, 성령, 프쉬케 등 기독교 진리의 핵을 구성하는 언어들도 모두 바람과 관련이 있고 이 또한 풍류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도 매우 흥미롭고 우리의 알음귀를 열어주는 일리 있는 연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풍류라는 말이 생각보다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우리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의 논문은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두루 오가면서 종합 무진으로 글을 전개하셔서 세세히 논평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웅족과 호족이라는 원주민이 수행을 통해서 홍익인간이라는 광명한 인간으로 진화한 이야기로서 우리역사의 원형을 담고 있음에도 꿈이 사람으로 둔갑한 이야기로 왜곡 혹은 윤색되어서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는 바 소위 단군신화에 관한 바른 인식이 급선무임에도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도 꿈과 호랑이가 영과, 축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고 수행을 해서 꿈이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에 대한 논평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윤창열

한국의 강단사학계는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등에 대해서 마녀사냥하듯이 위서라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의 고대사와 원형문화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머릿속이 일제식민사학이 심어 놓은 반도사관과 상고사와 국조를 부정하는 매국역사의식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3권의 책이 위서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천부경〉과 〈삼일신고〉까지 위서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매국사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유철박사의 “〈삼일신고〉 위작설 비판”이라는 논문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유철박사는 삼일신고의 판본이 발해석실본, 신사기본, 태백일사본의 3가지 전본이 있고, 시작부분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특히 신사기본은 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은 20세기 초 대중교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 낸 위작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좋은 예라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서 〈삼일신고〉가 대중교계의 위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과 신채호의 위작설에 대한 논박을 기술하였는데 모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삼일신고〉가 위서일 수 없다는 나의 견해를 간략하게 기술해 본다.

첫째, 『환단고기』를 보면 배달국, 단군조선, 고구려, 대진국 때에 삼일신고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자가 각기 다른 『삼성기하』, 『단군세기』, 『태백일사』에 산재되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교의 나철이 1905년 두암 백전에게서 석실본과 신사기본의 〈삼일신고〉를 전수 받았는데 윤초 계연수는 1897년 해학 이기를 만나 『태백진훈』과 『태백일사』를 전수 받아 1899년 『태백일사』를 간행했는데 이 속에 〈삼일신고〉가 들어있다

이때는 대중교가 창립되기도 전이다.

셋째, 윤초 계연수는 1898년 『태백유사』도 간행했는데 이 속에 삼일신고봉장기가 들어있다.

넷째, 지금 <삼일신고>에는 715년에 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쓴 「서문」, 714년 대조영이 쓴 「어찬御贊」, 문적원감 임아상이 쓴 「주해注解」, 고구려 건국공신 극재사가 쓴 「삼일신고독법」, 광성문황제의 「삼일신고봉장기」가 전해오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한문에서도 잘 쓰지 않는 한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대진국 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는 기존강단사학에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늘과 신과 천궁에 대한 정의,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간에 대해 삼진, 삼망, 삼도, 18경, 지감 조식 금축의 수행법 성통공완이라는 궁극의 목표점 등을 제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결코 위서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저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5쪽에서 저자는 “나철이 1905년 잠시 서울에 기거할 때” 라고 했는데 1905년 12월 30일 (서기 1906년 1월 24일) 밤에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서대문 역전 노상에서 백봉이 보낸 두암 백전을 만나서 삼일신고를 전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저자의 견해는?

둘째 같은 쪽에서 1979년 오형기에 의해 필사되었다고 했는데 1949년이 아닌가?

고조선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논평

이완영(사단법인 대한사랑 학술이사)

감사합니다.

1. 논자는 “고인돌은 그 숫자면에서 세계 제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거석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인돌 축조연대는 한국사학계에서 3000- 3500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6천년 경으로 설정하고 있어 고인돌문화의 시발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논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인돌 관련 연구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평안남도 대동군에 위치한 석암리 9호분(BC 108년부터 AD 313년)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인 국보 89호 금제교구(金製絞具)는 조선총독부에서 한나라 낙랑군의 유물로 규정하여 국보로 등재되었지만 현재 흥노계 유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논자는 금제교구를 고조선의 기술로 만든 유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평양부 고지도 분석과 역사적 관련 지역 위치 탐구 위치 탐구에 대한 논평

박규홍(서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평양부 고지도를 분석하여 고지도에 강과 지류에 대응되는 지역을 찾고 평양부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위치를 찾았다. 또 西京畿, 절령, 황주 등의 위치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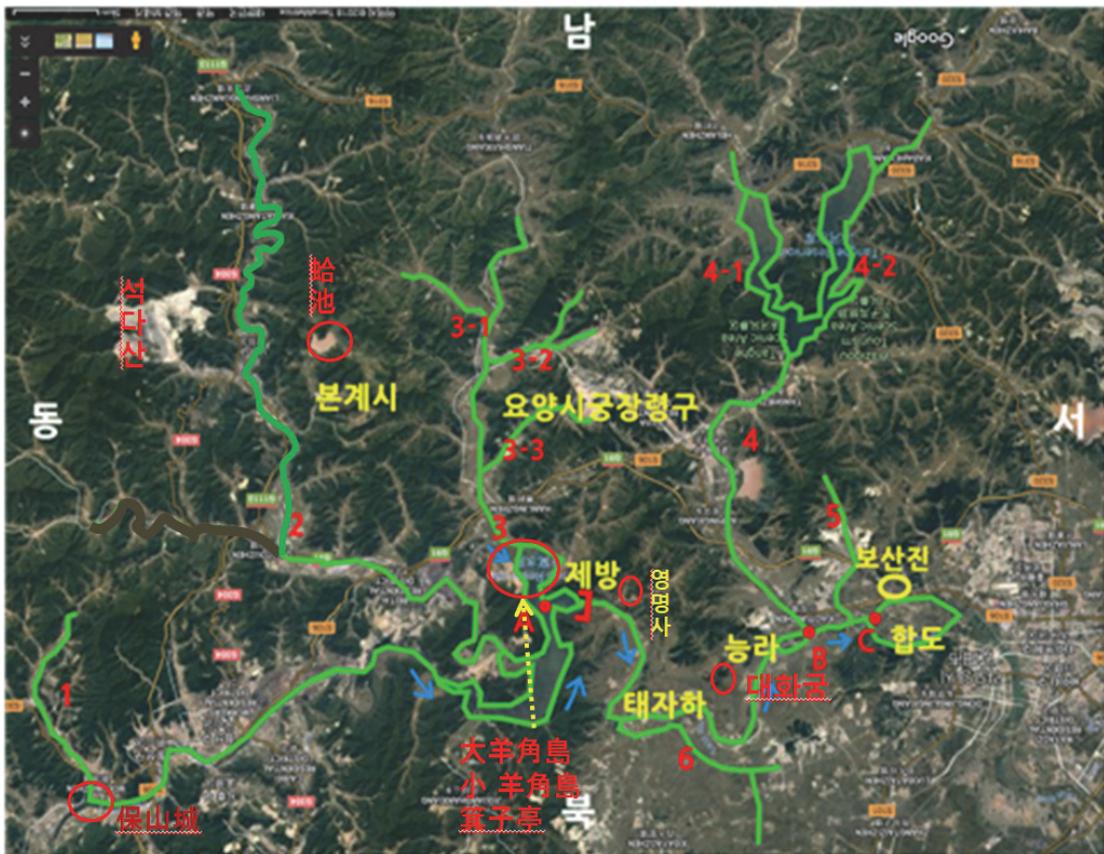
(1) 평양부 고지도를 위상적으로 분석하고 평양부 고지도가 가리키는 지역이 북한 평양이 아니고 요양시 궁장령구임을 밝힌 것은 사료에 나타나는 “고구려 장수왕의 平壤城, 西京, 東寧路, 遼陽은 같은 지역이다¹⁾.”라는 역사적 기록과도 잘 맞는다.

평양부 고지도와 요양시 궁장령구 강과 지류들이 위상적으로 동형이라는 걸 확인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다음은 평양부 고지도와 궁장령구 위성도이다.



[그림 1] 평양부 고지도(광여도(古4790-58)): 6 개의 지류가 있다. 평양성은 3번 지류와 4번 지류 사이에 있다.

1) 복기대,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주류성출판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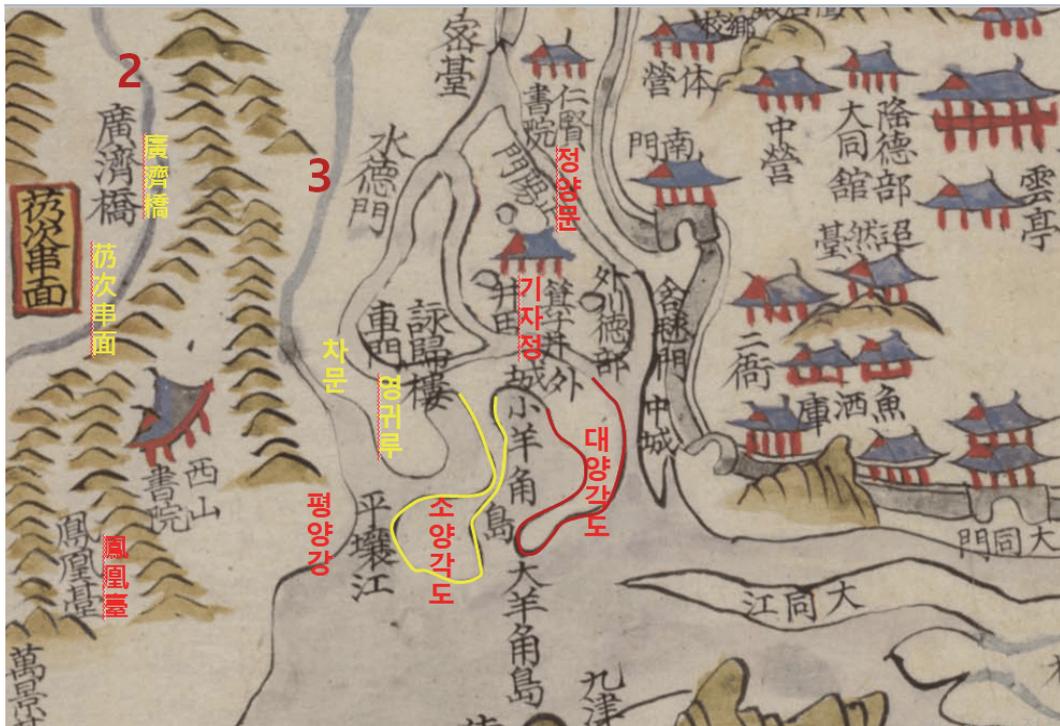


[그림 2] 요녕성 요양시 공장령구 위성도

평양부 고지도에서 하단에 있는 대동강이 현재의 태자하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양시 공장령구 지역의 위성도에서 평양부 고지도와 대응하는 큰 강과 지류, 지류의 지류를 1, 2, 3, 3-1, 3-2, 3-3, 4, 4-1, 4-2, 5, 6으로 번호를 붙여 놓아 평양부 고지도와 공장령구 위성도에 나타나 있는 큰 강과 지류, 지류의 지류를 위상적으로 대응시켜 평양부 고지도와 공장령구 위성도가 대역적으로 위상 동형이게 만들 수 있다.

(2) 평양부 고지도의 대양각도, 소양각도, 농라도, 蛤灘의 위치를 요양시 공장령구 근방에서 찾았다. 대양각도, 소양각도, 蛤灘(蛤島 옆을 지나는 개울)은 북한 평양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양시 공장령구 근방에는 이들이 존재한다. 다음은 평양부 고지도와 공장령구 위성도이다.



[그림 3] 평양부 고지도의 대양각도, 소양각도 근방: 이 고지도는 남과 북이 바뀌어서 그려진 위상도이다.

3번 지류를 평양강이라 명명하고 하구 근방에 대양각도 소양각도가 있다. 이 근방에 箕子井이 있고 井田도 있고 영귀루詠歸樓가 있다. 기자정은 3곳이다.



[그림 4] 요양시 공장령구 동북 지역과 참와수고 근방

평양부 고지도의 3번 지류는 한하寒河를 그린 것이다. 이 한하가 고려시대는 평양강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대양각도와 소양각도는 양 뿔 모양이다.

영귀루나 기자정은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영귀루 모습을 보자.



[그림 5] 탕하수고 남쪽 옛 영귀루 모습

고려 시대 서경 평양에서 팔관회는 영귀루에서 열렸을 거로 보인다. 때때로 고려 임금들은 이곳 영귀루에서 팔관회를 열고 부계(옥황각)에 올라 대동강물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며 술을 즐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참고: [고려사2]). 기자정(箕子井) 실제 모습을 보자.



[그림 6] 탕하수고 서남쪽 옛 기자정 영귀루 모습

2) 『高麗史』 세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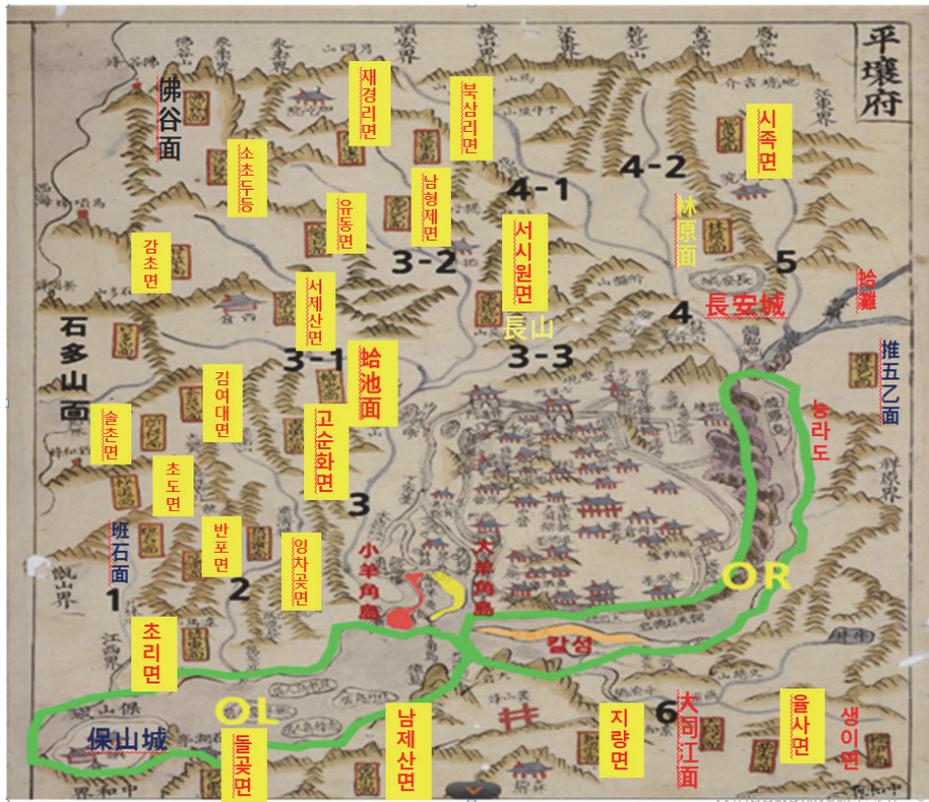
평양부 고지도에 기자정을 3개의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3개의 우물로 된 기자정이 있다. 기자정 아래의 밭들이 井田이다.

(3) 평양부 고지도에 석다산면 등 28개 면이 그려져 있다. 평양부 고지도와 평양부 주기를 가지고 석다산면 등 28개 면의 위치를 요양시 공장령구 근방에서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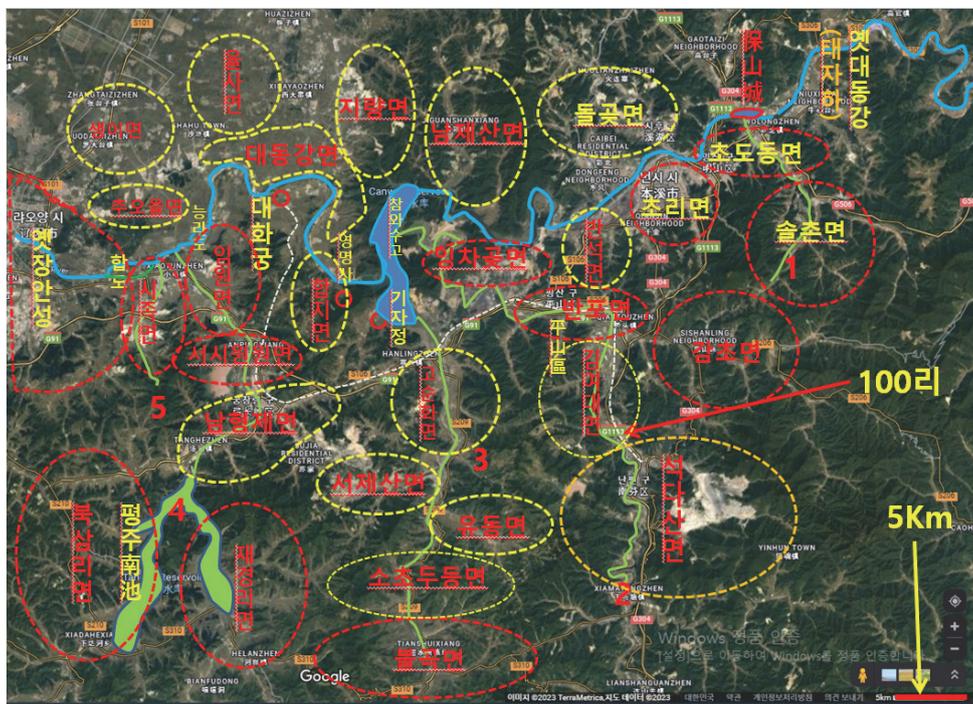


[그림 7] 요양시 공장령구의 북쪽 지역에 있는 龍鳳寺이다: 용풍사 안에 용불전이 있다. 이곳이 고려 서경의 대화궁이라고 생각된다. 이곳이 대화궁이라면 궁 중앙에 있는 건물이 팔성당이고 북쪽에 있는 건물이 乾龍殿이어야 대화궁의 상황 설명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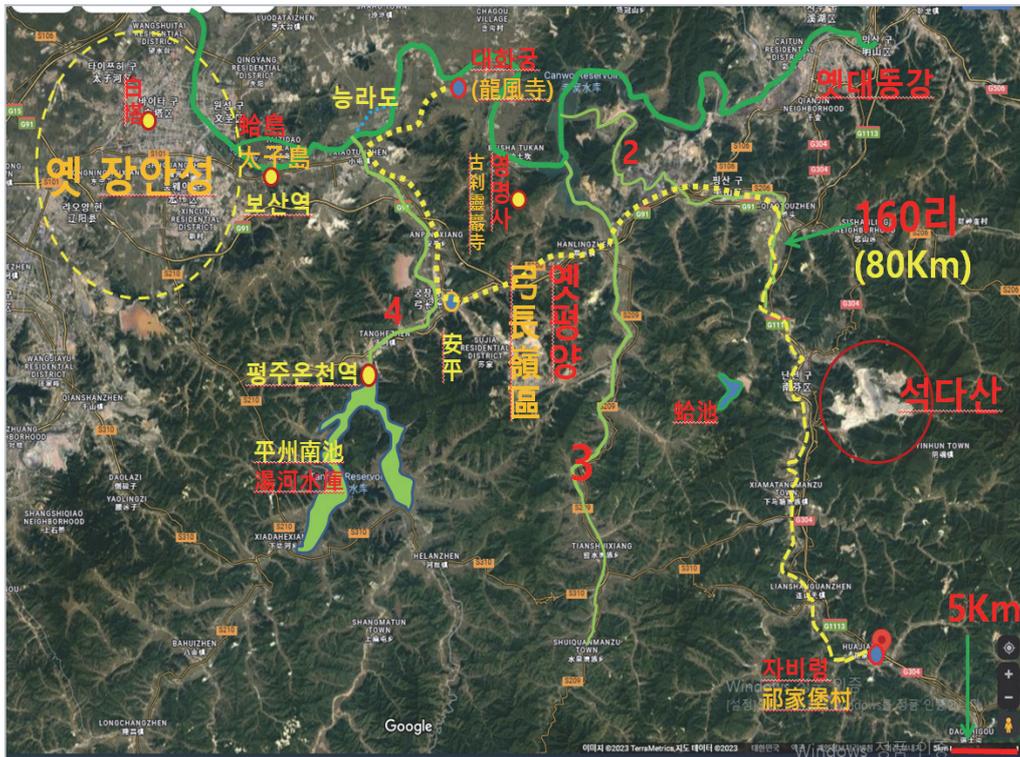
평양부 고지도에 나타난 28개 면(面)의 위상적 위치를 먼저 파악하자.



[그림 8] 평양부(해동지도)에 석다산면 등 28개 면이 있다



[그림 9] 평양부(해동지도)에 있는 28개 면의 위치(잠정)



[그림 12] 용풍사에서 기가보촌까지 옛 역참로를 따라 거리를 재면 160리이다.

(6) 대명일통지3)의 금당산 위치는 놀랍게도 “황주 삼화현 서북에 있고 황주는 東寧路에 속했고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황주와 그 屬村의 위치를 찾았다. 대한민국 시기의 북한 평양 서쪽 지역을 살펴보자.



[그림 13] 대한민국지도(영진문화사, 2007년)의 평양 서남부 지역

3) 『大明一統志』 이현 외, 1461.

위 대한민국지도4)에서 안악과 옛 삼화, 용강 지역 사이에 은천(옛 장면)이 있다. 황주의 속촌으로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가지고 있는데 안악은 강서, 용강, 삼화, 함중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황주도 마찬가지로이다. 황주와 안악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 5 개현을 속촌으로 하지만 안악과 강서, 용강 지역 사이의 은천(옛 장면)을 제외하고 속촌들을 구성했다는 것은 행정영역 설정의 상식과 안 맞는다.

따라서 대명일통지의 황주는 황해도의 황주가 아니다.



[그림 14]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속촌: 용강, 함중, 삼화, 강서, 안악 추정 지역

고려 성종 12년 고려 조정에서 거란에게 “서경 이북의 땅을 적에게 넘겨주고 황주로부터 절령(岫嶺)에 이르는 계선을 국경으로 정하자(고려사, 권94, 열전 제7권).”라는 의견에 서희 장군은 반대했다.

(7) 안시성과 고려의 용강은 해성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5)의 용강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용강현 건치연혁] 옛날 황룡국(黃龍國)이었는데 고구려가 합병하였으며, 고려에서는 황룡성(黃龍城)이라 하였다: 일명 군악(軍岳)이라고도 한다. 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縣)으로 하였는데

[용강현 산천] 오석산(烏石山): 현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봉곡산(鳳哭山):

4) 『대한민국지도』영진문화사, 2007.

5)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용강현 성곽] 안시성(安市城): 오석산에 있는데 현의 치소(治所)와의 거리는 5리이며 험하고 견고하기가 비할 데 없다. 돌로 쌓았는데

○ 지금 대명일통지를 살펴보면, 안시폐현(安市廢縣)을 살펴보면 안시폐현은 개주위(蓋州衛) 동북쪽 70리에 있는데 한(漢)이 세웠으며 당나라 태종이 공략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설인귀가 백의(白衣)로 올랐다는 성이 바로 이성이다.

[용강현 [비고]의 성지] 황룡산성(黃龍山城): 안시성이라고도 한다. 고읍성(古邑城): 어을동고성(於乙洞古城)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용강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용강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황룡국이 있었었고 안시성(황룡산성(黃龍山城)이라고도 함)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 용강은 개주위(蓋州衛) 동북쪽 70리에 있다.

이 지역은 평안도의 용강이 아니고 요령성 개주시(蓋州市) 동북쪽 70리에 있는 해성시(海城市) 지역이다.



[그림 15] 蓋州의 동북쪽 70리는 海城(옛 용강) 지역이다. 이 지역에 안시성이 있다. 안시성이 해성시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의견 통일이 안 이루어진 듯하다. 오석산도 알기 어렵다.

(8) 고려의 함종과 안악 위치

(가) 신증동국여지승람⁶⁾의 함종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본래는 고려의 아선성(牙善城)이었는데 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산천] 아선산(牙善山): 현의 동쪽 2리에 있고 일명 호두산(虎頭山)이라 하는데 진산(鎭山)이다.

[비고]의 [창고] 읍창(邑倉) o 해창(海倉): 서쪽으로 20리에 있다. 성창(城倉): 남쪽으로 30리, 황룡산성(黃龍山城)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종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함종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아선산이 있었었다. 이 함종의 치소(治所)는 황룡산성(黃龍山城) 북쪽 30리에 있다. 즉 함종의 치소(治所)는 안시성(安市城) 북쪽 30리에 있다. 즉 고려의 함종은 안시성(安市城)이 있었던 옛 용강 지역(현 海城)과 북쪽으로 접해 있었다.

(나) 신증동국여지승람⁷⁾의 안악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본래는 고구려의 양악군(楊岳郡)인데 고려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산천] 양산(楊山): 군 북쪽 5리에 있는 진산이다. 성초곶: 군 동쪽 60리에 있다. 월불당포(月不唐浦): 군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간다. 大明一統志에 나온다. 원당포(원당포): 군 동쪽 40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악현 기록들에 의하면 최초로 안악현이 설치된 지역에는 월불당포(月不唐浦)는 명나라 산천들을 기록한 大明一統志에 나와 명나라 영토안에 있는 포(浦)이다. 월불당포(月不唐浦)는 현재의 요령성 지역에 있는 포(浦)이다.

안악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안악은 요령성에 있으며 안악 영역의 장경의 최소 길이는 60리(30 Km)가 넘는다. 안악은 바다와 접해 있는 걸로 판단된다.

4) 최탄(崔坦)이 군사를 모은 용강, 함종, 삼화의 위치와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⁸⁾의 삼화현 기록들을 살펴보자.

[건치연혁] 고려 인종(仁宗) 14년에 西京 경내를 나누었는데, 금당(金堂), 호산(呼山), 칠정(漆井)을 합하여 삼화현을 만들고 영(令)을 두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삼화현 산천] 금당산(金堂山): 금당부곡에 있다. 우산(牛山): 현의 남쪽 4리에 있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7)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8)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530.

○ 고려 원종(元宗) 10년에 임연(林衍)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창(安慶公淸)을 세웠다. 서북면병마사영(西北面兵馬使營)의 아전 최탄(崔坦)은 이연령(李延齡), 현효철(玄孝哲) 등이 연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용강, 함중, 삼화 사람을 모아 가도영에 들어가 분사어사(分司御使) 심원준(沈元濬)과 김창(金倉), 박수혁(朴守奕),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최탄(崔坦)이 군사를 모은 ‘용강, 함중, 삼화’ 3개 현(縣)은 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는 현들이다. 삼화는 평양성 서쪽에 있고 용강의 북동쪽에 있는 현이다.

황주의 속촌들 중 안악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안악현 기록들을 살펴보고도 그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황주의 속촌 5개현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는 연결된 영역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황주의 속촌 5개현 안악, 삼화, 용강, 함중, 강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6] 대명일통지의 황주의 속촌: 용강, 함중, 삼화, 강서, 안악 추정 지역

고려 성종 12년 고려 조정에서 거란에게 “서경 이북의 땅을 적에게 넘겨주고 황주로부터 절령(岫嶺)에 이르는 계선을 국경으로 정하자(고려사, 권94, 열전 제7권).”라는 의견에 서희 장군은 반대했다. 이 의견에서 “서경 이북”은 대동강(현 태자하) 이북을 말하고 “황주로부터 절령(岫嶺)에 이르는 계선”은 현재의 요양의 태자하를 따라 2번 지류를 거슬러 올라가 기가보촌(절령)의 강과 지류로 국경선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결론: 황주가 요양, 안산, 해성, 대석교시 지역에 있고 서경기가 궁장령구 둘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큰 성과이다.

세계환단학회 논문 공모

세계환단학회는 학제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 인류 시원문화의 원형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2014년 6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학술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통을 바로잡고 인류보편의 흥익이념 및 광명의 역사정신을 세상에 드러낸 『환단고기』의 사학적, 문화적 가치를 환히 드러내고자 공식 학술지인 세계환단학회지를 연2회(6월, 12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홍산문화 발굴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연구하는 사학풍토가 조성되면서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우리의 역사에 관한 사실이 300건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중의 20여 건은 최근의 천문학, 고고학, 해양학, 국제정치학, 군사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환단학회는 환단고기에 기술된 우리의 역사진실과 인류의 원형문화, 철학, 사상, 언어, 풍속 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공유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지원금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0만원의 원고료(우수논문은 200만원)을 지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세계환단학회장

※논문작성 및 투고방법: 세계환단학회 홈페이지(www.hwandan.org) 참조